



11

198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7. 11호

(루게 481)



◆◆◆◆◆◆◆◆◆◆ 차 례 ◆◆◆◆◆◆◆◆◆◆

탑은 얼마나 높은가	4
승고한 선서를 간직한 집	4
내 위대한 수령님을 존경하노라	5
위대한 주체농법은	5
당의 사상리론을 구현하여 주체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자	6
여기선 다 볼수 있다	9
나는 당의 전사다	9
창가의 별들아 알아주렴	10
병사의 고향길	10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 예술화 실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 지침	11
그 이름 빛나라! 김일성 광장	15
사로청취장	18
충성의 열매	18
대중의 의식화문제를 새로운 극적 양상으로 깊이있게 밝혀준 불멸의 명작	19
소조원이 간곳은	25
법칙	26
시대의 꽃향기	38
발자취	39

기다리는 곳	40
내 사랑 고향아	50
순천바람	50
나는 병사였다	51
당원의 그 이름	51
공화국의 재부	52
이삭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60
하나의 물음앞에서	61
그리움에 사무쳐	62
정다운 두 집	62
아, 순천	63
야전밥통	63
교원의 마음	64
내 한생 오르는 층계	64
속담풀이	65
《동유기》에 대하여	66
동유기	66
고향에 대한 생각	70
어머니에 대한 답시	71
우리는 한자리에 앉게 될것이다.	72
분계선 시초	75
혁명적수령관에 대한 생활의 교과서	77
조명탄	78
《통일거리》	78
산 너는 백만	79
따분하지 않고 재미있는 기사	79
박연폭포의 노래	80

탑은 얼마나 높은가

리종섭

하늘을 향해 얼굴을 젖히고
올려다보고 또 보는 주체사상탑!
정녕 탑은 얼마나 높은가
그 끝을 내 알길 없으랴

170미터
그 높이를 몰라서가 아니다
그것만으로 다 짚을 없는
보다 높은곳으로 시상이 내려쳐
내 그냥 우러러 바라보노니

창공에 이글거리는 화불이어
너의 빛은 지구의 어디까지 비치느냐
너의 빛은 몇천 몇만 세기를 밝히느냐
비치는 한계가 정해져있는
다만 그런 불빛이라면
내 이리히 승엄하게 젖어있을것인가

아, 우리 수령님
이 세상 가장 귀중한 자리에
사람을 세워주시고
자기 운명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
인민대중이 거대한 힘을 떨치게 하신
그 위대한 사랑의 화불이 탄다!

주체의 이 시대를 향도하는
우리 당의 예지가 없거저
세월따라 화불은 더 세차게 타오르고
탑은 더 높이 솟아오르거니

주체사상탑은 어디서나 보인다
아프리카의 장굴속에서도
대양주 섬나라 도래굴이에서도
총잡은 투사, 조개따는 해녀들
누구나 신념의 기둥으로 우러른다

아, 오늘에 사는 사람만이 아닌
먼 후세기에 태여날 어린이들 눈동자에도
그 빛발은 해발처럼 비쳐
인간만세의 꽃발을 걷게 되려니

어제날 살기 어렵고 앞날이 캄캄할 때면
《하느님》앞에 꿇어앉아 빌던 사람들이
우러러 얼굴 높이 든
주체사상탑

주체사상탑
이는 삶과 투쟁의 등대
이는 인류에게 베푸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높이!

정녕, 주체사상탑은
얼마나 높은가
이 세상에 사는 온 나라 사람들
우러르고 또 우러러봐도
끝없이, 끝이 없이 높이만 보여
수차로는 표기할수 없는 그 높은곳!
인류사상사의 제일봉에 솟아있으랴

숭고한 선서를 간직한 집

로재룡

물소리 랑랑하고 솔바람 싱그러운
배덕령기슭의 외진 산당집
뜨락의 정가로운 우물가에
한그루 배나무 서있는 집

공작의 밤을 또 어디서 지새우시고
찬이슬 밟으시며 돌아오신 새벽에도
김형권동지
솟구이 로동자며 화전민들과
때없이 마주앉으시던 력사의 집

지금도 들려와라
비좁은 방안을 찡찡 울리는
열정 넘친 김형권동지의 목소리

무장투쟁의 진리, 장군님의 뜻을
투쟁의 불씨로 심어주시던 목소리

아, 태양만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장군님 따르는 새삶이 태어나던 집
오늘도 수천수만의 심장마다에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는 집

배덕령기슭의 작은 집
혁명의 집이어
그날에 이어 오늘에도
수령님만을 천만년 모시려는
인민의 숭고한 선서를 간직한 집이어

내 위대한 수령님을 존경하노라

아이자이아 콰오 모리슨

내 위대한 수령님을
존경하노라
끝없이 존경하노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국주의가 앗아갔던 모든것을
고스란히 찾아주셨어라

내 위대한 수령님을
존경하노라
그이는 주체조선의 아버지
위대한 수령님 모시여
내 부러울것 없고
두려울것 없어라

내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할제

가슴속 깊은곳에
찬란한 해빛 비치여
온갖 시름 가뭇없이 사라지고
밝은빛 넘치여라

내 마음 위대한 수령님께로 날아갈제
고요한 선들바람
귀전에 끝없이 설레이네

조선은 나를 반겨 맞아주네
만방에 이름 떨친 조선
조선의 아름다움은
그이의 은혜로운 사랑을 노래하네
아! 내 위대한 수령님을 존경하노라

(필자는 가나시인임)

위대한 주체농법은

리광

마음속 기쁨을 불러내며
넘실
바라보는 얼굴에 웃음을 불러내며
출렁

흐뭇하구나
행복에 설레이는 마음처럼
일렁이는 이삭의 파도여
하늘땅에 가득찬 낱알향기여

귀기울이니
여문난알의 노래런듯
풍년들판에 가득찬 설레임소리
하많은 사연 속삭이고

바라보니
벼바다에서 솟구친 파도인양
강냉이물결이 진정을 못하며
후더운 생각도 불러내누나

눈녹던 이른봄
저 두렁길에 새겨진 사랑의 자욱따라
계절의 눈서리를 이겨낸
창조의 봄은 오고

비바람 지나간 그 새벽
미끄러운 저 두렁길에 새겨진 뜨거운 자욱 있어
자연의 몸부림을 이겨낸
만풍년의 오늘이 펼쳐진것 아닌가

오, 내 지금 서있는 여기가 아닌가
우리 수령님
몸소 창조하신 주체농법 익혀주시며
찾아오고 또 찾아오신 그 논벌이

봄에는
모판 씨뿌리기와 모내기 새 방법
여름에는
물대기와 비료주기 새 방법 가르쳐주시며
찾아오시고 오시던 그곳이

그 빛나는 자욱자욱우에
벼바다, 강냉이바다의 끝없는 설레임소리...
우리의 행복이 한껏 여물어
하늘땅에 가득히 터친 조국의 웃음소리...

아, 우리 수령님
온 나라 농장별 쉬임없이 밝으시며
창조하신 주체농법이 한껏 무르익었구나
공산주의 그날을 꽃피우며

당의 사상리론을 구현하여 주체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자

참가자들

강능수 (조선문학창작사 부사장)
리종렬 (4.15문학창작단 작가)
진재환 (")
김홍무 (조선문학창작사 작가)
정창윤 (")
박호범 (")
백 하 (")
김세륜 (조선영화문학창작사 작가)
본사기자

본사기자,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은 생활의 철학을 밝히고 인간의 운명문제에 예술적 해답을 주어야 할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사활적인 문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깊이 학습하면서 그것을 창작실천에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사활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문헌에서 밝혀진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창작실천에 구현하여 우리 문학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개화발전시키겠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강능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현실태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주체사상의 원리들을 새롭게 밝히시였으며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강령적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사상교양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을 주체사상의 원리와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이것은 문학작품창작에서도 그대로 지켜나가야 할 원칙적 요구로 됩니다.

진재환, 오늘 우리 문학이 사람들의 심장의 금선을 건드리는가 못건드리는가 하는데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작품에 주체의 인생관을 깊이있게 구현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의 인생관은 삶에 대한 가장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주고 사람들에게 참답고 보람있게 사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다고 봅니다.

김홍무, 옳습니다. 최근에 창작된 장편소설 《야금기지》만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오직 야금공업의 주체화에 이바지하려는 일념밑에 끊임없는 창조로 삶을 빛내가는 주인공 강기석이나 능력과 책임성이 겸비되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완강하며 주관이 세고 작품이 거칠지만 옳은것 앞에서는 잘못을 주저없이 인정할줄도 아는 지배인 최병기에게는 확실히 독자들의 심금을 건드리는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가가 주체의 인생관의 견지에서 인물들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것이 발현되는 계기들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형상한것이 있습니다.

정창윤, 우리가 작품들에 주체의 인생관을 구현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성격형상의 심오성을 보장한다는것을 말할것입니다. 즉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책으로 하여야 할것입니다. 성격을 주체의 인생관의 견지에서 규정하고 그것을 밝히는 경우에도 거기에 력점을 두고 그것을 일관하게 끌고나가면서 생활세부를 탐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신념이 뚜렷한 개성을 창조할수 없으며 결국 주체의 인생관을 투철하게 구현할수 없습니다.

강능수, 우리 문학에서 충실성교양문제나 당정책교양문제, 계급교양주제와 혁명전통주제, 사회주의애국주의주제 등 어떠한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여도 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생활을

묘사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작품이 다 주체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주체문학의 면모를 갖출수 있을것입니다.

백하, 중요한것은 주제설정과 해명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진행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가 당정책교양의 주제이건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의 주제이건 할것없이 그 모든 출발점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야 하며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풀어나가는데 형상을 집중시켜야 할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그 모든 주제의 문학작품이 주체사상교양과 철두철미 일원화된 당적인 문학으로 되어 자기의 면모를 훌륭히 갖출수 있습니다.

리종렬,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의 갈피속에는 일찌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빛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도 있습니다. 우리 문학은 실재한 이러한 원형들을 혁명전통교양의 주제나 당정책교양의 주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주제, 계급교양주제에 담아서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가 선 인간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세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이 요구하는것을 쓰는 작가가 바로 당의 작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 영화문학창작가들은 당정책연구를 자기 창작의 첫공정으로, 창작전과정의 지침으로 삼아왔습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인즉 바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전술인바 당정책교양이 주체사상교양과 별개의 것으로 될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도 우리에게는 예술영화 《보증》과 같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당이 요구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박호범, 작품의 사상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해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가는 작품의 사상을 통하여 자기의 사상미학적 견해와 립장, 자기가 열렬히 긍정하고 찬양하고 호소하려는 문제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사실상 작품의 사상은 주체사상교양을 심화시킬수 있는

기본고리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정창운, 작가들은 철탑을 세우는 로동자의 량심이나 과학자의 량심을 제기하고 해명하는 현실주제의 작품을 쓰는 경우에도 반드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이 위대한 철학적진리를 심오히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만이 우리 문학은 주체사상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을것입니다.

김홍무,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문학이 주체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고리일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본성적요구이며 우리 문학의 본도입니다.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할 때만이 우리 문학의 주체성은 확고히 담보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박호범, 우리 문학창작사 작가들은 주체사상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전통교양, 당정책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주제의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할 결심입니다.

강능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혁명의 주제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여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우리 문학이 사람들의 혁명적 수령관확립에 이바지하자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선차적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진재환,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독창적이며 철학적인 종자를 탐구하고 그것을 형상으로 꽃피우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적 풍격과 인간학적 가치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종렬, 옳습니다. 그와 함께 인간학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여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세계를 감명깊이 그림으로써 위대한 인간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감동적으로 형상하는것입니다.

김세륜, 다부작예술영화 《조선의 별》이 창작됨으로써 정치적 수령으로서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형상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준것은 우리의 주체적 영화예술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부작의 매개부들이 수령의 혁명활동의 중요한 력사적 시기를 체계적으로 보여주어 다부작의 주제적련계를 보장하면서도 매개부들의 독자적 특색을 살림으

로써 수령의 혁명력사와 고매한 풍모를 보여준것은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백하,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의 고매한 풍모를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령의 위대성을 그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에서뿐만아니라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도 동시에 보여주는것은 수령형상작품창작의 원칙적 요구로 된다고 봅니다.

리종렬, 우리 소설가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를 창작하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일정한 성과를 거둔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사상에 예술적 질이 시대의 요구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전반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해외동포운동을 친어버이사랑으로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 소설문학이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수령 형상작품창작에서 주제령력을 넓힐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나는 최덕신부위원장을 여러날 만나 취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의 파란곡절많은 일생의 이야기는 한 개인적 운명의 력사만은 아니였습니다. 정의와 량심과 인간적 의리를 찾아 대담하게 방향전환을 한 그 유명인사의 운명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덕망과 주체사상의 강력한 감화력과 견인력을 보여 주는 감동적인 실례였으며 우리 시대의 사상과 도덕, 량심의 지향과 운동추이를 시사해주는 생동한 사실이였습니다. 이런 인사들의 운명의 력사를 반영한 큰 형식의 작품을 쓴다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부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세련, 우리의 영화예술은 수령형상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형상할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을 형상하는데서 언제나 격식화를 반대하고 소박한 인민적 품성 그대로를 진실하게 보여주는데 형상의

력점을 찍은것입니다. 우리는 력사적 사실에 철저히 기초하면서도 그것을 기록적으로 라렬한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활을 찾고 그것을 파고들어 예술적으로 옹게 전형화한것입니다.

진재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 당, 인민을 하나의 생명체로 결합하는것이 다름아닌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해방후 이야기를 담은 장편소설을 집필중인 나는 해방직후 인민무력건설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과 혁명전사들속에서 맺어지고 있었던 참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김책, 안길, 김일, 최현, 조정철, 류경수 등 혁명전사들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어떠한 관계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인민무력의 탄생을 마련하는가에 대하여 예술적 해답을 주는 좋은 소설을 써볼 결심입니다.

강능수, 주체위업실현을 촉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의 숭고한 사명은 현실이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들을 진실하게 그려내는것을 떠나서 실현될수 없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그 어떤 《홍미》나 《예술적 효과》를 구실로 생활을 주관주의적으로 과장하고 미화분식하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당의 작가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속에 깊이 파고들어가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가 힘차게 벌어지는 현실이 제기하는 절실한 인간문제들을 예리하게 포착 하고 당의 요구와 시대의 지향에 맞게 옹 바른 예술적 해답을 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간해방위업이 빛나게 실현되는 우리의 현실과 휘황한 미래를 열렬히 긍정하고 대중을 힘있게 고무하는데 이바지하는 량만적 형상을 창조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하리라고 봅니다.

본사기자,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 주체의 심원한 진리를 심장깊이 체득하고 그를 창작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것입니다. 주체사상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선 다 볼수 있다

박철

순결함과 뜨거움
인간이 지닐수 있는 아름다움을
여기선 다 볼수 있다

해빛에 검붉게 탄 얼굴
땀과 물탈에 얼룩진 작업복
누구나 그 모습 수수하건만
가슴속엔 보화가 가득하다

어서 빨리 하늘가에
만장을 엮고싶은 그 마음
층수를 세여보며 일손을 다잡는
애어린 처녀의 손아귀에서
팔뚝같은 철근이 휘어든다

따로 없어라 나이의 한계도
희숙한 귀밑머리 모자로 감춘
전시공로자어머니들이
스스로 들어선 지원자대오속에서
후더운 땀으로 적서간다
혼장이 무겁던 가슴들을

어딘가 그 흐름의 끝은
남편이 돌격대로 탄원해온 길
그 길로 안해가 또 달려오고
휴가의 나날 병사가 잡았던 삽을
출장은 그의 아버지가 다시 잡거니

아, 땅이 유서깊고
일터가 성스러워
온 나라의 뜨거운 마음들이
이렇듯 광복거리건설장에
하늘의 별무리처럼 가득한가

이제 그 마음들이
밝은 창문과 은빛지붕이 되어
하늘가에 자랑스레 솟고
이제 그 가슴들이 드넓은 대통로를 열며
온 세상을 부르려니

아, 광복거리건설장은
당을 받들어 당에 바치는
아름다움과 깨끗함
우리 인민의 마음이 꽃피는 대축전장이여라!

나는 당의 전사다

김석래

훈련의 밤
총잡은 가슴속깊이
조용히 그 이름 속삭여보면
지혜의 분수는 터져오르고

땀에 젖어
행군길 다그치는 산정에서
그 이름 다시금 외워보면
새로운 열정이 나를 떠밀어

스스로
그 이름 외워보는 나날
그 누가 보지 않는 전호속의 밤에도
나의 눈빛은 어둠을 몰라라
나의 양심은 위훈을 약속해라

내 때없이
그 이름 속삭여보면

대오앞에서 받은 명령처럼
군기앞에서 다진 선서처럼
한생 걸어갈 삶의 길이
스스로 마음속에 결정된다

당의 전사
값있게 지니여
삶이 빛나고
걸음걸음
영생의 언덕으로 삶을 이어주는
영예로운 칭호여

오,
순간인들 그 영예 잃는다면
흘러온 삶도
흘러갈 삶도
나는 영원한 세월을 다 잃으리

창가의 별들아 알아주렴

문기창

새집들이 창가에 기대여
별들과 속삭이는
행복으로 가득찬 밤

가슴속에
못견디게 사무쳐오는 그리움은
기억속에도 없는
나를 낳은 그 어머니 모습이런가

떠올라라
물려줄 집 한칸 없이
풍랑세찬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손길마저 싸늘히 식어갈 때
찬비 뿌려지던
바다가의 거적집

잊을수 없어라
사랑의 웃음도 철부지의 응석도
모두 잃어버린 나의 앞길에
그렇듯 모진 세월의 굴욕이
고아라는 이름과 함께
애어린 넋을 휘감고있던 지난날이여

고마워라, 고마워라
절망의 어둠속에서
내 손목 이끌어 광명속에 세워주고
따뜻이 품어준 사랑의 그 손길이

가사

아, 그 손길에 이끌려
삶의 밝은 길로
떳떳이 걸어온 자욱자욱마다
어머니로 새겨진 정다운 모습

해빛밝은 학원침실
포근한 잠자리에서 깨어나면
새옷도 머리맡에 개여놓고
자신도 모르는 아픔을 두고
그 누구보다 큰 마음 기울여
시름도 없이 그늘도 없이
나의 한생을 이끌어주는 그 품에 안겨
내 나서 처음으로 부르고 부른
당이여, 내 운명의 어머니시여

아, 밤은 깊어가고
따사로운 사랑은 넘치여
가슴 가득 차오르는 고마움
창가의 별들아
너희들도 아느냐

이 땅 막바지기슥에서
사랑의 하늘가에 올라
보답할 마음만을 다잡으며
뜨거움에 목메이는 이내 진정을
너희들은 정녕 아는지

병사의 고향길

김례성

어머니 마중나올 병사의 고향길
못잊어 마음속에 걷고 걷는 길이여
깊은 밤 행군길에 그 길을 생각하면
위훈을 약속하는 걸음은 활기롭네
아, 고향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깊은 이웃들의 눈빛도 따라서고
다정한 동창들은 한밤에도 찾아들리
나서자란 고향 뛰놀던 들길이건만

병사는 고향길 쉬이 걷지 않으리
아, 그대들앞에 자랑이 없인

언제나 조국앞에 떳떳치 못하다면
영원히 밟지 못할 병사의 고향길
준엄한 그 시절에 한목숨 바치여도
값높은 삶을 안고 찾아올 길이여
아, 조국의 기억속에 남아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 예술화 실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 지침

리봉진

오늘 우리 인민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첫째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고 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 자》** 발표 5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1982년 11월 15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이 보다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몸소 전국문학 통신원일성자회의를 마련하시고 회의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주셨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문학예술앞에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당 제6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문학예술로서의 위용을 더욱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켜야 할 력사적 과제가 전면에서 나서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통찰에 기초하시여 우리 문학예술앞에 나선 이 어려운 과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열쇠를 바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찾으시고 그 성과적 수행을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로 하여금 명실공히 인민적인 참다운 문학예술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할수 있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승고한 사명과 역할을 다 하자면 반드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한다는것은 로동자, 농민, 병사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문학예술활동에 널리 참가시켜 대중적인 지혜와 힘으로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학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한다는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문학예술활동에 널리 참가시켜 그들의 지혜와

힘으로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킬뿐아니라 인민대중이 문학예술을 마음껏 보고 즐길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학예술의 참다운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광범한 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을 널리 인입하여 그들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문학예술을 발전시켜야 문학예술이 빨리 발전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생동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해낼수 있다. 인민대중이야말로 참으로 무궁무진한 예술적 지혜와 창조적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창조적 능력이 자연발생적으로 높이 발전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지니고있는 무궁무진한 예술적 힘과 창조적 능력을 높이 발양시키자면 그들을 어떻게 발동시키겠는가 하는 과학적인 지도사상과 확고한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을 때 인민대중의 지혜와 재능의 발양에 대하여 운운하는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며 하나의 빈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을 문학예술창조사업에 어떻게 인입하여 문학예술을 어떤 토대 위에서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로 된다. 인민대중이 문학예술의 참다운 창조자, 진정한 향유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오로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완벽한 해명을 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자기의 사회적 본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뿐아니라 문학예술도 창조한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 지혜에 의거하여 건설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예술 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혜에 의거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문학예술을 대중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문제정책은 바로 문학예술분야에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것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철두철미 광범한 군중에게 의거하고 군중의 창조적 열의가 발동되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된것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당의 힘있는 무기로, 근로자들의 참다운 길동무로 되고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헌에서 또한 온

나라를 예술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
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지적하시였다.

**《온 나라의 예술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문
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고 누구나 다 글도
짓고 그림도 그리며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악기도 다루고 춤도 출줄 알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민모두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춤
도 출줄 알게 하여 일터와 가정, 나아가서 온 나
라가 문학예술의 참다운 창조자로, 진정한 향유
자로 만들것을 본질적 요구로 삼고있는 온 나라
예술화의 방침이야말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시기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도달하여야 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
학예술건설의 위대한 강령이다. 사회주의, 공산주
의 문학예술은 어디까지나 당의 령도밑에 광범한
인민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 빨리 발전할수 있
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민족문화건설을 대중적 기반우에서 발전시키
기 위한 투쟁에 선차적 주목을 돌리며 거기에 힘
을 넣게 된다. 그래야 광범한 인민대중이 널리
참가하게 되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적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양하게 된다. 그러나 문학
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사업의 낮은 단계에서는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문학예술창조와 그 향유에서 아직은 주인으로서
의 지위와 역할이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
다. 온 나라 예술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게 될뿐아니라 광범한 인
민대중모두가 문학예술창조와 그 향유에서 주인
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것
을 지향하고있다. 그러므로 온 나라의 예술화는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사업의 높은 목표로
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온 나라를 예술화할데
대한 방침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 온 나라 예술
화가 실현되면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높은 사상의식과 문화적 소양, 예
술적 자질을 소유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
의적 인간으로 튼튼히 준비될것이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려는 근본목적이 여기
에 있다. 따라서 온 나라 예술화방침의 실현과정
은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방침의 본질적 요구를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며 온 나라 예술
화의 종국적 실현은 우리 당이 공산주의문학예술
건설에서 이룩하려는 높은 목표의 성과적 실현으
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온 나라를 예술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의 독창
성은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
서 문학예술의 대중화가 어떻게 심화발전되고 어
떠한 로정을 거쳐 완수되는가 하는 사회주의, 공
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그 혁명적 로정을 과학적

으로 밝혀주는 위대한 지도적 지침이라는데 있
다.

참으로 온 나라의 예술화를 통하여 공산주의문
학예술이 종국적으로 실현된다는 사상과 리론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해서 력사상 처음으로
완벽하게 밝혀지게 됨으로써 세계 혁명적 인민들
은 아무런 편향없이 공산주의문학예술의 높은 령
마루에로 치달아오를수 있는 위대한 지도적 지침
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예리론발전에서
하나의 획기적 사변으로 되는 동시에 공산주의문
학예술건설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전환점으
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온 나라
예술화의 본질적 요구를 밝히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에서 문학통신원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실
천 방도에 대해서도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문학
예술활동에 널리 참가시켜 이르는곳마다에서 대
중적인 문학예술활동이 활발히 벌어져야 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것은 문학통신원들의 지위
와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문
학통신원들은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고 온 나
라를 예술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선
구자이며 주체적 문학예술건설의 믿음직한 후
비대들이다.

문학통신원들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어떻게 보
며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예술적 재능을 어떻게
발양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바라던 근본문제
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주의, 공산주
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문학예술소조원들의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는 매우 일반적인 의의만 강조되었지 그 누구도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차
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해서 비로소
완벽하게 해명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께서는 문학통신원들이 지니고있는 군중문학예술
발전의 거대한 잠재력과 무한대한 견인력에 대
한 과학적 통찰에 기초하시여 그들이야말로 문학
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 예술화방침의 기치
를 들고나가야 할 선구자이며 공산주의문학예
술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라고 규정하시였다. 문
학통신원들의 지위와 역할 문제가 과학적으로 밝
혀짐으로써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 예
술화의 위엄실현에서의 선구자에 관한 과학적 해
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문학
통신원들과 문학소조원들의 스스로의 자각적인
열성과 애국적인 활동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진행
되고있던 군중문학창작사업이 보다 목적의식적으
로 조직화할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것

은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사업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는 동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성과적 발전을 촉진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 예술화 위업 실현에서 문학통신원들과 예술소조원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 해명은 오직 우리 문학예술의 새싹, 신진력량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한없는 은정과 사랑, 크나큰 믿음과 배려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모든 문학통신원들과 예술소조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돌려주신 이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여 온 나라를 예술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헌에서 모든 문학통신원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수행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문학통신원들이 무엇보다도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높이지 않고서는 당정책적 요구들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없으며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변들의 본질과 의의를 옳게 형상해낼 수 없다. 문학작품에 그려지는 모든 현상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다 창작가의 사상과 미학적 리상에 의하여 분석평가되고 일반화된 것들이다. 사회적으로 의의있고 진실한 문제를 체현하고있는 종자도 새로운 사상미학적 문제성도 그리고 작품의 모든 형상요소들도 다 창작가의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의 결과이며 그 예술적 반영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높이는 것은 문학통신원들이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원칙적 요구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실현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할 수 있게 하는 출발적 전제이며 그 성과적 수행을 위한 담보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헌에서 문학통신원들은 정치적 식견과 함께 예술적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었다.

인간과 생활을 형상적 형식으로 그리는데는 문학인것만큼 창작에서는 언제나 우리 시대 인간과 생활을 현실 그대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높은 형상성으로 그려내지 못한다면 참다운 문학작품으로 될 수 없다. 형상성이 곧 문학의 생명으로 되는 리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높은 형상성이야말로 문학을 명실공히 문학으로

되게 하는 고유한 법칙성으로 된다. 그런데 형상의 이 법칙성이 바로 창작가의 예술적 기량에 의하여 담보된다. 그러므로 창작가에게 있어서 예술적기량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모든 문학통신원들은 인간과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 높은 예술적 기량을 키우는 사업에 모든 노력과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 문학통신원들이 형상의 기량을 높이는데 선차적 관심을 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타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군중문학예술을 공산주의인간학의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절박한 현실적 요구로 나서는 것과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인간과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자기 식으로 그리는 옳바른 창작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밝히시었다.

인간과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자기 식으로 형상하는 옳바른 창작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은 창작사업에서 남이 한것을 모방하거나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 것을 말한다. 문학예술창조사업은 말 그대로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사업이다. 인간과 생활이 다양한 것만큼 그것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작품도 다양하여야 하며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고유한 자기 본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그것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작품도 구체적이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문학작품을 읽을 맛이 있고 예술작품은 볼재미가 있다. 문학예술창작사업이 언제나 창발적이고 독창적으로 되어야 할 리유와 근거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창작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는데 있는 것이지 이미 나온 기성작품의 모방이나 형상의 반복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방과 반복은 창조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창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창작사업에서 류사성과 모방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엄격히 경계하여야 한다. 모든 문학통신원들은 군중문학창작사업에서 자기 고유한 얼굴과 목소리를 들고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인간과 생활을 어디까지나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파악하여야 하며 그것을 일반화하는데서 옳바른 창작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군중문학창작사업에서 개성적 특성을 발양하기 위한 옳바른 길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헌에서 문학통신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생산활동에서 유리되지 않고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는 사정과 문학예술발전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위치를 깊이 헤아리시어 군중문학창작사업에서 성과의 비결은 오직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에 대한 자각, 높은 리상과 불타는 열정에 있다고 밝히시었다.

그러므로 모든 문학통신원들은 간고하고도 준엄했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낸 항일혁명투사들의 백

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야 하며 또한 완강한 의지와 쉬임없는 노력, 피타는 탐구와 불타는 열정으로 창조의 새 세계, 새 경지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창작가의 기쁨과 희열은 완강한 노력과 피타는 탐구에 의해서만 이룩하는것이기에 것처럼 보람찬것이며 영예로운것이다. 문학통신원들과 문학소조원들은 자기의 본신헌명임무인 생산활동에 참가하면서도 문학예술을 창조해내야 하는것만큼 그야말로 완강한 의지와 창조적 열정의 소유자, 숨은 노력가여야 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계서는 문헌에서 이밖에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중문학창작사업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고 그 수형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도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음으로써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 예술화의 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힘있는 리론실천적 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계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 예술화 실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 아니라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로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

참으로 지난 5년간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는 실로 커다란 성과와 전진이 이룩되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 관철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사업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벌어지고있다는것이다. 그것은 전체 인민이 문학예술을 마음껏 보고 즐기는 향유자로서의 수준은 더 말할것도 없고 노동자, 농민, 병사를 비롯한 광범한 군중속에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창조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비할바없이 높아가고 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사업이 높은 수준에 오른것은 또한 이 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주인인 문학통신원대렬이 질, 량적으로 급격히 장성함으로써 우리의 군중문학예술의 대중적 기반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된데서 나타나고있다.

지난 5년간 수많은 문학애호가들이 문학통신원대렬에 들어왔을뿐아니라 또한 수많은 문학통신원들이 작가대렬에 들어오게 되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는 또한 문학통신원들과 근로자들에 의하여 창작되는 군중문학작품들의 사상예술적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군중문학작품들이 이룩한 사상예술적 성과는 《6월4일문학상》 계관작품들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제정하여주신

《6월4일문학상》은 해마다 가장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한 문학통신원들에게 수여하는 최고 표창이며 그들만이 누릴수 있는 영예이며 특전이다. 지난 5년간 수십편의 군중문학작품들이 《6월4일문학상》을 수여받았다.

서정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주옥양), 중편소설 《첫 교원》(송병준), 단편소설 《취재길에서 만난 녀인》(김귀선), 동화 《노루의 금방울》(민길웅)등 여러 작품들이 그러하다. 그가운데서도 금년에 《6월4일문학상》을 수여받은 단편소설 《땅과 말하는 처녀》와 서정서사시 《호수가에 해당화 피네》를 보기로 하자. 단편소설 《땅과 말하는 처녀》(변우순)는 주체농법을 관철하는 길에서 명예와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 부침땅을 황폐화시키는것도 역시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과 다를바 없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한 처녀작업반장의 형상을 통하여 제기하고 해결하고있다. 작품의 전반적인 형상수준도 매우 높고 생동하며

구성도 새롭고 흥미있게 읽히우는 우수한 작품이다. 서정서사시 《호수가에 해당화 피네》(김정란) 역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이다.

작품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한 양식공처녀의 소박한 꿈을 헤아려보시고 활짝 꽃피워주시는 내용을 시적 소재로 한 서정서사시로서 서정이 풍만하고 섬세하며 세련된 시어로 시적 형상을 높은 수준에서 무르익한 좋은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군중문학작품으로서의 생산성과 소박성, 품만성과 진실성으로 특징적일뿐아니라 그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나 예술적 형상에 있어서 높은 경지와 능숙한 솜씨를 보여주고있는 작품들이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군중문학이 도달하고있는 오늘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는 리정표로 된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는 또한 군중문학사업에 대한 지도체계가 확립되고 문학통신원들에 대한 지도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더 높은 수준에

로 심화발전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참으로 지난 5년간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와 경험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문헌에서 밝히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과 진리성, 그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지난 5년간 우리 군중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의 빛나는 로정우에 아로새겨진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 작가들과 문학통신원들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임무로 된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과 문학부문 일군들 그리고 문학통신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 예술화의 위업 실현에서 자기의 모든 재능과 정열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당의 높은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할것이다.

그 이름 빛나라! 김일성광장

리석

얼마전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새롭고 무게있게 꾸려진 **김일성**광장을 찾았다.

대동강 기슭에 거연히 솟은 주체사상탑과 남산재에 추녀를 활짝 펼친 인민대학습당을 배경으로 하여 그 이름 더더욱 눈부시게 빛나는 **김일성**광장!

우리는 절로 승엄해지는 마음을 안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얼마나 많은 격동적인 사변들과 시대의 뜨거운 숨결이 성스런 이 광장에 깃들어있는것인가.

세계의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의 오만 한 코대를 여지없이 꺾어놓고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우리 인민의 존엄있는 함성이 누리를 떨치던 이 광장.

주석단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러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환호성을 터치며 대하처럼 흐르던 일심단결의 대오, 충성의 대오...

지축을 울리던 그날의 발구름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어 우리는 경건하게 발걸음을 옮기었다.

그런데 저쪽 대동강대계단에서 또 한사람이 고개를 수긋한채 거닐고있는것이 아닌가. 그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우리는 반색하여 그한테로 갔다.

평양시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장동무였다.

《만나러 가던참인데 마침 잘되었습니다. 부위원장장동무가 광장공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맡아 지휘하였는지요?》

우리가 찾아온 목적을 알게 된 그는 즐겁게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 오전에 벌써 세차레나 겪었습니다. 기사동무들의 <성화>에 어디 견딜수 있어야지요.》

이렇게 말머리를 뻗 그는 우리에게 **김일성**광장에 깃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령도에 대하여 긍지높이 말하였다.

...은 나라가 조국해방 40돐을 맞으며 충성의

열정으로 들끓던 1985년 3월말이었다.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사와 관련한 수많은 직관물들과 모형들을 하나하나 보아 주시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행사가 진행될 광장을 향한채 한동안 깊은 사색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확신에 찬 음성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광장을 돌로 잘 포장하여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광장으로 꾸릴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일군들은 뜨거운 걱정이 북받쳐 눈시울을 습벽이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공화국창건 30돐이 되는 1978년 9월 9일의 이른 아침이 가슴을 뭉클하게 적시며 떠올랐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시 근로자들의 100만 군중시위를 진행하게 될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준비정형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친히 현지에 나오시였었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을세라 구석구석을 세세히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김일성**광장 주석단은 전승의 그날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리러모시고 우리 인민들이 열광적인 환호성을 온 세상에 터쳐 올리면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 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시위하여 온 더없이 귀중한곳이라고 뜻깊게 회고하시었다.

계속하시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시를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도시로 건설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가 수도건설에서 기본으로 내세운 문제는 평양을 인민의 수도로 꾸리시려는 수령님의 구상과 수령님을 높이 모신 수도로 꾸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가장 빛나게 실현하는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가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이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일군들은 자기들이 그이께서 바라시는데로 일을 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그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양시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어 **김일성** 광장을 잘 꾸릴데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렇지만 일군들은 몇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이께서는 조국해방 40돐경축행사 준비정형을 료해하시다가 일군들에게 평양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김일성** 광장을 포장할만한 돌은 얼마든지 얻어낼수 있다고 하시며 앞으로 **김일성** 광장에는 돌을 규모있게 다듬어 잘 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던것이다.

일군들은 환성이라도 올리고싶은 심정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여러차례 광장을 꾸리였으나 그때마다 콩크리트포장을 했을뿐 그 누구도 광장을 수수천년 세월의 풍상속에서도 끄떡하지 않을 천연화강석으로 포장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었다.

일군들은 빛나는 예지로 것처럼 완벽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우러르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신심에 넘쳐 대답을 드리였다.

그때로부터 몇달이 지난 어느날 해방탑 개축공사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모란봉에 오르시어 웅장화려한 평양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멋있는가고, 마치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평양시 책임일군들에게 **김일성** 광장을 돌로 잘 포장할데 대하여 또다시 간곡한 말씀을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앞광장과 뒤광장에는 판석을 깔고 주석단앞통로는 한 100미터너비로 옷표면적이 작고 뿌리가 긴돌로 포장하여놓으면 열병식을 할 때 땅크가 지나가도 일없을것이라고 하시며 평양시에서 당창건 40돐행사가 끝나면 **김일성** 광장 돌포장공사를 본격적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공사에 쓸 돌의 원천지까지 손수 선정해주시면서 크게 문제될것이 없을거라고 일군들

에게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서도 마음놓이지지 않으시여 며칠이 지난후 또다시 광장돌포장을 위한 설계도면을 보내주시면서 공사의 규모와 방향, 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겨울에 한두개도 아닌 수십만개의 돌을 가공하여 포장하는 문제가 어려운 공사라는것을 예견하시여 공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경험있는 부대로 건설력량을 무어주시였으며 건설자들에게 솜옷과 식료품까지 보내주시는 등 공사에서 나서는 세부적인 문제까지 은정깊은 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건설자들은 물론 수도시민모두가 광장을 잘 꾸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20여만개의 포석과 판석을 가공하여 돌포장공사의 돌과 구를 힘있게 열어놓았다.

그리하여 공사를 시작한지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겨울철에는 불가능하다던 앞광장돌포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끝내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해빛도 유난히 따사로운 1986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광장에 나오시였다.

주체사상탑 분수가에서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펼쳐지고 대동강유보도의 실버들가지들이 이날 따라 더없이 설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돌포장한 앞광장에 서시여 주석단앞으로 수십개의 진달래꽃송이를 새겨넣은 돌화분들이며 사철 푸르싱싱한 나무들과 눈부시게 새하얀 천연화강석, 우아한 대리석으로 바둑판같이 장식을 한것 등을 차례로 보시고나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만족을 드리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날 더없이 기뻐하시며 평양시 일군들과 시민들이 **김일성** 광장을 만년대계로 잘 포장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세상에 평가면 이보다 더 큰 평가가 어디에 있으랴!...

우리는 그날의 감격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뇌이는 부위원장동무를 따라 평양지하상점으로 발

걸음을 옮겼다.

부위원장은 **김일성**광장 뒤광장에 어떻게 되어
이렇듯 훌륭한 지하상점이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1986년 이른 봄날이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씨리카트살림집형
성도안을 보시면서 지금 평양시에서 **김일성**광장
돌포장공사를 하고있는데 이왕이면 그밑에 지하
상점을 건설하면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뒤광장
에 지하상점을 지어놓으면 광장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리용할것이라고 은정깊게 말씀하
시면서 뒤광장제방에는 대동강 기슭까지 밋밋하
게 계단을 만들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일꾼들이 설
계에 지하상점입구 4개를 예견한것을 보시고 대
동강 안쪽에 있는 2개의 입구계단을 없애고 그대
신 지하상점안으로 통하는 지하도로를 만들어 사
람들은 물론 승용차와 화물자동차가 짐을 싣고
드나들수 있게 하며 상점천정높이를 시원하게 더
높이도록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건설정형을 알아보고 공기환기와 배수장치를
비롯한 지하상점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
로 보장해주시었고 매대형성과 상품보장 등 지하
상점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었다.

이렇듯 위대한 향도의 손길아래 **김일성**광장 뒤
광장밑에는 대낮같이 밝고 언제나 맑은 공기가
차넘치는 대규모의 현대적 지하상점이 손색없이
일떠섰다.

봄빛이 완전한 어느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완공된 평양지하상
점을 찾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하상점을 돌아보시면서
당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웅장화려하
게 건설된 이 상점이 아주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
하시었다.

우리는 부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상점안으로
들어갔다.

현란한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한 상점안, 상품
진열을 품격에 맞게 해놓은 갖가지 매대들...

상점에서 우리와 만난 안내원동무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하상점매대를 각 도별로 특색

있게 꾸리도록 하시고 특히 평양시 매대에서는
구역별로 경쟁적으로 상품을 확보할데 대하여 가
르치시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보니 모든 매대는 그야말로 특색있게 꾸
려져있었다.

매대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은 이름할수 없는 감
정에 휩싸여 오래동안 발걸음을 멈추곤했다. 그
럴 때면 가슴을 치며 안겨오는 당의 은정깊은 사
랑에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지하상점까지 돌아보고난 우리는 대동강쪽에
형성된 대계단에 올라섰다.

천연화강석을 다듬고다듬어 세운 시원한 대계
단에 올라서니 **김일성**광장의 모습이 참으로 무게
있게 한가슴에 안겨왔다.

불어오는 미풍이 다심한 어머니의 입김인양 두
볼을 어루만진다.

이랑이랑 밀려오고 밀려오는 잔물결들이 하얗
게 다듬어 세운 돌층계에 부딪쳐 천구슬만구슬
뿌린다.

아, 천만심장의 무게로 다져지고다져진 이 광
장으로 얼마나 많은 력사의 대오가 흘러갔는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
러 열광적인 환호를 터치던 인민들의 철석같은
신념이 어린 모습과 주석단에서 향도의 손을 높
이 드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
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하고도 거
룩한 영상!

정녕 이 광장이야말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서 마련해주신 주체조선의 무궁변영을 상징하는
시대의 기념비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걱정은 솟구쳐 시상이 저절로 떠올랐
다.

나라들마다

사람들의 추억을 불러내는

광장은 그 어디나 있어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힘을 시위한 광장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아! 그 이름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빛나라

김일성광장이여!

사로청휘장

인훈

앞가슴에 빗내이다
나이들어 속절없이 떼어놓는다면
사로청휘장이여
너는 덧없이 번쩍이는
장식품이 되고말리

조국이 부르는 새 건설장으로
청춘들이 떠날 때
불밝은 도시로 걸음을 옮기며
그대 그늘비낀 눈동자가
휘장에 비낀적은 없는가

앞가슴에 빛나는 휘장은
순간마다 속삭인다
너는 청춘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당이 그 휘장을 줄때
꽃향기에만 묻히라고
부드러운 햇빛만이 어루만지라고
우리에게 준것이 아니다

당이 부른 여기 건설장
질척이는 흙짐을 등에 지고
물웅덩이를 가로지르던 비탈속에서
사태에 무너지는 차굴앞에 가슴을 내대며
온 대오가 높이 추켜들던 횃불아래서
우리의 심장우에 빛나던 휘장

비바람에 색은 바래도
조국에 바치는 숨결이 스미고
뜨거운 심장의 맥박과 이어져
정녕 그 휘장은 빛나는것 아닌가

오, 청춘들이여 값있게 살자
앞가슴에 빛날 때는
그 휘장이 위훈으로 무겁도록
당대오에 들어서며
그 휘장을 땀 때는
후회없는 청춘시절과 함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도록

충성의 열매

손광주

자꾸만 생각나라
이제는 먼 나날이 흘렀어도
그 무슨 성과를 놓고
흐뭇해지는 이 가슴에
문득 떠오르는 하나의 모습

10여년을 하루같이 가꾸어온 씨앗
고르고골라 마련한 선물앞에
깊은 생각 잠겼던 그 연구사
아직은 미흡한점이 있다고
미루어가던 그 목소리

얼마나 사연많은 그날의 종자더냐
아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선물로
하나같이 여문 새 종자

그것으로 하여 눈물도 흘리고
그것으로 하여 기쁨도 있어선가
청춘도 희망도 사랑도
그모두 바치었던 그날의 연구사여

잃어버린 한알의 종자로 밤을 새울 때

포전에 스며들던 소중한 땀방울
지치여 쓰러져서도
너만은 부디 가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의 보고를 올려달라던 그 속삭임

그렇게 좋은 시절 다 보내고도
그렇게 미룬 그 한순간이
천년이 될수도 있음을 몰라서였던가
기약할수 없는 한생에 이어진 그 목소리

아, 내 무슨 일을 하여도
무슨 일감을 받을 때도
불현듯 찾아오는 그날의 목소리여
내 한생에 끊임없을 속삭임으로
이 가슴에 울려오누나
진정이란 무엇인가고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고

아, 그날의 그 씨앗은
내 가슴속에도 심어졌어라
세월이 가도 누구나의 가슴속에
참된 삶의 꽃 피워주며

대중의 의식화문제를 새로운 극적 양상으로 깊이있게 밝혀준 불멸의 명작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에 대하여-

강진

(1)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성황당》식 연극으로 오늘의 무대에 옮긴 작품이다. 이 명작이 처음 창작공연된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반세기도 훨씬 넘은 오늘에 와서도 사람들에게 깊은 극적 감흥을 안겨주는것은 원작의 심오한 종자에 기초하여 지식은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이며 아는것이 힘이라는 사상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주고 있기때문이다.

지난 시기에도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우매한 탓으로 남의 룡락물로 되는 이야기를 담거나 수박겉핥기로 배운 교조적 지식이 우환거리로 된것을 밝힌 극작품들이 없지 않았다. 흔히 이러한 작품들은 무식한 인간들의 몽매성을 풍자야유하거나 문맹퇴치의 절박성과 《식자우환》을 깨우쳐주는 계통적 주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단순히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주는데 머물지 않고 대중계몽의 주제를 대중의 의식화문제에까지 승화시켜 배워야 자주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남녀로소 할것없이 누구나 배우지 않아 무식하면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없으며 남의 웃음거리로 된다는 진리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자주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개척해나갈 때만이 빛내일수 있다. 그러나 힘은 세상만물의 리치를 터득하고 그것을 생활에서 실천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도록 배우고 또 배워야만 생겨나게 된다. 다시말하여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는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식화과정을 촉진할때만이 이룩되고 그것은 인류문명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전 당이 학습하자!》라는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남녀로소 할것없이 누구나 학습을 습성화할것을 가장 중요한 생활상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이로부터 명작은 처음 창작공연된 당대의 사회에서뿐만아니라 현시대의 요구에도 맞는 현대성을 투철히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오늘날도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이러한 배움의 진리를 그 어떤 요란한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범하면서도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생활적으로 극명하게 천명하고있는데 그 사상에술적 특성이 있다.

이른봄날에 남편을 찾아서 복간도로 간 외동딸이 단풍든 가을에도 소식이 없어 삼치골의 허달수내외가 딸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연극의 막은 열린다. 극이 시작되자 첫 장면에서 딸에게서 온 편지는 도착하였지만 주인공내외는 그것도 모르고 딸의 소식을 안타까이 기다리지만 하다가 마침내 복간도에까지 딸을 찾아 떠나려고 하는데 편지가 이미 와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배우지 않아서 글을 모르는 허달수내외는 그 편지를 읽지 못하여 글동냥을 다니던 끝에 불길한 소식인줄 오해하고 울음판을 벌려놓다가 마감에 가서야 그것이 기쁜 소식인것을 알고 웃음속에서 배움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처럼 작품에는 1920년대 우리 나라 농촌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가장 친숙하고도 평범한 이야기가 생활적으로 펼쳐지고있을뿐 그 어떤 류다른 이야기를 찾아볼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사롭고도 간단한 이야기속에서 그토록 뜻깊은 생활의 진리를 극적으로 심오하게 밝힐수 있게 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속에서 극의 씨앗을 똑바로 찾아내고 그것을 등장인물들의 참신한 성격의 극으로 꽃피워 그로부터 훌륭한 사상적 열매를 거둘수 있도록 끊임없이 심화시키는 형상원리를 옹계 구현한데 있다.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새것과 낡은것의 대립과 투쟁으로 특징지어지는 극은 각이한 성격을 가진 인간들의 호상관계속에서 빚어지는것이다. 따라서 그 성격들이 호상 작용하는 과정에 발현되는 인간들의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탐구하면 비록 평범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도 심오한 사상을 구현할수 있다. 왜냐하면 극속에 구현되는 사상의 심오성은 사건의 크기와 심각성에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극적 관계를 맺고있는

인간성격의 심오성에 달려있기때문이다.

이러한 형상원리에 따라 이 작품은 단순히 딸에게서 온 기쁜 소식을 슬픈 소식으로 착각하고 울며 돌아가는 희극적 형상을 흥미본위적으로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각이한 성격을 가진 인물들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극을 심화시킨 결과에 배우의 진리를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었다. 작품은 우선 딸에게서 온 편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희극적 정황들이 단순한 오해와 착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물들의 성격적 바탕을 이루고있는 각이한 인생관에 따라 이야기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야학선생이 허달수네 집에 찾아온 첫 장면에서부터 생활적으로 제시되고있다.

야학선생은 여기서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땅에 기차가 달리는 개명한 시대에 글을 배우지 않고서는 진짜 사람구실을 할수 없다고 깨우쳐주는데 투전바람이 난 동생 허달천은 지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글은 한자 몰라도 당장 사람구실을 할수 있다고 하는것이다. 이것을 다 부정해나서는 주인공 허달수는 돈이나 글은 사람을 만들지 못하지만 일이 사람을 만든다고 고집하면서 농사군은 연필콩다리를 쥐고 글공부를 할것이 아니라 호미를 쥐고 농사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력설한다. 그는 글이란 예로부터 량반들이 과거급제해서 벼슬살이 하자고 배우는것이지 일하는 농사군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글때문에 자기네 사위처럼 화를 입고 쿡밥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고 위구조차 표명한다. 그뿐만아니라 그는 글을 몰라도 흥법도처럼 나라 위한 싸움에도 나설수 있고 세상물정도 다 알수 있다고 자처하면서 세상리치를 배우고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나한테 보내라고 장담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인생관에 바탕을 둔 성격의 소유자이기에 그는 글을 모르는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으며 글공부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자신의 무식때문에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존엄과 가치가 얼마나 유린당하고있는가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한데로부터 형성된 성격적 특질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인공의 이러한 성격적 특질은 삼치골 지주이며 구장인 윤주사놈과의 갈등속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있다. 농민들을 우매화하여 속이고 착취하는데 이골이 난 윤지주놈은 농민들을 각성시키는 야학을 없애버리려고 일제경찰과 결탁하여 로자돈을 꾸러온 허달수로인을 속여 그의 조카딸을 빚대신에 부엌데기로 끌어들이는 《계약서》에 지장을 찍게 한다. 지주놈의 이러한 교활성에 자기만은 속히우지 않는다고 장담하며 피를 써오던 달수도 끝내 그놈에게 룡락당하고말것이다. 이처럼 그는 속기도 빠르고 착취자를 미워할줄도 알며 제손으로 농사지어 살아가는 근로정신과 선량한 성품도 지닌 인물인데 어찌하여 사람구실

을 변변히 하지 못하게 되는것인가.

그것은 배우지 못한탓으로 한생을 착취자들에게 억눌려 살아오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타고난 《팔자》로 여기고 제힘으로 그것을 타개해나갈 확고한 자주적식과 계급의식을 갖지 못한데 기인된다. 그의 동생 달천이 역시 바로 그때문에 숙명의 노예가 되어 요행수만 바라고 투전판에 다니며 이웃집 파부 부실이도 제주전을 못가지고 남의 풍에 놀게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작품은 아무리 계급적처지와 인간적 품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무식하여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적 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착취계급과 낯은 생활인습의 노예로밖에 될수 없다는것을 인물들의 생동한 극적 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다.

원래 희극적 양상을 가진 극작품에서는 인간의 사상감정에서의 자체모순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고와 행동의 불일치, 의도와 결과간의 차이에서 다양한 웃음을 환기시키는 희극적 성격과 희극적 정황에 기초해서만 깊이있는 사상을 구현할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교묘하게 꾸며진 오해와 착각에 의하여 희극적인 이야기를 엮어놓는다하여도 거기서는 값높은 희극성과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없다.

혁명연극에서 주인공 허달수가 체현하고있는 희극성도 단순한 오해와 착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락후한 인생관에 바탕을 둔 성격적 본질에서 흘러나왔기에 그토록 깊은 사상과 심각한 교훈을 안겨주고있는것이다. 그것은 무식해서 편지 한장 읽지 못하면서도 세상물정을 혼자 다 아는것처럼 자처하는 《자기 과신》과 글 한자 몰라서 지주놈한테 속아넘어가는 주제에 귀신은 속여도 난 못속인다고 우쭐대는 《자고자대증》에서 표현되고있으며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조차 똑똑히 모르면서도 아는체하는 《체병》과 눈뜨고도 못보는 주제에 눈먼 소경을 《동정》하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또한 조카딸이 자기의 눈치를 보며 야학에 못가서 안타까와하는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 타일러서 야학에 빠진다고 《인식착오》하는데서와 야학선생의 충고로 개준된 동생도 자기가 뜨끔히 잘 다스려서 사람구실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주관주의》에서도 잘 표현되고있다.

주인공의 이러한 희극적 성격은 글공부에 대한 자기류의 확고한 주관적 견해와 무식이 자아내는 실책의 련속으로 조성되는 희극적 정황속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으며 그 과정에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가 깊이있게 밝혀지고있다. 바로 여기에 사건위주의 극이 도저히 따를수 없고 성격의 극만이 나타낼수 있는 형상적 위력이 있는것이다.

단적으로 야학과는 담을 쌓고있던 주인공 달수 형제가 야학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만 보아도 그 어떤 사건적인 계기에서 오해와 착각이 풀리는것으로 단순화되고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낯은 인

생관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생활계기들에 의하여 성격의 근본적인 개변이 이룩되는 과정으로 형상되고있다. 그것이 투전바람이 난 달천의 경우에는 형수의 로자돈을 투전판에서 잃어버린 생활계기를 통하여 마련되고있으며 달수의 경우에는 딸에게서 온 편지사연을 해독하지 못하여 안타까이 글동냥다니는 과정에 겪게 되는 가지가지 뼈저린 생활체험을 거쳐서야 이룩되고있는것이다. 여기에 야학선생의 사상정신적 작용이 정극적인 생활선을 타고 줄기차게 미치게 됨으로써 이들의 성격발전이 더욱 촉진되고 작품의 사상 또한 더욱 형상적으로 심화되고있다. 이렇듯 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를 깊이있게 천명하고 있는데 이 명작의 사상예술적 특성이 있는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나 다 자기 성격과 생활의 논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저마다 작품의 사상을 생활적으로 밝히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여기서 야학선생의 성격형상은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그는 농민들을 계몽하고 의식화하는 혁명가로서 무의식군중이 글을 배워서 생활의 진리를 깨닫고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도록 각성시켜가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어떤 어려운 말로써 사상을 개념적으로 주입시키지 않고 농민들의 성격과 준비정도에 알맞게 극히 생활적인 말로 그들을 점차 의식화해가고있다. 그는 먹은 소가 힘을 쓰는데 비유해서 글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며 농사일에 비기면서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라면 학업은 인생지대본이라고 설득력있게 일깨워준 다음에야 사람은 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애국심이 생기고 원수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게 된다는 생활의 진리를 밝히고있다. 이처럼 인물성격과 생활발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참신한 세부 형상과 뜻깊은 대사조직으로 생활의 본질을 진지하게 추구하고있는데 이 명작의 또하나의 형상적 특성이 있다.

그것은 길거리에서 글동냥 나갔다가 실망하여 돌아오는 주인공과 풍채좋은 소경을 대조시킨 장면의 웅심깊은 형상이 잘 말해주고있다. 그는 앞 못보는 소경인줄 모르고 편지를 읽어달라고 했다가 더 큰 실망에 빠져있으면서도 오히려 소경을 동정해나선다.

...

달수: (동정어린 어조로)음 아깝다. 신수가 멀쩡한 사람이 앞을 못보는군. 쫓쫓...

조씨: 아이구, 쪽박든 거지가 자루든 거지를 나무람한다더니...

달수: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조씨: 눈뜨고도 못보는 주제에 눈먼 소경을 동정하니말이웨다.

...

이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의미심장한 형상화폭인가.

눈뜨고도 못보는 주인공과 눈먼 소경의 형상적 대조!-여기에 바로 작품의 예술적 표상이 집중되어있으며 눈뜨고도 못보는 《소경》이 눈먼 소경을 동정하는 여기에 또한 주인공의 성격적 본질이 집약되어있는것이다. 물론 소경은 삼화적인 인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눈먼 소경은 눈뜬 소경을 비쳐보이는 반사경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도 주인공은 그 반사경에 비친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 실로 그저 웃고만 지낼수 없는 희극적 존재이다. 그의 머리속엔 오직 딸의 편지를 읽어줄 귀인을 만날 한가지 생각만이 차 있을뿐이다. 이런 막다른 지경에 이른 주인공내외가 양복차림의 청년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를 선주모시듯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면서도 두 내외는 또 이번엔 빙어리와 맞닿지 않겠는가 위구한다. 정녕 그 위구는 맞아떨어져서 파인 그는 《말하는 빙어리》와 같은 존재였다. 그도 역시 글을 모르다나니 보아달라는 편지는 읽지 못하고 빙어리 뺨가슴 앓듯 왕청같은 녀두리만 늘어놓는데 그것이 끝내 주인공내외의 울음을 터쳐놓고 야마는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빙어리》의 가슴 아픈 녀두리를 들고 울음판을 벌려놓는데서 주인공의 성격개변은 촉진되고있다.

그리하여 야학선생은 이러한 개변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야 자책하는 주인공과 마을사람들에게 열렬히 호소하는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온 마을사람들이 한마음이 되니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우린 배워야 합니다.

발달하지 못하면 백성도 나라도 망하고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개명하지 못했기때문에 남의 노예가 되어 짓밟히고 천대받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가 문명치 못한탓에 남에게 먹히우고말았습시다.

그러니 독립된 제 나라에서 진정 사람답게 살자면 배우고 또 배워 나라찾는 길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광명이고 아는것이 힘입니다.》

이 진리의 호소에 잠을 깬 마을사람들은 은은히 울리는 야학종소리를 따라 모두 야학으로 가는 길에 떨쳐나서게 된다. 바로 혁명연극의 무대에서 울려가는 이 야학의 종소리는 당시의 농민들을 새날의 언덕으로 부르고있을뿐아니라 오늘날도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는 길에도 우리들을 부르는 시대의 종소리로 힘차게 메아리치고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작품은 주인공 허달수를 비롯한 중심인물들의 각이한 성격과 그들의 호상관계속에서 찾아낸 생활의 극을 그들의 성격발전과정을 따라 가며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도 배움의 진리를 심오하게 밝혀낼수 있었다. 참으로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당시 농민들이 어떻게 선진적인 지향을 가슴에 받아안고 글을 배워 나라와 자기운명을

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었는데 이를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오늘도 자기의 정치사상의식과 현대과학기술 및 실무적 자질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공다운 역할을 다하자면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깊이있게 밝히고있음으로 하여 불멸의 사상에술적 가치와 거대한 인식교양적 의의를 가진다.

(2)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원작의 참신한 예술적 특성을 그대로 살려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새로운 양상의 작품이다.

이 명작에서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의 결합은 결코 정극도 아니고 희극도 아닌 극작품을 만들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정극적인 생활을 주류로 하고있는 정극작품에 희극적인 요소를 결합시켰다는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량자의 유기적 결합은 이야기를 정극적으로 끌고 가면서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희극적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풍자극이 아닌것만큼 정극적으로 끌고가면서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

지난날 착취사회에서는 적대적 모순을 체현한 반동계급들의 추악하고 퇴폐적인 사상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조소야유하는 풍자희극이 주되는 희극작품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혁명연극은 일제의 우매화정책으로 인하여 무지와 몽매를 강요당하고 낡은 봉건적 생활인습이 그대로 남아있던 1920년대말 우리 나라 농촌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당시 흔히 볼수 있던 무의식군중을 의식화하는 과정에 산생되는 희극적 현상들을 해학적 웃음속에 일깨워주고 교훈을 안겨주는 독특한 양상의 작품으로 되고있다.

이 작품은 이야기거리자체가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되어있는것만큼 희극적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과장하는 낡은 수법을 답습하지 않고도 생활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속에서 다양한 희극적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시기 희극창작에서는 흔히 작품의 양상부터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생활을 억지로 뜯어맞추거나 희극적 양상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마감까지 사람들을 웃기려고 모든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희화화하는것이 상례로 되어있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희극작품들에서는 정극적인 생활요소가 이단시되어 끼여들수도 없었으며 정극적인 인물성격도 양상을 파괴하는 이단자로 몰리어 형상의 영역밖으로 추방당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당은 이러한 희극창작의 낡은 틀을 깨뜨리고 생활의 본색대로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창작원칙을 밝혀줌으로써 원작의 양상적 특성을 그대로 살릴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인간생활을 본색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할데 대한 투철한 사실주의적 요구로부터 출발된것이다. 본래 우리의 현실생활에는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이 따로 분류되어있는것이 아니라 호상 침투되고 융해되어있으며 정극적성격과 희극적 성격 역시 따로 갈라져있지 않고 언제나 생활속에서 호상 교체하며 교감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생활 그대로의 본래모습이다.

혁명연극은 이러한 현실생활의 본색대로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산인간들의 실생활에서처럼 웃음도 있고 사색도 있는 새로운 양상의 작품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정극적인 생활과 희극적인 생활이 기계적으로 조립되고있거나 어느 한 극적 계기에서 국부적으로 결합되고있지 않다. 량자는 어디까지나 작품의 형상구성체전반에 걸쳐 생활의 논리와 성격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하나의 유기적인 형상화물을 이루고있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의 진정한 결합의 본보기로 된다.

혁명연극에서 이러한 혼연일체의 결합은 무엇보다도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 호상간의 극적관계속에 체현되고있는 정극적 요소와 희극적 요소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우선 글을 배우지 못해서 까막눈이 된 주인공 허달수의 희극적 성격에는 혈육에 대한 남다른 사랑에 기초한 정극적인 인정선이 잘 결합되어있다. 그것은 감옥에 갇힌 남편을 찾아 복간도로 떠나간 외동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정극적인 생활선과 딸에게서 편지가 온것도 모르고 그 편지종이로 담배를 말아피우다가 뚫어진 창구멍을 막는 희극적 행동선이 형상적으로 결합되고있는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딸에게서 온 편지로 뚫어진 창구멍을 막는 설정-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예술적 발견이다. 바로 여기에 작품의 새로운 양상적 특성이 집약되어있다. 만일에 작품에서 이 희극적 설정이 없이 그저 딸소식을 기다리는 정극적인 생활선만 있다고 하면 극은 따분해질것이고 새롭고 독특한 양상적특질도 없어지고말것이다. 반대로 딸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생활선이 없이 그저 딸에게서 온 편지를 담배종이로 하려다가 이내 편지인줄 알고 그 내용을 해독하려고 글동냥을 다니는 희극적인 생활선만 추구했다고 한다면 사색도 정서도 없는 메마른 양상의 희극작품으로 되고말았을것이다. 하지만 작품은 주인공인 달수의 성격적 특질로부터 흘러나오는 두가지 생활선을 형상적으로 옹계 결합시킴으로써 극이 시작되는 첫 장

면에서부터 극적 단서가 명백한 새로운 양상을 띠게 할수 있었다.

이렇게 제시된 극적 단서는 자체속에 내포되고 있는 희극의 씨앗과 정극의 씨앗을 잘 접종시켜 풍요한 생활의 토양속에서 잘 가꾸어나감으로써 독특한 양상에 맞는 형상의 꽃을 피우고있는것이다. 개막벽두에 심어진 희극의 씨앗은 이미 딸의 편지가 온것도 모르고 계속 소식을 기다리는 과정에 파생되는 각이한 생활선을 통하여 싹이 트고 아지가 뻗어나가며 정극의 씨앗 또한 배우의 진리를 꾸준히 깨우쳐주는 야학선생과 그의 영향밑에 남먼저 각성한 김로인, 차돌, 봉순 등의 정극적인 형상들을 통하여 싹트고 자라나 량자가 잘 결합됨으로써 작품전체의 희극적 색조와 정극적 색조가 하나의 진실한 극적 형상으로 훌륭하게 꽃피어나게 되었다.

여기서 극조직의 특성은 극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는 딸에게서 온 편지를 석유장사에 의하여 첫 장면에 제시해놓고도 그것을 그냥 묻어두었다가 충분한 생활축적에 기초한 감정조직을 거쳐 극적정황을 한껏 고조시킨 다음에야 또다시 석유장사에 의하여 까밝히게 한데 있다. 따라서 극의 발전부분이 작품의 많은 장면들을 포괄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파생된 여러가지 희극적 사건들과 정극적인 생활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양상을 생활적으로 담보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로 딸을 찾아 복간도로 가는데 필요한 로자돈을 마련하는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깊은 극적 형상은 주인공이 지주놈한테 로자돈을 꾸려 갔다가 얼리우는 장면의 생활화폭이다. 이 장면에서의 량자의 결합은 그야말로 섬세한 감정조직으로 이루어지고있다. 처음에 주인공이 손가락으로 《스물아홉자》를 세여가며 계약서를 만들게 하는데서는 지주놈에게 속지 않으려는 그의 《예지》를 보여주고있다면 다음에 지주놈이 그 글자수에 맞추어 그의 조카딸을 부엌데기로 끌어 들이는 내용을 쫓아박는데서는 지주놈의 교활성과 착취적 본성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그뿐아니라 자신이 속히운것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달수의 희극적 형상과 그 계약서를 자랑스레 읽다가 시앗싸움이 벌어져 제 몇에 걸려든 지주놈의 물결은 작품의 양상적 특성을 생동하게 잘 살려주고있다.

이렇듯 생활의 축적단계를 거친 다음에 편지가 이미 와있다는것도 까밝혀지며 글동냥을 다니다가 양복쟁이 청년한테 편지를 읽어달라고 간청하는데서 극은 급전진하여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는 오해와 착각의 수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있으며 그로부터 다양한 색조의 희극적 웃음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 환기되는 희극적 웃음은 인물들의 성격에 따라 무한한 다양성을 띠고있으나 모두

다 반동적인 인간추물들을 조소야유하는 풍자적 웃음과는 달리 충고와 교훈을 담은 가벼운 웃음이다.

배우지 않고 아는체하다가 남의 웃음거리로 되는 주인공 달수의 희극적 형상에서 환기되는 웃음도 글공부를 부질없는 일로 여기는 낡은 관념을 깨우쳐주는 가벼운 교훈적인 웃음이며, 결모양은 유식해보이지만 글을 한자도 모르는 양복쟁이 청년 만복이가 자아내는 웃음도 달수내외가 결모양만 보고 착각하는데서 생기는 해학적 웃음이다. 특히 만복이가 안타까이 신세타령을 하며 우는 모양을 보고 비보가 왔다는것으로 착각하고 울음판을 터치는 절정장면의 웃음은 통곡소리 높아질수록 웃음소리 높아지는 《희비극적》 웃음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여기서 남들이 우는바람에 우는 모퉁인가 하고 덩달아 울었다는 부실이의 희극적 형상에서 환기되는 웃음도 모든것을 지레짐작하며 주대없이 행동하는데서 흘러나오는 울음속의 해학적 웃음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환기된 여러가지 웃음들은 다같이 그 인물자체를 부정하지않고 그들이 지니고있는 낡은 사상과 락후한 인습을 깨우쳐주며 교훈을 안겨주는 가벼운 해학적 웃음이다.

하지만 이것은 긍정이 지배적인 사회주의현실주제의 경희극작품들에서 발현되는 명랑하고 생활적인 락천성으로 일관된 해학적 웃음과는 같지 않다. 오늘의 경희극작품들에서는 높은 현실긍정의 열정을 안고 사람들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동지적 비판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환기되는 발랄하고 명쾌한 웃음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이와는 달리 여기에서 환기되는 웃음에는 사람들을 무지하고 몽매하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반항정신이 깔려있는것만큼 그 웃음은 해발딱하지 않고 보다 심리적으로 깔아얇은 웃음이며 명랑하고 락천적이라기보다는 진중하고 서글픈 감정이 채색된 웃음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것은 작품에서 섬세하게 나타나고있는 다양한 색깔의 웃음들이 잘 반증해주고있다.

레컨대 투전판에서 로자돈을 다 떼운 달천이가 그것을 돌려맞추려고 하는데서와 팔랭이를 흔들며 너두리를 늘어놓는것을 형수가 착각하는데서 생기는 웃음은 기막히고 서글픈 웃음이며 빗문서 때문에 달수가 지주놈한테 얼리우는데서 나오는 웃음 역시 발딱하고 명쾌한 웃음은 아니다. 또한 그처럼 기다리던 딸의 편지를 창문에 끼꾸로 붙여놓았다는것을 알게 된 허달수내외가 당황하여 창문에서 식칼로 편지를 오려내어 어찌할바를 몰라하며 글동냥을 다니는 대목에서 생기는 웃음도 깊은 동정이 어린 해학적 웃음으로서 그 밑바닥에는 농민들을 그토록 우매하게 만든 일제와 착취계급에 대한 증오와 단죄의 감정이 은근히 안받침되어있는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웃음들이 근대에 서방나라들에서 창작된 《서정적 경희극》이나 《진지한 희극》에서 보여주고있는 《서정적인 해학》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작품들에서는 주로 자기세대를 다 살고난 귀족들이나 낡은 지식인들이 도래하는 새세계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가엾게 생각하며 터치는 서글프고 익살섞인 해학적 웃음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혁명연극에서 생기는 다양한 웃음은 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리상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에게 무지와 몽매를 강요하는 낡은 착취사회를 때려부시고 앞으로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근로인민들이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되찾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환기되는것으로서 선진적 지향과 리상을 체현하고있는 해학적 웃음이다. 작품의 희극적 형상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의 이러한 특성을 고찰해보아도 적극적인것과 회극적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데 대한 새로운 양상의 요구는 필연적이라 아니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연극에서는 참신하고 다양한 색깔의 웃음이 독특한 형상적 조화를 이루고있을 뿐아니라 긍정인물들의 적극적인 생활선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사색과 정서적 색깔에 잘 융합되고있는것이다.

사람들이 무식한탓으로 걸음걸음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 때마다 뜻깊은 말로써 다정히 일깨워주는 야학선생과 밤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떼를 바라보며 광복된 조국의 미래까지 그려보는 봉순이와 차돌이의 애정세계 등에서 흘러넘치고있는 그윽한 사색과 정서적 향취가 이를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있다. 이밖에 허달수내외를 한사코 야학으로 끌어내려는 김로인의 따뜻한 손길을 비롯하여 손녀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할머니와 당시의 시대상을 인상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석유장사의 형상에서 풍기는 사색과 정서세계도 레외로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것과 회극적인것이 하나의 생활화폭에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하자면 응당 형상의 진실성이 확고하게 담보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서로 이질적인 형상색조가 앙상하게 로출되어 작품은 얼룩이 가고 예술적 감흥은 깨어지고말것이다. 형상에서 진실성을 담보하자면 무엇보다도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따라 인물들의 사상감정세계를 진실하게 그려야 할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조직을 잘해야 한다. 이로부터 혁명연극은 형상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생활의 론리를 따라 인물들의 감정세계를 끊임없는 축적과 폭발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펼쳐 보이면서 극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밝혀내도록 감정조직을 치밀하게 하고있다. 단적으로 양복차림의 만복이가 남의 편지 한장 읽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와 우는 모습을 보고 인차 불길한 소식으로

착각하는 생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1장에서부터 복간도에 생겨난 큰 물란리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것을 미리 설정해놓고 소식없는 딸자식도 분명 잘못되었다는 위구를 생활적으로 강하게 깔아주고있다. 그러한 생활적 전제와 감정의 축적을 미리 해놓고도 반복이가 편지를 보다가 가슴을 치며 우는 장면자체에서도 진실성이 담보되도록 섬세하게 감정조직을 하고 있다.

처음에 반복이가 남의 편지를 함부로 어떻게 보겠는가 망설이자 역시 공부한 사람은 폐절도 바르다고 오해받게 되며 편지를 쥐고 범의 꼬리를 잡은 격이라고 안타까이 혼자말을 하는데 달수내외는 편지를 읽는줄 착각하고 더 크게 읽어달라고 간청하는것이다. 다음에는 그자리를 모면하자고 하는데 상동마을까지 따라가서 듣겠다고 펼쳐나서니 이젠 도망칠수도 없게 된다. 이렇게 감정축적을 한다음에 울음을 터치는 장면을 섬세하고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

만복: ... (편지를 보다가 기가 막혀 가슴을 친다.)

야, 제 나라 글도 볼줄 모르는 까막눈이 되다니... 아이구 내 팔자야...

조씨: (달수에게)아니 팔자가 어떻게 됐다우?

달수: 뭐?! (만복을 본다.)

만복: ... (제설음에 한숨을 쉰다.)

조씨: 한숨까지 쉬는걸 보니 응? 우는게 아니우?

달수: 운다구?

만복: 아버지, 날 왜 이꼴루 만들고 가셨나요?

(눈물을 흘린다.)

조씨: 뭐라구 썼기에 저러누?

만복: 이 피로운 사연을 그대로 말할수도 없구!

달수: 여보시오, 그대로 말해주시우, 그대로!

만복: 저 사실은... (말하려다가 그만 돌아서 운다.)

조씨: 아니 그럼 우리 봉녀가?... 아이구 봉녀야!... (갑자기 통곡한다.)

달수: 이날 이때껏 소식 한장 없더니... 내 무슨 일이 날줄 알았다.(운다.)

...

만복이의 안타까운 심정으로가 울음으로 변하고 그 울음이 불길한 소식으로 착각되어 통곡이 시작되며 여기에 늙은 어머니와 부실이도 나와서련쇄반응을 일으켜 울음판을 벌려놓게 되는 이 얼마나 진실한 극적 화폭인가. 여기서 만복의 대사는 거의 모두다 혼자말로 된 방백인데 희곡의 방백이 그대로 주고받는 극적 대사로 착각되어 서로 교제교감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큰 형상력을 나타내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섬세한 감정조직으로 회극적 정황을 고조시켜놓고 지주놈의 간교한 계약서내막을 까밝히는 적극적인 생활선이 자연스럽게 물리게 되어 혼연일체의 형상화폭으로 결합된 가운데 극은 대단원을 이루게

되는것이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이와 같이 배움에 대한 사람들의 밝은 사상관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깨우쳐주며 교훈을 주는 해학적 웃음을 위주로 하면서 깊은 사색과 정서를 유기적으로 배합함으로써 원작의 독특한 양상을 손색없이 높은 수준에서 살려내고있다. 그리하여 《성황당》식 연극의 극형식을 고수하고 새롭게 발전풍부화해나가는 길에서 또하나의 본보기를 창조하게 되었다.

끝으로 혁명연극의 새로운 양상적 특성을 살리는데 있어서 《성황당》식 무대미술과 《성황당》식 연극음악이 기여한 형상적 기능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부드럽고 선명하며 섬세한 조선회기법으로 형성된 삼치꿀의 아름다운 풍경과 접동새 우는 개울가의 달밤장면 등은 깊은 사색과 정서를 안겨주고 있으며 달수네 집장면에서 턱높은 문지방과 구멍뚫린 창문 그리고 지주집의 담장과 높은 토방은 희극적 형상을 조형적으로 강조하는데 잘 이바지하고있다. 그뿐아니라 영화처럼 연극을 연속적으로 볼수 있게 한 다양한 흐름식 무대전환은 극적 감정의 끊임없는 지속성과 상승과정을 담보하면서 양상의 특성을 생활의 부단한 흐름속에서 더한층 돋구어주고있다.

또한 《성황당》식 연극음악의 문학적 기초를

이루는 방창가사도 작품의 새로운 양상을 살리고 서정성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형상적 기능을 높고있다.

...

제 혼자만 안다고 으르더니
어둠속을 헤매며 땀을 흘리네
야학방 곁에 두고 오리십리
길가던 사람에게 굶신굶신
삼치꿀 저 아저씨 글동냥하네

...

앞산의 빼꾸기도 빼꾸빼꾸
령감님 한심하다 빼꾸빼꾸
까막눈이 불쌍하다 동정을 하네

...

주인공내외가 길거리에 나가 글동냥을 하며 해매는 장면에서 부르는 이 방창가사에는 희극적 성격의 본질이 잘 드러나고있으며 밝고 명랑하면서도 동정이 깃든 해학적 선률에는 정극적 색조와 희극적 색조가 결합되어 작품의 양상을 음악 정서적으로 잘 살려주고있다.

이상과 같이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그 사상적 내용의 심오성과 참신하고도 독창적인 예술적 형상의 완벽성으로 하여 오늘날뿐만아니라 먼 앞날에 가셔도 불멸의 빛을 뿌릴 기념비적 명작이다.

소조원이 간곳은

방만필

기계화작업반에 갔다길래
내 그를 찾아갔더니
운전사 얼굴에 웃음 가득 피워놓고
방금 들로 나갔다네

가을바람 안고 내 들에 나서니
풍년 벼꽃 피운 그 진정
나락이 되어 설레는가
내 소조원을 찾았더니
새노래 포전보급 방금 마치고
막내아들 입대하는 배나무집에 갔다네

아, 내 몰랐구나
소조원을 만나기가 힘들지 않는걸
당의 뜻 받들어 먼저 걷는 그곳

농기계 발동소리 고르로운 그곳에
농장원들 웃음소리 높은 그곳에
나도 함께 있었으면 될걸

내 이제
소조원이 간곳 더 알아 무엇하랴
풍년나락 설레는 벌에
소조원의 마음이 있고
웃음 넘친 농장원들 얼굴에
소조원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야

그 마음
그 모습을
뒤미처 따라 걸은 내 걸음이
그대로 시가 되데야

법칙

-한 로탄부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정창윤

(제1회)

제 1 장 추억의 로막들

나의 출장용무는 끝났다. 서부지대의 여러 탄광들에 돌아다니면서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지금은 제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나의 이번 외지생활은 눈코 뜰새 없이 맞물린 시간표에 의하여 바쁘게 흘러갔다.

우리 무연탄 채굴전선에 새로 나타난 《신형무기》라고 말할수 있는 라선형 쇄동발에 의한 채탄법을 이 탄광, 저 탄광의 일꾼들에게 배워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또 원하던 《신형무기》였던만큼 짧은 시간에 훌륭하게 그 사용법을 체득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용무는 조국의 최북단에 있는 《ㄱ》탄광기계공장에 들어서 거래과정에 제기되던 몇가지 말썽거리를 좋게 해결한것이다. 그래서인지 나의 돌아가는길이 가벼운 기분이다. 덜컹거리는 완행렬차를 타고가지만 최대급행을 타고가는 기분못지 않게 상쾌하다.

기차가 정거장에 멎을 때마다 오르고 내리는 북도 사나이들과 녀인들이 자리잡음을 하노라고 청높은 사투리로, 떠들어대지만 그것도 나의 귀엔 정답게 들릴뿐이다.

차창밖은 푸른 바다요 그우엔 가을날의 맑은 하늘이다.

한평생을 지하의 채탄막장에서 보낸 나에겐 저 바다, 저 하늘이 싫어진 때란 없다.

계절도 좋고 날씨도 좋다. 그리고 내 기분도 여전히 좋다. 어느때나 내 관심사로 되는건 석탄생산문제다. 아니면 성공한 새 기술 도입문제거나 실패한 새 기술 도입문제다.

외지에서서의 작업일정을 마치고 떠나기 직전에 받아본 편지에 의하면 우리 탄광의 일은 매우 잘 되고있다. 편지를 보낸 사람마다 잊지 않고 몇 줄씩 쓴것은 라선형동발의 고마움이다. 굴진공들은 채탄공들의 끝없는 추격으로 하여 항상 뒤덜미를 잡히우는듯한 초조에서 해방된 안도감에 대하여 썼다. 한편 채탄공들은 높은 채취률과 작업안전에 대하여 쓰면서 지난날의 흠애비동발들을 갱내에서 모조리 내쫓아버린데 대하여 쓰고있다.

《...우리가 지난날 나무동발 한테한테씩 들이던

서 석탄속으로 전진하던것을 생각하면 서글퍼질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굼뜨던 속도와 보잘것 없던 채취률은 벌써 옛말로 되고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석탄을 위한 치열한 전투들이 진행되고 있는 전선마다에 라선형동발이 도입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있습니다. 이 위력한 <신형무기>가 탄생하여 소리친 고향인 덕향의 탄부들이라는 높은 자랑속에 우리는 살고있습니다. 멀지 않아 다른 탄광들에서도 이런 <신형무기>를 만들어낸 리현모연구사와 오성림교관아바이에 대하여 말들을 하게 될겁니다.》

이러한 편지구절들은 늙은 탄부인 나를 들뜬 지경으로 기쁘게 해준다.

석탄전선이 펼쳐진 작전지구마다에서 위력한 생활력을 보여주고있는 라선동발, 조상대대로 내려오며 쭈그러드는 외태동발밑에서 일해야 했던 탄부들이 안전하게 일하도록 해준 동발,... 그 동발의 고마움, 그 동발의 출생지에서 사는 자랑, 그 고마움, 그 자랑속에 나 또한 살고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편지들을 받아보고나서 세상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사실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것은 이 훌륭한 동발을 연구하여낸 과학자인 연구사 리현모와 내 이름을 가지런히 놓는것이다. 세상사람들은 마치 나도 라선형동발의 연구성원중 한사람인것처럼 알고있다.

이것은 심히 잘못된 소문이다. 나로 말하면 연구사 리현모와 공동연구를 한 일도 없고 그의 조수나 부조수도 아니였다. 다만 그가 현지시험을 진행하는 기간 한사람의 로력협조자로 있었던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였음을 이리저리한 기회에 명백히 하여둔바 있지만 여전히 그런 소문이 나돌고있다.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나와 현모연구사가 친형제기간이라는것이다. 이것 역시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 다른 어떤 소문에 의하면 내가 현모연구사를 학자로 키워놓은 사람이라는것이다.

소문도 이만저만해야 믿지 한생을 채굴막장에서 보낸 사람이 세계적인 새로운 과학적 원리를 발견한 학자를 키워냈다니 웃지 않을수 없다.

하기는 큰일을 한 사람을 놓고는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떠돌기 마련이니 그것을 까밝힌다는 것이 헛수고일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러루한 소문이 떠돌다가 연구사 리현모의 참된 모습이 짝이우면 어찌나 하고 우려되는바도 크다.

우리가 지질조건이 좋았던 8번 채탄장에서의 1차시험과 반대로 가장 지질조건이 나빴던 2번 채탄장에서 2차현지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는곳으로 현모연구사가 나를 떠밀면서 《형님이 나가서 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라선동발이야 우리들의 합작품이 아닙니까?》라고 말한바 있다. 이것은 현모연구사의 겸손이었다. 그리고 절절의교였다. 하지만 이것이 술한 헛소문을 날게 한 근거로 된듯하다.

앞으로도 이런 헛소문은 한동안 계속되리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현모연구사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는데는 어떤 연고가 있는가, 라선동발의 현지시험을 진행할 때 두사람의 일뿔이 각각 어떤 것이었던가를 정확하게 세상에 공개하려고 한다.

차창밖은 여전히 푸른 바다요. 가을날의 높고 맑은 하늘이다. 어촌마을 정거장에 잠시 섰던 남행열차는 기적소리와 함께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덕향탄광의 공훈탄부 오성립이다.

전쟁 3년간을 전선에 나가 있었을뿐 덕향에서 나서 오늘까지 타향살이를 해본 일이란 없다.

채탄공, 굴진공, 소대장, 중대장, 갱장까지의 직무를 맡아서 수행하였다.

지금은 혁신갱의 교관아바이라고 부르고있다.

지식정도는 대학의 통신학부 덕향탄광분교 졸업생이다. 나의 단순한 경력이 보여주는것처럼 일생을 채탄막장이 아니면 굴진막장에서 보내었다. 일생을 지하막장에서 보낸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하듯이 나도 굴진선행을 위하여, 채취물제고를 위하여 속을 태울대로 태웠다.

석탄과 계획, 로력과 기계, 끝없는 회의들, 고향소리들과 우는 소리들... 이것은 결국 굴진선행과, 채취물제고때문인것이다.

나는 탄광을 사랑하고 석탄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생산계획을 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때엔 위대한 수령님과 당앞에 죄를 지은 당원탄부의 고통스러운 량심때문에 잠도 깊지 못하고 입맛도 잃는 사람이다.

석탄은 나의 전부라고 말할수도 있다. 석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싼값도 치르었다. 앞으로

도 그럴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무엇도 주저하지 않는다.

아직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연구사 리현모에 의해 탐구된 라선형동발의 신뢰성을 가질수 없어 외면하거나 침묵했을 때 자진하여 그 생산도입 현지시험에 하나의 동원로력으로 된것도 이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에 라선형 강성 쇄동발이란 듣지도 못했고 상상도 할수 없었던 형태의 동발이 연구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것은 우리 탄광 기사장 전성교의 사무실에서였다.

그날 기사장 전성교는 갱장들과 갱 기사장들, 파장들, 교관들을 자기방에 불러다놓고 고향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탄광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기때문이다.

굴진에서의 전진속도가 굼뜨서 계획된 구간을 돌파해내지 못했다. 채탄에서는 채취률이 보잘것 없더니 탄폭이 좋은 구간에서조차 예견했던 출탄량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이 상태에서는 이달도 계획을 하기가 어렵거니와 래달은 더욱 어려울것이 명백해진것이다.

《어째서, 어째서...》

몸집이 우람찬 기사장은 목욕탕에서 방금 나와 젖은 머리칼들이 흩어져내린것도 쓸어올릴념을 않고 탁상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어째서 우리 일이 이꼴이 되여가나말이요. 당신들은 끝내 내가 미치는것을 보고야말테요. 너무 하오. 너무하단말이요.》

하지만 갱장들이나 기사장들은 머리를 수그린 채 묵묵히 앉아있기만 하였다. 얼핏 보면 무표정, 무감정한 목석들처럼 보였다. 기사장의 큰소리는 계속 되었다.

《거짓말도 분수가 있는거요. 당신들이 만들어서 나한테 올려보낸 문서장들엔 이달의 굴진이나 채탄이 아무런 문제에도 걸려들지 않게 되여있는데 어째서 갱바닥에 흘린 탄들까지 긁어놓는 교락서니들을 보이고있나말이요.》

또다시 《어째서》라고 따지고드는 기사장이다. 기사장은 탁우에 꺼내놓고 들여다보던 각종 문서장들을 큼직한 손으로 한웅큼 집더니 공중에 대고 흔들여대었다.

그 종이장들은 금시 산산조각이 날것처럼 생각되었다. 아니면 이 성미급한 기사장이 화풀이를 하지 못해 그것들을 방바닥에 뿌려버릴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래도 갱장들, 갱 기사장들, 파장들은 무표정, 무감정의 목석인듯 약간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앉아있다.

《이건 우리 탄광의 명예문제요. 명예문제란말

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일할 생각이면 당신들이나 나는 당장 자리들을 내놓잔말이요. 우리는 더이상 당앞에 얼굴을 들수 없소.》

드디어 기사장은 지친듯 입을 다물더니 담배를 피워물고 연기를 한모금 길게 내뿜었다. 그 담배연기는 길다란 한숨과 함께 내뿜어져서 서서히 퍼져갔다. 그러자 천장이며 바람벽이며 책장유리들이 금시 깨어나갈것처럼 흔들리우던 방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찼다. 마치 최속력을 놓고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속도를 죽이어서 요란스럽던 차바퀴소리가 멎은듯한 느낌이었다.

무표정, 무감정, 목석들의 침묵... 놀라운 일이지만 시종일관하여 이러한 자세들인것이다.

력사를 놓고 보거나 담당하고있는 생산량을 놓고보더라도 덕향탄광은 나라의 석탄전선에서 다섯손가락안에 꼽히우고있다. 이런 탄광을 이끌어가고있는 지휘관들이 과연 목석들이겠는가? 여기엔 특급갱이나 일급갱을 책임지고있는 《호랑이》 별명의 위풍당당한 사람들도 여럿이 앉아있다.

또한 생산조직에서 《명수》 칭호를 받은 갱장들도 여럿이 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여 출판한 명성높은 기사들도 있다.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하여 약간의 모욕이라도 받게 되면 참을성을 잃고마는 파장들도 있다.

갱마다에서 《귀신》처럼 떠받들리우고있는 로장들인 교관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탄광기사장으로부터 온갖 가슴아픈소리를 들으면서도 한마디의 변명도 못하고 항변도 못한다. 수치에 대한 얼굴붉힘조차 없이 앉아있다. 더구나 슬픈것은 자기들이 탄광 기사장실에 불리워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것은 어쩔수 없다는 공순성인것이다. 그것도 몇몇사람이 아니라 전원이 정상적인 일과처럼 습관된듯한 무표정, 무감정자세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것이다. 너무도 많이 들어서 인제는 아무런 자극도 받지 못하는 그들이었다. 매달, 매주 어떤뎐 하루에도 같은 장소에서 혹은 각이한 장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하고 자신들도 해야 하는 바로 그런 말이 또 한번 되풀이되는데 불쾌한것이다.

굴진을 선행시켜라. 채취률을 높여라. 지금처럼 일하러거던 갱장자리도 내놓고 갱기사장자리도 내놓으며 파장자리도 내놓으라 등등 이였다.

탄광기사장이 되어 방금 목이 터지게 소리친 전성교 자신이 갱기사장을 할 때나 갱장자리에서 일 할 때 전 기사장실에 불리워와서는 똑같은 성질의 가슴아픈 말을 들으면서 풀이 죽어 앉아있었다.

전 기사장은 또 자기이전의 기사장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너무 잘 알고있어서 인제는 말할 필요조차 없는 굴진선행문제요 채취률문제다. 그러면서도 일이 안되면 사무실탁상을 두드리거나 회의실 연락을 두드리며 소리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로 남아있다.

석탄을! 더 많은 석탄을!! 바로 이때문에 끝없이 반복되고있다.

뻔연히 알면서... 그것도 수십년동안을.

덕향탄광의 탄부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지도일군들치고 굴진을 선행시키면서 채취률을 높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의 전부를 바치지 않은 사람이란 하나도 없다.

기계로 일할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곳에 기계를 만들어 앉혔다. 성능좋은 고속천공기도 천공기려니와 덕향탄광이 자체로 제작한 적재기는 전국각지에서 구경하기 위하여 모여들정도로 유명하다.

기계화비중은 언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았다. 기계들은 은을 내어 어제날의 굴진속도는 비할바가 아니였다.

채탄량 역시 오늘에 와서는 어제날의 비할바가 아니였다.

허지만 시간따라 높아가는 인민경제의 수요에 따라설만큼 석탄전선은 전진하지 못하고있다.

인민경제는 날을 따라 더욱 많은 석탄을 요구하고있다. 어제는 한톤의 석탄이면 만족하였던곳들에서 오늘은 열톤이나 스무톤을 요구하고있다.

도처에 수풀처럼 일어서고있는 새로운 기업체들이 석탄을 많이 달라고 어성을 높이고있다.

바빠맞은 탄광들에서는 채탄방법도 새롭게 해보고 로력조직도 새롭게 해보면서 나라의 석탄수요에 응하려고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그렇게 하고있지만 그날그날의 계획을 겨우겨우 하고있을뿐이다. 어떤 날엔 그마저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굴진선행을 하나의 법칙이라고 하시였고 그 법칙대로 굴진대렬은 앞서서 전진하고있다. 그러나 뒤따르는 채탄대렬의 전진속도는 상상이외로 빨라서 굴진대렬은 언제나 뒤덜미를 잡히울듯한 압박감을 받고있다.

이 압박감에 견디지 못하여 굴진대렬은 채탄대렬을 멀리멀리 뒤떨구려고 뛰고 뛰고 또 뛰고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채탄대렬은 바짝 뒤꽂무니에 붙어온다. 마치 너희가 뛰면 우리는 난다는 식이다.

굴진공들속에서는 이때문에 자주 좋지 않는 말들이 터져나온다.

《채탄공들이 련치가 없다느니》, 《얼굴이 두렵

다 느니》, 《량심에 털이 돋았다느니》 등등이다. 별의별소리가 다 터져나온다. 그것은 캐야 될 석탄을 모조리 털어먹지 않고 대충대충 건드리고는 뒤따라 오기때문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채탄대렬의 지휘관들은 자주 회의실 연단에 나가서서 땀투성이가 되도록 혼썰이 나군한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엔 또 그모양 그대로 추격속도를 높이고있다. 다시금 험한 옥설들이 비발처럼 그들에게로 날아간다.

더구나 패섬한것은 이 얼굴 두터운 사람들이 귀머거리행세를 하면서 못들은척 머리로 들지 않고 죽을 기를 쓰며 잔등에 다가와 바싹 붙는것이다. 그때면 생산의 정상화는 깨지고 갱내의 질서와 제도는 혼란되어버리는것이다.

이 혼란과 무질서는 간신히 수습된다. 그리고는 또다시 반복된다. 뻔연히 알면서... 그것도 수십년 동안을.

이 책임을 두고 따지면서 옥설의 도가 넘으면 채탄지휘관들도 더는 병어리나 귀머거리 행세를 하지 못한다. 드디어 그들도 탁상을 두드리면서 달려드는것이다.

《우린들 어떻게 하란말인가? 조상때부터 이렇게 캐먹지 않았는가?》

이 말엔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 오죽 급해맞으면 조상들까지 들고 나오겠는가? 그리고 또 어쩔수 없는것은 그들이 생산계획을 하는길은 그외의 다른 길이 없는것이다.

...캄캄한 석탄층속으로 한테한테의 동발을 세우며 들어간다. 얼마쯤 들어가면 앞서 세워놓은 동발들은 벌써 무거운 짐에 견디지 못하여 주저앉기 시작한다.

앞장에서는 털기 시작한다. 앞장이라야 좁은 작업면적에 불과하다. 좌우 량면의 탄들은 보면서도 손을 대지 못한채 퇴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경우에 그것들은 영영 묻혀버리고만다. 그리고는 새로운 탄발에 달라붙어야 한다. 거기서도 한구멍에 매달려 조심스럽게 굽어낸다...

채탄지휘관들은 기왕 입을 연바엔 하고싶은 말을 좀더 하려고 든다.

《당신들에게 또 다른 채탄방법이라도 있는가? 있다면 말하여보라. 당신들이 지금은 지배인이요 기사장이요 갱장이요 하면서 우리를 비판은 하지만 자신들이 채탄중대장을 할 때엔 지금의 우리와 달랐단말인가? 당신들이 우리의 귀구멍에 대고 옥설을 퍼붓듯이 채취률이 낮은것은 채탄대렬의 지휘관들이 나라자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때문이란 말인가? 우리보다 조국의 자원을 랑비해버리는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데 또 있단말인가? 우리야말로 당신들에게 의

견이 많다. 어째서 당신들은 선배들로서 이 락후한 채탄방법을 그대로 물려주었는가? 지금은 한 등급정도가 아니라 두등급, 세등급이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호령질 밖에 할줄 모르는가? 어찌하여 연구소조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채탄방법을 탐구하는척하다가는 흐지부지 해산해버리고 마는가? 이제라도 채취률을 높일수 있는 채탄방법을 달라. 그러면 메터당 출탄량에서 세상을 놀래울만큼 우리는 혁신하고 또 할것이다. 우리 역시 인제는 귀머거리나 병어리인채하기가 역스럽다. 우리로서는 별의별 방법을 다하여보았지만 어쩔수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요구만 하지 말고 새 채탄방법을 달라. 그러면 굴진공들의 꿈무니에 불어다니면서 더이상 괴롭히지 않을것이다.》

무표정, 무감정, 목적들의 침묵... 아니다. 이것은 무표정도, 무감정도 아니다. 목적들의 침묵은 더구나 아니다.

이것은 산처럼 큰 사나이들이 자신들의 심장속에 두텁게 깔려있는 아픔을 참고있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의 흐름이다.

인제는 사람들이 더이상 그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기사장도 그들에게 할 말이 더 없었다. 그리고 그자신도 지쳐버린것이다.

한사람, 두사람 일어서더니 방안에서 나가기 시작하였다. 인사도 없이... 뒤돌아보는 일도 없이...

잠간사이에 방안은 텅 비어버렸다.

마지막 순서로 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사장은 담배를 끝없이 빨아서 연기속에 묻혀있다. 그 곁을 조심스럽게 지나서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교관아바이는 거기 좀 남읍시다.》

울적한 기사장의 저음이 나의 귀가 아니라 가슴속으로 젖어드는듯하였다.

나는 손잡이쪽으로 뻗었던 팔을 내리우고 그곁의 쪽걸상에 앉았다.

《...》

불러앉혀놓고도 한동안 말이 없는 기사장이다.

《...》

나 역시 그 사연을 급하게 알고싶은 기분이 아니였다. 탄광일이 잘되지 않아서 기사장이 총혈된 눈으로 이 막장, 저 막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뜬눈으로 밤들을 밝힐 때면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는건 우리 나이먹은 축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석탄전선을 책임지고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년의 지휘관들을 백방으로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능력도 변변치 못한데다 늙은 몸들이 되어 교관으로 잔소리나 하는걸로 하루하루를 보

내다나니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있다. 그래서 이 사람 보기가 늘 미안스럽다. 그런데도 기사장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들의 의견을 묻곤하였다.

《요즘은 당앞에 몇몇치 못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도 당중앙에서는 석탄때문에 우리의 인민경제가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알고있네.》

《입원중에 있는 지배인동지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병이 더욱 심해질것 같아서 나혼자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네.》

그다음 기사장과 나와의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나서 기사장은 드디어 나에게 하려고 마음먹었던 본문제를 꺼내었다.

《한달가까이 독촉을 받으면서도 대답을 피해온 일이 한가지 있습니다. 간단치 않은 일이여서 결심을 못하고있다가 오늘아침에 결심한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교관아바이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

기사장은 나의 얼굴표정을 살피었고 나는 기사장의 다음말을 긴장하여 기다렸다.

《과학원의 한 연구사가 우리 탄광에 라선형동발의 시험채탄장을 요구하여왔습니다.》

《그것뿐인가?》

나는 내 성미에 맞지 않는 조급성을 나타내었다.

《그것뿐이라면 벌써 대답을 주었을겁니다. 시험 채탄장외에 많은 량의 부형강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협조로력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형강으로 수백테나 되는 시험용 동발을 우리 탄광 공무직장에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설계도 물론 우리가 해야 합니다.》

《...》

확실히 간단치 않은 보장조건이다. 기사장이 한달이나 대답을 피하게 된 리유도 이해되었다.

《보장조건은 어렵지만 성공만 하면 석탄전선은 무섭게 위력을 보여주는 <신형무기>를 얻게 됩니다.》

대답을 선포 못하는 나의 주저가 기사장에게 얼마간의 초조를 준듯 설명어조의 박자가 빨라졌다.

《그 라선형동발이란 어떤건가?》

《면 봉괴식 채탄법으로 이전할 가능성을 주는 동발입니다. 편지에 의하면 그동안 진행한 실내 실험에서는 메터당 출탄량에서 놀라운 수치를 얻어 냈다고 합니다. 확실한것은 이 새형의 동발이

성공하면 채취률은 80%아래로 떨어질 넘려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구체적인것은 우리가 호출하면 본인자신이 도착하여 설명할것입니다. 이 동발의 기초원리로부터 그 형태적 특성, 실천도입 상에서 제기될수 있는 일련의 내용들은 그때에 가서 들을수있습니다.》

《...》

나는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을 들었다. 내 주머니에 금덩이들이 쓸어든다는 기별을 받은거나 같은것이였다.

채취률의 최저선이라 해도 80%라니 이것은 우리 탄부들 모두의 최소소원이 풀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다면 굴진 또한 언제나 여유있게 규정된 선행구간을 확보하면서 굴진과 채탄의 비율을 엄격히 지켜낼것이다. 좋다. 아주 좋다. 그러나 나는 언뜻 그 연구사를 불러오자고 말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에게 채탄장을 내주는 것이 아까와서도 아니고 수많은 량의 v형강을 내주는것이 아까와서도 아니다. 탄광에서 늙은 사람ियो 탄광당위원회 위원으로서 탄광의 삽자루 하나를 놓고도 각색이짓을 하는 나지만 이런 일에서까지 린색을 보이고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내가 선포 대답을 못하는것은 내 머리속에 수많은 과학자들의 실패가 기억되고있기때문이다.

지난날에도 개별적인 연구사들이나 과학연구집단들이 우리에게 와서 생산도입시험을 하다가는 돌아갔다. 기억에 의하면 그들의 결과는 대체로 시원치 않았다. 그때마다 과학의 덕을 입어보려고 할수 있는 모든 방조를 다 주었지만 결과는 쓴 입만 다시는것으로 끝났다. 그때의 그들도 이번의 경우처럼 귀구멍이 환히 열리고 가슴이 설레게 하는 실내실험의 수치를 가지고왔던것이다.

기사장자신이 새동발 연구가의 청을 받고도 한달이나 결심채택을 못한것은 이때문일것이다.

《새 동발을 연구하고있는 이 사람은 저의 대학 동창입니다. 교관아바이밑에서 여러번 실습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보시면 잘 알수 있는 사람입니다.》

《...》

지금은 얼굴도 이름도 기억해낼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생일 때는 나의 밑에서 실습기간을 보내곤하였다. 내앞에 앉아있는 탄광기사장도 바로 그런 실습생들중 한사람이였다.

저의 해마다 나는 대학생들을 맞이하여 그들의 실습교원노릇을 하였다. 그런 학생들은 많아서 특별한 인상을 남기고 떠난 학생이 아니면 기억에 새겨지지 않았다.

《저의 결심은 그 사람에게 현지시험조건들을

보장해주자는겁니다. 하지만 탄광지도일군들과 함의를 보아야 할 문제여서 회답을 보내지 못하고있습니다. 우선 교관아바이의 동의부터 얻고 싶습니다. 대학졸업후 오늘에 이르는 긴 세월을 동발연구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리현모동무입니다.》

《?!》

나는 놀랐다. 리현모... 기사장이 나의 놀라는 표정을 지켜보면서 알릴듯말듯한 미소를 지어보였지만 나는 굳어진 자세가 되고말았다. 나의 과거와 얽혀진 리현모란 단순한 대학실습생과 현지실습지도교원이 아니다.

슬픔, 기쁨, 웃음, 고통, 그보다도 매우 폭이 넓은 추억의 토막들이 이 이름과 함께 한꺼번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다.

기사장이 몸을 일으키더니 철के 서류함의 문을 열고 편지봉투 하나와 규격이 큰 공책 한권을 꺼내여 내앞에 내밀었다.

《현모동무가 저에게 보내온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라선동발에 대한 간단한 도해집입니다. 이걸 보시면 교관아바이나 제가 현모동무에게 어떤 방조를 해야 되겠는지 알게 됩니다.》

나는 공책짤에 편지봉투를 끼워놓은후 그것을 들고 퇴근길에 나섰다. 봄비는 탄광거리였다. 길 어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말들을 건넸었지만 나는 아득하게 흘러간 날들에 있었던 일들의 토막토막들을 이어보노라고 고개만 끄덕이는것으로 답례를 표하면서 걸어갔다.

...석탄! 석탄!! 석탄!!! 덕향은 낮이고 밤이고 석탄을 캐내고있다.

갱들에서 나온 길다란 전차들이 저탄장으로 모여든다. 그것들이 엇바뀌어 들어가면서 한바퀴씩 굴렀다가 일어설 때마다 저탄장의 높은 절벽은 석탄폭포가 되군한다. 그때면 덕향골 40리에 퇴성이 터지는듯하다.

아아히 솟아 뿜어낸 봉우리들을 거느리고있는 북산과 남산짤을 짤면서 뻗어올라오다가 서산에 막혀버린 덕향지구다.

덕향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듯 해해년년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뽕죽한 끝머리가 북산이나 남산과 키돋음을 하면서 나란히 서있는 버럭산도 나날이 높아진다. 그리로는 굴진중대의 버럭차들이 권양기줄에 끌리워 올라가서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엎어졌다가는 빈털터리가 되어 되돌아내려온다.

구내의 중심에 있는 사령탑확성기에서는 전차들의 입출경을 지휘하는 녀성사령원의 짧고 명백한 째렝째렝한 목소리가 울려나와 이 산, 저 산

에 메아리친다.

갑자기 꼴짜기를 흔들었다 놓는 기적소리가 몇번 울리더니 저탄장 출탄구밑에 서있던 열차가 석탄이 무둑무둑 쌓인 방통들을 끌고 덕향을 떠난다.

해가 지고 어둡기 시작하자 고층건물들이 줄지어선 주택구로부터 저 멀리 산중턱에 자리잡고있는 갯들의 입구까지 줄전등과 무리등으로 장식된다.

풍금소리 은은한 길가의 학교에서는 수직당번인듯한 어느 녀선생의 노래소리가 새나오고 회관쪽에서는 새로 돌리기 시작한 영화음악이 들려온다.

회관앞 중앙광장의 기슭등엔 새소식을 전하는 큼직큼직한 글씨의 속보판들이 울바자처럼 둘러쳐졌다.

그 제목들만 보아도 정신이 번쩍 든다.

《네가 뛰면 나는 날것이다》, 《월계획도 분기계획도 해내고야말것이다》, 《충성심은 뜨겁다》, 《당은 더 많은 석탄을 요구한다. 한교대에 한톤씩만 더 캐내자》,

《썻! 우리 교대의 박아바이의 목소리를 들으라. 석탄은 나라의 재산이라고 말한다》

《썻! 동무의 결의를 다시한번 말해보라.》

퇴근하는 탄부들은 내려가고 출근하는 탄부들은 올라오며 외통도로가 좁다하게 엇갈리다가 이앞에 이르러 걸음들을 멈추고 한참씩 떠든 다음 멀어진다. 그중에서도 높은것은 청춘들의 웃음소리다....

오늘의 덕향탄광지구는 이러하다. 하지만 전쟁직후의 덕향골안은 성한집 한채 없는 폐허였다. 보이는것이란 허물어진 담벽과 휘여든 레루들뿐이었다. 기름기 흐르던 갯들은 주저앉았고 배수로가 막혀버린 갯안엔 물이 차있었다.

꼴날갈던 청년탄부들은 전선에서 돌아왔지만 주추돌과 굴뚝밖에 남지 않은 자기집 터전우에 한동안씩 넋을 잃고 서있었다.

나 역시 그런 제대병사였다. 내가 전선에 나가있는 기간 집은 불타버리고 안해는 희생되었다. 결혼하여 일년 남짓한 기간을 꿈처럼 보냈던 그 혼적마처 영영 없어져버린것이다.

토방 디딤돌만이 홀로 남아서 나를 맞아주었다.

전선으로 나갔던 젊은 탄부들의 가슴속은 큰 슬픔, 작은 슬픔으로 가득찼다.

홀로 남은 자기 집의 굴뚝을 안고 혹은 주인없는 프락에 외로이 피여난 코스모스나 백일홍의 가느다란 줄기를 두손으로 반겨잡고 우리는 울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슬픔에 손뭉을 잃고 주저 앉지는 않았다. 찢기는듯한 가슴을 두드리며 일어서서 탄광을 복귀하기 시작하였다.

아무것도 없는 빈주먹뿐이었다. 착암기도, 모라도, 탄차도 없었다. 삽도 곡괭이도 없었다. 공무직장의 용선로는 세토막이 나서 둔덕아래에 덩굴었다. 엉터리없는 탄차바퀴 하나 무어내자고 해도 선철덩어리를 구할길이 없었다. 갱안에 고인 물을 뽀아낼 뽀프부속을 구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돌아 다녀야 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을 하고 또 하였다. 하루종일 등짐을 졌다. 손바닥과 어깨엔 멍이 들었다. 잔등엔 허영게 버케가 내돌았다. 식탁에 마주앉으면 국사발엔 건데기가 몇오리 없어서 밑바닥이 들여다보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그중에서도 제일 귀중했던것은 로력이었다. 전쟁은 본래의 탄광사람들을 사치로 뽀뽀이 해쳐놓았다. 그리고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군인민위위원회가 모집하여 보내주는 신입로동자가 드물게 몇명씩 보충되곤하였다.

복구기의 탄광이어서 수입도 높지 못하고 일도 고되여서 자원하여 오는 사람이란 별반 없었다.

군 로력행정이 모집하여 보낸 사람들중에서도 탄광에 마음을 붙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채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전직후라 건달뱅이들이나 불량배들도 모집되어 왔다가는 도망치곤하였다.

내가 소대장을 하던 굴진소대원들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중에는 손잡고 함께 일하고싶을만큼 시원시원하고 일손이 겹쳐서 마음에 드는 청년들도 있었다.

리현모가 바로 그런 청년이었다. 전쟁통에 부모들을 죄다 잃고 혼자가 된 이 열아홉살의 청년은 눈치도 빠르고 몸도 든든한데다 성미도 시원시원하여 마음이 내킬 때면 무섭게 일자리를 내곤하였다. 읍거리가 출생지인 이 청년은 전후의 란잡한 장마당을 무대로 하여 돌아치는 불량배들의 무리에 끼워 살다가 온것이였다. 탄광에 오기는왔지만 읍거리의 불량배들과 인연을 말끔히 끊어버리지 못해서 자주 그쪽으로 가곤하였다.

약간만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당하면 읍으로 달아나서 며칠씩 돌아오지 않았다. 그나마 데리러 가서 손목을 잡고 끌어오다싶이 하여야만 하였다. 때로는 덕향탄광에서 덕향읍으로 래왕하는 간선열차가 아니라 본선열차에 올라서 청진이나 함흥, 원산이나 평양 등 도시들에 나가서 놀다가 오기도 하였다.

소대장이였던 나는 이러한 리현모때문에 하루

종일 장마당에 가서 찾아다녀야 했고 군안전부나 역전분주소에 불리워가곤하였다. 그때마다 안전부 일군들에게 들을수 있는 온갖 추궁을 받아야만 하였다. 하면서도 《네》, 《네》 하면서 굽신거리야 하였다. 그렇게 해서라도 현모를 데리고 소대로 돌아올 때는 또 괜찮은것이였다.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그를 찾을 길이 없어 혼자서 돌아올 때가 허다히 많았다. 이런 날엔 점심도 저녁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하여 통근막차의 컴컴한 객실 한구석에 앉아서 탄광으로 돌아오곤하였다.

《그까짓 녀석을 다시는 찾아다니지 않을테다.》

몇번이고 악이 나서 이런 결심도 해본 나였다. 장마당거리에서 나를 보고도 피해버릴 때면 온몸의 피가 머리에 몰려드는듯하여 견딜수 없을 지경이였다.

그녀석이 보이곤 골목으로 들어서면 금시 있던 녀석은 보이지 않고 딴 녀석들이 앞을 막아서곤 하였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깍듯이 인사를 하며 앞에다 울타리를 치는 녀석들은 모자를 빼돌서하게 쓰고 담배가치를 피워문 망나니들이였다. 이런 일을 몇번씩 겪어야 하는 날엔 주먹이 불끈거릴만큼 제정신이 아니였다.

소대명단에서 리현모란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연필꽂다리를 쥔 일도 여러번이였다. 그러나 일손이 발라서 지나가는 손님에게도 삽자루나 곡괭이자루를 잡아달라고 해야 될 형편에서 이것도 간단치는 않았다.

로력, 로력, 로력때문에 소대장들은 미칠 지경이였다. 로력은 곧 석탄이였다. 석탄이자 곧 로력이였다. 한번 소대에 온 사람이면 그가 무슨 앙탈을 쓰던 무슨 꾀병을 하던 사정사정하여서라도 탄광에 마음을 붙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리현모를 찾아다니는 나의 심정은 이보다도 더 복잡한것이였다. 이 청년은 나의 속을 썩일대로 썩이는 말썽군인데도 내 마음에 들었다. 뇌가 좋고 푹푹한데다 일손까지 겹썩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거리의 불량배들속에 끼워들지만 이 청년이 마음을 달리 먹기만 하면 한사람의 내다하는 굴진공이 되던가 채탄공이 될수 있다는것이 의심될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이 청년을 개조할 생각이였다.

어느날인가 (그때는 굴진막장에 레루를 까는 작업을 할 때였다) 현모는 우리 소대 인원 전부를 기쁘게 해주었다.

체격이 좋은데다 말 주변까지 좋은 이 녀석이 어느 소대에 가서 가져왔는지 혹은 깍쟁이 탄광

자재원들을 얼러넘겨가지고 가져온것인지 그 막은 알수 없으나 귀한 레루를 수많이 얻어왔다.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소대의 끝이 무딘 곡괭이들을 걷어모아 혼자 메고 가서는 공무직장의 한다하는 메질꾼들도 밀어제끼고 제손으로 버루어가지고 온 일도 있었다.

인제는 현모가 소대에 마음을 단단히 붙였다고 믿게끔 되었는데 또다시 옛생활이 그리워졌던지 저희 패거리들에게로 가버렸다. 또다시 맥이 풀려버린 나는 담배만 련이어 몇대 갈아불이고있었는데 정거장안전부에서 단속된 현모를 데려가라는 연락이 왔다.

갱에서 꼬박 밝히고난 새벽이어서 아침도 먹기 전이었지만 나는 읊으로 내려가는 첫 통근차를 타고 제사람을 데리러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안전부 직일관실엔 머리가 푸시시한채 세수도 하지 못한 현모가 앉아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직일관완장을 두른 대위가 첫마디부터 큰소리였다.

《동무는 소대장이라는게 대렬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밤낮 안전부걸음이요. 저따위 망나니 하나 틀어쥐지 못하는 주제에 소대장노릇은 어떻게 해먹는거요.》

《...》

머리를 숙이고 대위가 퍼붓는 추궁을 들을수밖에 없는 나였다.

《벌써 몇번째요. 번바다 관대히 봐주니깐 꿈만 해한단말이요.》

《앞으로는 교양을 잘하겠습니다.》

《또 거짓말이요. 매번 그런 소리를 하고도 실천하지 못하지 않소. 얼굴이 너무 두텁소.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단말이요.》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자신도 굽신거리는 자신의 자세가 역스러울 지경이었다. 현모너석도 저때문에 소대장이 당하는 일이 딱했던지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내가 현모때문에 돌아다니며 이런 망신을 당한것은 역전안전부만이 아니였다. 군안전부나 분주소 할것없이 모조리 불리워다니면서 코가 세멘트 바닥에 닿을 지경으로 굽신거렸다.

현모를 데리고 역전안전부를 나선 나는 그길로 탄광에 올라가는 차를 타려고 정거장쪽으로 걸어 갔다. 현모는 찌뿌둥한 얼굴로 내뒤를 따라왔다.

돌아볼 때마다 걸음 옮기는 꼴이 한심할 정도로 굽뻗었다. 기회를 봐서 또다시 뺑소니를 치자는 게 분명하였다.

《빨리 따라와.》

한참씩 앞서걸던 나는 멈추어서서 현모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곤하였다.

《난 안갈래요.》

《안가면 어쩔테냐?》

《이력저력 벌어먹지요. 탄광엔 마음을 붙이지 못하겠어요.》

늦가을의 으시시한 바람이 빗질을 해본지 오래된 현모의 머리칼들을 이리저리 흔들어주었다.

《그래도 소대에 가야 사람구실을 하는거야.》

《사람구실 못해도 좋아요. 공연히 나때문에 속만 태우지 말라요.》

《넌 사람의 진정도 몰라.》

《어쨌든 난 안갈래요.》

그 순간이었다. 나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현모를 덮치고말았다. 그 다음은 그 녀석과 함께 길옆의 폭탄웅덩이속으로 덩굴어 떨어졌다.

오래된 그 폭탄웅덩이엔 어지러운 물이 가슴높이로 차있었다.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자. 너같은놈을 하나 개조하지 못하면 나도 소대장 해먹을 자격이 없어.》

나는 현모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뒤덜미를 단단히 틀어쥐고 물속으로 내려눌렀다. 현모는 버둥질을 하고 나는 기어이 끌고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동안의 웃지 못할 힘겨움질이 있은후에 두사람은 다 물속에 깊이 빠져버리고말았다.

현모는 진짜로 내가 너죽고 나죽자는 결심인줄 알았던지 거의나 초인적인 힘을 써서 내 손탁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엉엉 울면서 폭탄웅덩이 밖으로 올라가더니 벗겨진 신발도 던진채 시내쪽으로 내뺐었다.

혼자 남은 내 물골도 말이 아니였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침봉이가 된것이다. 웅덩이밖에 나와서 멍하니 서있는 나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곤하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의복을 벗어서 찢어져라 비틀어 짜입었다.

해는 벌써 한낮경이 되였지만 늦가을바람은 차서 몸은 떨렸다. 지난밤을 막장에서 꼬박 밝힌데다 굵은 몸이요 또 편안치 못한 마음이여서 더는 손발을 움직이고싶은 생각도 기력도 없었다.

나는 현모가 달아난 시대의 입구인 장마당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순간감정을 억제하지 못한것을 가슴아프게 후회하였다.

이제는 현모가 영영 소대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짐작이 가자 심정은 보다 더 복잡해졌다. 나는 현모를 꼭 만나야 하고 만나서 설복시킨후 기어이 탄광으로 데리고 가야만 한다는 당원으로서, 소대장으로서의 의무와 양심을 저버릴수 없었다.

그리하여 현모가 사라진 시내 입구인 장마당쪽을 향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발을 옮겨 짚을 때마다 주저앉을듯 몸은 무거웠다. 몸은 떨리고 뼈마디들은 쭈시였다. 틀림없이 파로운 몸에 탈이 생긴것이였다.

내가 장마당 초입거리에 들어섰을 때는 장군들이 한창 붐비면서 팔거니 사거니 하면서 웅성거리고있었다. 그들속 어대인가에 현모가 있지 않나하여 주위를 살피면서 한동안 돌아다녔으나 그 또래라고 짐작되는 녀석 하나 눈에 띄우지 않았다. 아마도 현모는 지금쯤 저희 패당들의 도움으로 젖은 의복도 갈아입고 밥도 배불리 먹은 다음 따듯한 구들에 누워있을것이였다.

장마당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비비고 몸을 빼낼만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차있었다.

나는 두부국과 송편을 파는 아주머니앞에 이르자 배고픔이 더해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뜨거운 국과 떡이라도 몇개 먹으면 몸도 거뻏해지고 힘도 생길것만 같았다. 떡장사아주머니는 가마에서 두부국을 한사발 퍼서 길게 건너놓은 폭좁은 널상우에 놓더니 아침에 빛은듯 만문만문한 송편들이 담긴 접시를 그걸에 가지런히 놓아주었다.

나는 국물부터 마시였다. 언데다 비기까지 한 창자속으로 뜨거운것이 들어가니 몸은 한결 훈훈하였다. 송편도 입에 물었다. 허지만 떡맛은 전혀 오지 않았다.

보통때 같으면 두끼나 굶은 사람으로서 이까짓 송편 한접시쯤은 단숨에 먹어버렸을테지만 입맛이란 전혀 없어서 송편 한개를 겨우 먹었다.

큰눈이 억실억실한데다 살집도 좋고 코날도 두드러지지 않아서 무던해보이는 떡장사아주머니는 젖은 옷을 입은채 억지로 떡을 먹고있는 나를 측은한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끝내 더이상 먹지 못한 나는 주머니에서 젖은 돈을 꺼내어 상우에 놓고 일어섰다. 빈속에 뜨거운 국이라도 한사발 넣으면 힘이 생기리라 믿었던것과는 반대로 온몸은 점점 더 불덩어리가 되고 걸음을 옮기려 하여도 두다리가 뒤틀리워서 몸을 가눌수 없었다.

눈앞까지 부엌계 흐르지고 뼈마디란 뼈마디는 모조리 들뜬듯이 쭈시여대였다.

딱 다문 이발은 더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덜덜 떨떨기 시작하였다.

《제길헐. 이게 뭐람.》

나는 자신을 이겨내려고 혼자 소리도 해보았지만 허바닥조차 제대로 도는상싶지 않았다.

그다음 일은 전혀 기억할수 없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기때문이다.

그날 밤이 꽤 깊었을 때였다. 나는 멀리에서 들려오는듯한 기적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불이 환히 켜진 방이였다.

꿈속에서 해매는듯한 의식속에 있었지만 이것은 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집이고 이집에 내가 눕게 된 경위도 대체로 짐작이 갔다. 의식은 점차 명료해지면서 내 몸이 땀으로 함뻑 젖어있다는것을 알도록 해주었다. 같은 시각에 이젠 어떤 집일가 하는 호기심도 생겼다.

몸을 일으켜보려고 했으나 이불무게에 눌리웠기때문인지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누운 채로 둘러보았다.

머리맡엔 약봉지들이 놓여있었다. 농작을 대신하는듯한 껌작 하나가 흰 종이에 싸워져있었다. 그 외에 벽장보가 드리워져있었는데 그안에 옷가지 몇벌이 걸려있는듯하였다.

뜨끈한 장판바닥이 전등불을 받아서 빛을 내고 있었다. 방에 건너지른 빨래줄엔 나의 젖었던 옷이 걸려있었는데 새로 깨끗이 빨것 같았다. 그러다가 나는 내 발치근방에 조심스럽게 앉아있는 주인집 녀자를 보게 되었다.

그 녀자는 밤새도록 두부망질을 한듯 방금 씻어 낸 망들을 벽에 세워놓고 콩물이 가득 담긴 함지를 옆에 밀어놓은채였다.

억실억실한 큰 눈, 살집 좋은 몸, 두드러지지 않은 코날로 하여 무던해보이는 얼굴... 틀림없이 어데서 본 얼굴이다.

《목이 마르는데요?》

주인아주머니의 나직한 목소리였다. 순간 나는 그 목소리와 낮에 본 얼굴륵판이 하나로 되면서 그 녀자가 장마당에서 떡을 팔던 아주머니란것을 알았다.

《...》

하도 놀라운 일이여서 찬물 한사발을 마시고싶다는 대답도 못하였다.

낮에는 눈앞이 부엌계 흐리고 고열과 오한이 심하던 때여서 떡 팔던 녀자를 보기는 했지만 이처럼 젊었다는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하였다. 수건을 쓰고 머리는 숙인채 손님들을 맞고 보내던 녀자여서 지금처럼 30도 뿔락말락한 싱싱한 젊음을 느끼지 못하였다.

떡을 하고 두부를 하노라고 알뜰한 허드레 옷으로 바뀌입은 이집 안주인은 더운 방안공기로 하여 붉게 상기된 얼굴이였다. 건강에 넘치는... 이렇게 젊은 녀성이 장마당에서 떡을 팔다니... 나로서는 리해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어떻게 되어 이 집에 누워있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었다.

《제 집앞 길바닥에 쓰러지시길래 집으로 맞들

고 들어왔어요. 현모하구요. 현모는 건너집에 숨어있으면서 소대장을 지켜보고있었다나요.»

렴치없으리만치 인사말 한마디도 못한채 놀란 표정만 짓고있는 나에게서 주인아주머니는 부드러운 시선을 떼지 않았다.

《고맙수다. 아주머니, 내가 몹시 심하게 앓았지요?》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은 다음엔 열이 내렸어요.》

《의사가 왔었어요? 신세값을 꼭 하겠수다.》

《이 편지를 써놓고간 현모가 데리고왔던 의사가었어요.》

주인아주머니는 부엌으로 내려가더니 거기 어텐가에 놓아두었던 종이 한장을 들고 왔다.

아이들 공책장에 큼직큼직하게 연필로 써갈긴 편지였다.

…저는 탄광으로 갑니다. 다시는 소대장동무가 나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단단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너무도 량심가책이 커서 머리말에 오래동안 앓았다가 떠나갑니다. 탄광에 가서 모든 일을 보고할테니 마음을 꼭 놓고 이집에 누워서 치료를 잘해야 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최소한 3일간은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집 아주머니는 앞뒤집에서 살던 사이여서 누님처럼 따르고있습니다. 이름은 우일녀이고 마음씨는 제일 곱습니다. 전쟁전에 결혼을 했지만 우마차사업소에 다니던 남편은 우리 부모들이 희생되던 읍거리 폭격날에 죽었습니다.

외톨박이가 된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떡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소대장동무가 어떤 사람이라는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그동안 먹을 약과 돈을 장만하여놓고 갑니다.

소대장동무가 저같은 불량배를 개조하겠다고 마음고생 몸고생하다가 거리에 쓰러지기까지 하는것을 본 저는 울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울면서 이 글을 써놓고 갑니다....

나는 어데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이불을 밀면서 일어나 앓았다. 이불 무게조차 감당해내지 못하던 환자가 황소라도 돌려메칠듯한 기분이였다.

《현모가 또 다른 말을 한건 없었소?》

《이제부터는 장마당 패거리들과 손을 끊고 진짜 탄부가 될 결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낮이 밝어지면서 말끝을 맺지 못하는 일녀였다.

《그리고 또 뭐요?》

《...》

나의 참지 못하는 급한 성미와 독촉하는듯한 눈빛에 견디기 어려운듯 일녀는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말하면 안될거요?》

홍분한 나는 따지고 드는 어투였다. 전혀 그럴 권리가 없는 나였지만 현모가 진짜배기 탄부가 될 단단한 결심을 품고 소대로 갔다는 기쁨때문에 뜰대로 뜬 때여서 경우 가림을 할만한 여유가 없었다.

《별거 아니예요. 저보고도 장마당 생활을 접어 던지고 탄광으로 함께 가서 로동을 하면서 누님처럼 돌봐달라고 했어요. 그다음 말은 못하겠어요.》

일녀의 얼굴은 붉어질대로 붉어졌을뿐아니라 나를 향하였던 제몸마저 옆으로 돌려버렸다.

(이 녀석이 엉뚱한 수작까지 한것이 분명하구나. 자기 소대장이 홀애비라는것까지 말했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허허 하고 웃었다.

《그거 아주 좋은 말을 했구만요. 일녀동무도 로동계급이 됩시다. 로동계급이 된다는건 참 좋은 일입니다. 금년에 몇살인가요?》

《스물일곱이에요.》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소?》

《그래요. 목수였던 아버지는 50도 넘기지 못했으니깐요. 어머니도 뒤따라 돌아가시구요. 남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전선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

나는 이 젊은 녀성이 몹시 외롭다는것을 알고련민의 감정이 싹터올랐다.

우리 탄광사람들처럼 서로서로 한가정처럼 지내는 속에 끼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서인지 나에겐 이 녀성이 매우 성실하고 순진하게만 생각되였다. 만일 이런 동무가 우리 탄광에 오면 갱내 일이던 갱외 일이던 제앞에 오는 한몫은 하고도 남으리라는 믿음이 갔다.

《동무도 우리 탄광에 가서 일합시다. 현모처럼 로동계급이 되잔말입니다.》

나는 일녀가 어떻게 생각할런지 그 속내도 알려 하지 않고 제 생각부터 내비쳤다.

《현모를 잘 돌봐주세요. 그 애는 제 친동생이나 같아요.》

하면서도 자신이 탄광에 가겠다는 결심같은건 입밖에 내지 않았다.

《현모는 뛰어난 탄부가 될겁니다. 동무도 탄광에 가면 훌륭한 일솜씨를 보여서 석탄생산에 많은 도움을 줄것처럼 생각됩니다. 나라가 방금 전쟁을 겪고났으니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복구건설에 펼쳐나서야 합니다. 삽이면 삽, 곡괭이면 곡괭이, 젖은 일이면 젖은 일, 마른 일이면 마른 일, 닦치는대로 해야 한단말입니다. 동무처럼 젊은 사람이 장마당에 앉아서 떡이나 판다는건 창피한 일이란말이오.》

《...》

나의 말투가 거친데다가 건방지게 들렸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때문에 일너가 입을 봉하고 앉아있는지 아니면 탄광에 갈 의사가 없는데 내가 강권하기때문인지 아직은 명백치 않은 침묵뿐이었다.

《아예 오늘중으로 결심하는게 좋지 않겠소?》

《...》

이번에도 듣고만 있는 일너였다. 나는 이 침묵의 밑바닥에 흐르는것이 무엇인지 가늠해보려고 하였다. 입은 열지 않지만 나에게 기분으로 전달되어오는 느낌은 별반 팽팽한것은 아니었다.

《우리 탄광엔 로력도 모자랍니다. 소대마다 로력문제가 제일 큰 문제지요. 로력 다음엔 동발, 그 다음엔 레루, 그리고 또...》

뜻밖에도 나는 여기서 말허리가 잘리우고말았다.

《없는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군요. 인젠 뭐나 좀 잡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종일 굶었다던데...》

일너는 일어서더니 부엌으로 내려가서 상을 차렸다.

중도에서 말을 잘리운 나는 그동안 멧적게 앉아 있었다. 확실히 나는 말많은 사람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이 되었다.

본래의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무슨 기분에 떠서 이런 사람으로 인정되었는지 우습기도 한 일이었다.

일너는 두부절게에 죽 한사발을 받쳐가지고 들어왔다.

죽치고도 날알기가 전혀 감촉되지 않는 멀건 미음에 가까운것이었다.

《의사선생이 시킨대로 만든거예요.》

《...》

나는 본시 죽이나 미음같은건 먹지 못하는 성미여서 두부절게만 먹었다. 그런데 그것마저 입맛을 잃어서 도저히 넘길수 없었다. 입안이 쓰거워서 사탕알을 넣어도 단맛을 알아낼상싶지 않았다.

하루도 못되는사이에 아주 녹초가 된듯한 느낌이었다.

《질게 밥을 할가요?》

《그만두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먹어내지 못할것같소.》

먼동이 터오는듯 문창호지에 흰빛이 나타났다. 상에서 물러나 담배도 한대 불을 달아 물어봤지만 담배맛은 고사하고 기침만 터져서 두모금 빨아 보고는 꺼버렸다.

읍거리에서 약간 동쪽으로 떨어진곳에 있는 정

거장쪽에서 새벽대기를 흔들면서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남행렬차인지 북행렬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적소리는 나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있는가를 새삼스러이 일깨워주는듯싶었다.

눈앞엔 소대의 굴진막장이 떠올랐다. 뼈국뼈국한 정면 암석속으로 정대를 박아넣노라고 메질을 하는 동무들의 땀투성이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다.

그다음은 구멍마다 폭약을 다져넣는 드바쁜 일손들과 귀가 멍멍해지도록 지심을 흔들었다놓는 폭발과 폭연... 착암기도, 적재기도 아직은 편제량대로 없는 막장이다.

하나에서 백까지 사람의 손만이 일자리를 내고 있다. 허리 한번 펴볼 틈이 없는 동무들은 지칠대로 지치면 소대장을 찾곤하였다.

《로동과에 가봐야 하지 않아요.》

《또 그따위소리요. 소대장마다 로동과에 달려가면 그 꼴이 뭐가 되겠소. 로력때문에 소리친다고 사람을 줄줄 아요.》

《허지만 우는 아이부터 젖춘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만 떠들고 일들이나 하지요. 이제 곧 로력도 보충되고 착암기도 오고 적재기도 온단말이요.》

나자신도 어방없는 거짓말인줄 알면서 무슨 확약이나 받은 사람처럼 말한다.

폐허가 되지 않은 공장이라곤 없는 형편인데 어데서 착암기를 만들며 적재기를 만들어 보내준단 말인가? 로력은 또 무슨 로력이 있어서 소대마다 편제인원을 채워준단말인가? 탄광의 영양제식당들에서는 식모들조차 모자라서 감자껍질을 벗기지 못하는 형편이다.

하루종일 몇마디 말밖에 하지 않는 지배인마저 얼마나 골치를 앓았으면 총각녀석들을 두고 욕설을 퍼붓겠는가?

《멍텅구리같은것들, 아무데 가선들 처녀들을 하나씩 끌고오지 못해. 탄광일손이 금같은 때인줄 알면서...》

일손, 일손, 일손... 소대장들, 중대장들은 일손때문에 제 몸뚱아리도 조렸으면 하는 탄광의 하루 하루가 흘러가고있다.

나는 더이상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난 떠나야 하겠수다. 후에 한번 찾아오시오.》

나는 빨래줄에 걸어놓았던 의복들을 벗겨들었다. 방바닥만 내려다보며 앉아있던 일너가 마주 일어서며 내 손에 들린 의복들을 잡았다.

《떠나다니요? 의사선생이 3일정도는 누워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현모도 소대장을 불들고 놓

아주지 말라구 했구요.》

《...》

나는 못들은척 돌아서서 의복만 입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그대로 하는 나는 주저 앓을수 없었다.

《일너동무도 고맙구 현모도 고맙소. 하지만 나가야 하오. 소대에서는 로력이 모자라서 삽자루도 편단말이오.》

나는 이 집의 출입문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부엌문쪽으로 가서 신을 신었다. 나의 지하족 역시 깨끗이 빨아서 말린채 거기에 놓여있었다.

늦가을의 새벽대기는 차거웠다. 정거장 쪽으로 뻗은 신작로엔 나 혼자뿐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란 없었다. 더운 방 안에서 갓 나왔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자 온몸이 차지면서 땀속까지 바람이 스며드는듯하였다.

흐린 날씨는 아니었지만 마가을 바람으로 하여 쓸씬느러웠다.

허약해진 나의 등골은 오싹해지고 머리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썩하니 날아날듯하였다.

불타버린 집터들과 폭탄구덩이들을 지나 유리창 한장 변변히 끼우지 못한 정거장의 텅텅빈 대기실의 때묻은 널의자에 앉은 나는 탄광으로 올라가는 첫 차를 기다렸다. 30분은 실히 기다려야만 하였다. 아직은 내 몸이 성하지 못하여 눕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의자의 널판벽에 잔등을 대고 눈을 감은채 자신을 지탱해내고있었다.

《현모말이 맞군요.》

뜻밖의 목소리가 코앞에서 들려왔다.

내가 눈을 떴을 땐 거기에 일너가 서있었다. 나는 한동안 놀랍게 그를 바라보았다.

《...》

그가 정거장까지 나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나였다.

《뒤따라오면서 죄다 봤어요.》

《보기는 무얼 봤단말이요.》

《비틀거리느걸요. 현모는 일밖에 모르는 우리 소대장은 오금을 쓸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막장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군요. 너무 독해요.》

《...》

나는 코앞에 바투 서있는 이 건강하고 활달한 여성이 방금전까지 자기 집 아래목에 조심스럽게 앉아서 방바닥만 내려다보고있던 일너라고 믿기가 어려웠다.

《들어가자요. 이런 몸으로는 갈수 없어요. 아무리 독한 성미라 해도말이에요.》

일너는 금시 나를 일으켜세운 다음 업고라도 가려는 자세였다.

《난 소대로 가야 하오. 가야 한단말이요.》

《하지만 지금은 안돼요. 가다가 잘못돼요.》

《잘못돼도 좋소.》

그다음 나는 일너의 푸르싱싱한 기운에 놀리우는것 같은 환자의 자존심때문에 나를 돌려세울 생각은 말라고 큰소리를 치려 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저주할 기침이 터지고 온몸이 쭈서나서 두손으로 의자의 모서리를 힘껏 잡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제 길바닥에 주저앉을 때처럼 또다시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를 들기조차 힘들어졌다.

슬프게도 나는 더이상 자신의 결심을 실행할만한 몸이 못된다는것을 알고 일너의 부축을 받으며 되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너는 의사가 말한대로 사흘동안 내가 자기집에 누워서 안정치료를 받도록 해주었다.

덕분에 나는 완쾌된 몸으로 소대에 되돌아갈수 있었다.

탄광의 바쁜 하루들이 흘러갔다. 탄광의 숨소리도 날을 따라 높아졌다. 덕향탄광의 복구기는 거의 끝나가고있었다.

벌써 탄을 퍼내는 갱들도 있었다. 어제 오늘이 다르게 갱마다에서 나오는 탄차들의 왕래가 분주하여졌다.

저탄장엔 탄들이 쌓이게 되었다. 탄광의 외모 역시 전쟁전에 못지 않게 변모되어갔다.

사령탑이 세워지고 사령원들이 탄차들을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지휘하고있었다.

동발감들을 높이 실은 화물차들이 본선에서 갈라져서 분기선을 타고 와서는 분주탕을 피우며 짐들을 부리우고 실었다.

구내의 철길과 공중의 전차선들이 열기설기 이어지게 되었다.

전화선들도 막장까지 들어가고 동강났던 배관들도 이어졌다.

구락부에서는 저녁마다 영화를 돌리던가 도시의 예술단 소고대들이 찾아와서 공연들을 하였다.

잡초만 무성했던 큰길, 작은길들은 말끔하니 새로 닦아지고 폭탄에 넘어졌던 살림집이나 사무실 건물들의 벽체들도 모조리 일어섰다.

탄광아이들의 학교창문마다에도 새 유리들을 끼워넣어서 뜨는 해의 빛을 받을 때면 눈부시게 반짝이였다.

개업한 식당들에서는 고기볶는 냄새가 새어나오고 상점 매대들엔 옷감들을 꿇으려고 온 탄광 아낙네들의 목소리들이 높았다.

출력이 센 탄광지구의 유선방송 확장기에서는 인민경제 3개년계획 초과완수으로 탄광촌 사람들을 불러내는 방송원의 힘찬 선동이 밤이고 낮이고 계속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시대의 꽃향기

황성하

무릇 사람들은 청춘시절을 꽃에 비겨 말한다.
한껏 부푼 가슴에 푸르른 꿈을 안고 참다운 삶과 지향의 언덕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이니 이를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에 비겨 말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 나는 이 나라의 무수한 꽃들을 활짝 피어나게 하는 은혜로운 빗발을 두고 다시금 생각해 보군한다. 오늘 로동당시대에 청춘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그 위대하고 자애로운 우리 당의 빗발아래 수천수만의 사랑스런 꽃들이 피어나고있을진대 거기서 풍겨오는 향기 또한 얼마나 독특한것인가.

나는 우리 시대, 80년대에 피어나는 꽃들의 독특한 향기를 류레없이 거창한 규모와 속도로 일어서고있는 광복거리건설장에서 가슴뿌듯이 느껴본적이 있었다.

얼마전 나는 수풀처럼 일어선 기증기들, 펄럭이는 기발들, 산발을 흔들며 메아리치는 건설의 동음소리 등... 시대의 벽찬 숨결을 안고 일어서는 안골체육촌을 찾았다가 룡구관건설장에 들렀었다.

벌써 은백색지붕을 덮고있는 룡구관의 웅자에 정신없이 팔려있던 나는 뜻밖에도 그곳 건설자들속에서 오고가는 《신혼부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아직은 어설피고 봄비는 건설현장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그 말에 나는 의혹을 품지 않을수 없었다.

《신혼부부라니요?... 어디 있어요?》

나는 자신의 소개도 없이 옆에서 벽체미장용물탈을 섬기고있는 한 젊은 청년에게 불쑥 물었다.

젊은 청년은 나에게 리해가 간다는듯 저오기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손으로 가리켰다.

《어디라니요? 바로 여기에 함께 있지요.》

여기에?... 물려드는 나의 의혹이 순식간에 주변의 사람들을 일별해보게 하였다.

그들이 룡구관을 구경하러 왔을까? 아니면 누구를 만나려?...

아마도 신랑은 흰 와이샤쓰에 청홍빛넥타이를 매고 신부는 이 계절에 어울리는 연하고 부드러운 빛갈의 달린옷을 입었겠지...

아무리 둘러보아도 한껏 넓힌 나의 시야에는 한창 작업에 여념이 없는 단정한 작업복차림에

등근 안전모들뿐이지 내가 그러보는 그 《화려한》 옷차림을 한 젊은부부는 보이지 않았다.

때마침 나와 구면인 대대정치지도원동무를 만나서야 나는 그 신혼부부들과 마주서게 되었다.

그들은 그 많은 작업복차림속에 있었다. 분대장인 남편 최영덕, 그의 분대원인 안해는 채기숙, 건설장의 한다하는 돌격대원이었다.

얼마나 많은것이 그들을 불렀으랴.

들꽃이 가득된 숲가, 금모래 반짝이는 파도이기는 백사장, 풀향기가 물결에 실려오는 저물녘의 강변 길...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리상과 포부를 지닌 우리 시대에 태어난 청춘, 우리 당의 품속에서 한가정을 이룬 신혼부부였다.

시대가 부르고 우리 당이 바라는곳에 마땅히 생활의 뿌리를 내리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청춘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하여 이들은 여기 광복거리-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런 광복의 첫자욱이 새겨진 성지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비범한 령도에 의해 로동당시대에 또하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대서사시로 펼쳐지는 이 광복거리에, 아직은 채 정리되지 않아 울퉁불퉁한 길로 것처럼 고대하던 신혼생활의 첫자욱을 내짚었던것이다.

나는 언젠가 그들이 남몰래 일하다가 실참에 트라스우에서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잊을수가 없었다.

그토록 굵고 소란스럽던 건설장의 소음도 죽은듯 잦아버린 밤, 저멀리 주체사상탑아래 수도의 무수한 고층살림집창가에서 흘러나오는 령롱한 불빛들을 바라보던 기숙동무는 환성을 올렸다.

《어마나! 저 불빛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저 불빛아래 행복을 속삭이고있을가요?》

그의 말에 웅심동무는 동감이라는듯 머리를 끄덕이다가 웅심깊은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참 행복스러울거요. 그러나 진짜 행복한건 우리들이요. 우리 당의 크나큰 손길아래 이제 광복거리에 태어날 더 많은 불빛들을 위하여 귀중한 시절을 바치고있는 우리가 아니요.》

그렇다, 우리는 행복을 향유하기전에 창조하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가정에 있는것이 아닌가...

그러자 그들 두 청춘의 마음은 자기들의 참다

운 삶과 운명의 은혜로운 빛발, 이밤에도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창가의 불빛을 우러러 오래오래 서있었다...

나는 이 신혼부부와 언제까지고 마주앉아 끝없이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웨치고싶었다.

사람들이여! 푸른 주단 펼쳐진 봄언덕으로 행복에 겨워건는 신혼부부를 만날 때, 첫가정생활의 감미로운 세계를 안고 저녁이면 서둘러 자기 집문을 여는 신혼부부를 볼 때, 아마도 그들이상 행복한 신혼부부가 없다고 생각지 마시라.

바로 80년대의 가장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대건설장에서 신혼생활의 첫 문을 열고 보람차고 의로운 걸음을 걸으며 가장 큰 행복을 창조

하고있는 궁지로운 신혼부부가 여기 광복거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라!

그들은 청춘, 그들은 마땅히 웃음을 함뱉 머금고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이다.

자연이 키워내는 일만꽃들은 비바람에도 꺾이우고 스러질수 있어도 우리 땅이 더없이 따스한 빛발로 키워내는 이처럼 아름다운 꽃들은 폭풍속에서도 지지 않고 향기 짙은 모습으로 남아있으려니, 은혜로운 빛발아래 피어난 두떨기꽃이 키워준 그 품을 향해 아낌없이 풍기는 향기는 얼마나 독특한것인가!

미구에 태여날 광복거리와 더불어 피어나는 그 향기는 우리 땅의 품속에서 청춘들의 아름다운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해줄것이다.

발자취

백래복

한번도 만나본적 없기에

나는 너의 얼굴도 모른다

사회주의 농촌을 지원해

고향별로 달려갔다는 향옥이

허나 나는 아노라

너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된

푸른 꿈, 아름다운 리상이 무엇인지

네가 돌리던 기대앞에 서니

어쩐지 무심히 볼수 없구나

네가 갖추어놓은 수수한 공구함도

네가 한줄한줄 써놓은 작은 《기대수첩》도

반원들은 자주 네 이름을 외우더라

오락회가 흥겨운 때에도

-향옥이가 있었으면...

-《노들강변》도 멋지게 넘기더니...

어려운 일이 앞을 막아설 때도

네 이름을 부르더라

-향옥이가 있었으면...

-기술혁신 명수였는데...

유쾌한 벗들의 잔치상앞에서도

혼장을 수여받는 수여식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너를 생각하더라

반원들의 그리운 추억속에 사는 너

함께 있을 땐 몰라도

멀리 떠나간 뒤에

사람들의 칭찬 받기는 쉽지 않거니

나는 지금 생각하노라

내가 걸어온 교문과 출근길을...

내가 만났다 헤어진 사람들을...

몸은 멀리 떠나갔건만

남기고간 향기는 그윽하거니

아, 부럽구나 향옥이여!

꽃물결 설레는 유보도도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나는 자욱 남겼음이

기다리는 곳

럼충평

차창밖으로 누른빛이 든 먼 산발과는 대조적으로 철늦은 마가울 비에 젖은 산턱의 암회색 돌바위들이 묵묵히 다가왔다가 뒤로 물러가곤 했다.

낮이 익은듯도 하고 선듯도 한 풍경이다.

문득 나는 산골내기들의 억양이 센 말투로 떠들썩한 손님칸 몇개를 뒤쫓리에 달고 천태만상의 바위들이 금시 머리위로 쏟아질듯싶은 좁은 골짜기를 느릿느릿 달리던 협궤차를 회상했다. 언제나 머리맡에 흰옷자락처럼 구름발을 두르고있는 해발 천수백의 비오리령, 물살 빠른 강물이 마을 복판을 꿰지르고 흐르는 더그매... 협궤차 철길이 끝나는 거기에는 잊지 못할 모습들이 있다.

더그매는 산골마을 너의사의 귀염둥이로 태어난 나의 다감한 유년시절이 흘러간고장이다. 소환된 아버지를 따라 도소재지에 나와 살게 되었을 때 새 이웃들은 나를 산골태생이라는 의미에서 《더그매》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마을이름은 한때 나의 애명처럼 불리우기도 했다.

그러던 더그매가 오늘 내 운명의 고삐를 틀어잡고 놓아주지 않는 까닭은 무엇때문인가.

나는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마가울 찬비가 뿌려치는 차창밖에 시선을 던진채 움직일줄 몰랐다.

며칠전이었다. 과학원 파수분원에서는 새로운 내한성 키낮은 사과나무 접그루를 연구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북부 내륙지방에서도 사과나무재배를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였다. 분원에서는 앞날이 촉망되는 연구사로 지목되고있는 나에게 그 연구과제를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이에 선뜻 응하지 못했다. 바로 몇해전에 이와 유사한 내한성 사과나무를 연구하다가 쓰라린 실패만 맛보아온 나였던것이다.

독신자합숙의 빈방에서 한장의 편지가 나를 기다리고있는것은 그로부터 얼마후였다. 나이넘은 아들자식을 둔 어머니의 다심한 편지려니 생각하던 나는 갑자기 전기에라도 닿은듯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더그매... 더그매... 우정배로인의 손녀 귀옥이가 편지를 보내오다니!... 회오리치는 기억의 갈피속에서 비오리령 등판에 만발했던 들국화가 떠오른것은 그 순간이었다. 더그매땅에 사과나무를 재배하자면 2백년이 걸릴지 3백년이 걸릴지 알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 곳을 떠나올 때 마가울 찬비에 들국화꽃들이 몸부림치는 고개말기에서 북받치는 오열을 깨물고

서서 나를 내려주던 송옥임! 그가 벌써 더그매사과의 모체라고 할수 있는 새로운 내한성나무 《뿌리-1》호 연구에서 성공했다말인가.

나는 눈앞이 아찔해났다. 드센 주먹에 한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현훈증을 일으키며 떨어는 손에 펼쳐든 편지장을 망연히 내려다보았다.

신랄한 분석과 규탄, 눈물방울로 빗어진듯싶은 동글납작한 글자들이 눈을 찌를듯이 살아움직였다.

《...옥임언니는 누구보다 몇몇하게 이고장을 떠나갈수 있었어요. 그러나 엄혹한 자연의 비바람속에서 어차피 그 자연을 길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이고장사람들을 두고 언니는 갈수 없었어요. 3대혁명소조 기간이 끝난 뒤에도 스스로 그 숭고한 임무를 계속 가슴속에 지니고 복판땅에 다시 내려 온것도, 연구사동지를 따라가지 않은것도 그때문이였어요. 이런 언니였기에 시험표목들을 살려내기 위해 비오리령의 흑관과 싸우다가 발에 입은 동상이 원인이 되어 지팡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몸이 되었을 때에도 눈물을 보이거나 후회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것처럼 환하게 어린애처럼 웃으며 더그매사과가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성공에 기뻐서 울었고 더그매를 위해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언니의 그 순결한 모습앞에 울었고 이 기쁜 순간을 버리고 간 연구사동지를 원망해서 울었어요...》

나는 마음속까지 오한을 만난듯이 떨려나서 글줄을 읽어내려갈수 없었다. 편지장에는 맑은 이슬이 함뿍 어린 옥임의 모습만 가득차오를뿐이다.

그 맑은 눈은 깜빡거리지도 않고 나를 측은히 쳐다보면서 오늘의 전도유망한 연구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제날 사내다운 자존심과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비오리령을 넘어오던 기사도 아닌 한낱 애처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것이다.

편지는 내 손에 잡힌것이 역겹기라도 한듯 참으로 흘러든 바람결에 찢기듯 펄럭거리다가 발치에 날아내렸다.

나는 두손으로 머리를 부둥켜안고 꼼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일찌기 느껴보지 못한 준엄한 마음을 안고 새로운 연구과제를 받았고 이렇게 연구식물채집배낭을 메고 북부산악지구를 향해 떠났던것이다.

새로운 내한성키낮은접그루가 연구될 때 옥임이 연구한 더그매사과의 성과는 공고한것으로 될것이며 비바람이 세찬 북부내륙지대에서 더욱 절

실한 문제로 되는 키낮은 사과나무밑식재배의 전망은 현실로 될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더그매사과의 씨앗을 오랜 세월 눈비속에 묻어버리려 했다는 죄책감을 떨어 버릴수 없었다.

더그매는 지금 어디쯤인가. 아무리 눈주어 바라보아도 북행렬차의 차창밖은 뿌연 가을비의 장막을 드리웠다.

지난날 내 운명의 길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처럼 비뿌리는 가을날씨였다는 새삼스러운 생각이 갈마들었다.

대학 과수학부를 나온 내가 배치된 과학원 ㄷ지구 과수분원의 그해 가을밤에도 비가 내렸고 이따금 번개가 직일실 창문을 켜놓듯이 밝혀놓곤 했다.

그날밤 나는 직일을 췌다. 우중충한 산밑에 자리잡은 과수분원건물은 불빛 한점 없는 어둠속에 잠겼고 정원의 과일나무들도 시꺼먼 공간속에 묵묵히 서서 이따금 불어치는 바람에 몸을 떨곤 했다. 누구인가 직일실 접수구를 조심조심 두드렸다. 거물씨 줄을 달래고있던 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시름겨운 비소리, 뒤산의 컴컴한 나무숲우로 한차례씩 흘러가는 바람소리... 밤중에 찾아온것을 용서라도 빌듯이 다시금 문두드리는 소리가 조용조용 울렸다.

우비도 없이 온몸이 화락하니 젖은 웬 처녀가 희미한 외등을 등지고 접수구앞에 간신히 서있었다. 목둘레에 다보록이 드리운 소담한 머리카락에서는 아직도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아이, 미안해요. 과수분원이지요?》

《뭐 미안할것까지야.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호기심을 품고 내다보았다.

《호-마침내 찾았군요. 어떻게나 캄캄한지, 전 비오리령너머 더그매농장에서 왔어요.》

《?!》

나는 놀랐다.

《이자 더그매라고 했지요?》

처녀는 대답대신 방긋이 웃어보이며 했으나 이내 추위에 이발을 맞조으며 젖은 몸을 오싹 떨었다. 나는 서둘러 출입문을 열었다. 그 먼곳에서 비가 쏟아지는 진창길을 밤중에 대어온것을 보니 필경 급한 일일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녀는 물에 한벌 적시다싶이된 옷과 진흙투성이된 신발을 민망스레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내가 거듭 권고해서야 조심스레 들어섰다. 뜻밖에도 내앞에는 초행밤길을 이렇게 걸어온 담력이란 전혀 엿볼수 없는 애릿한 처녀가 나타났다.

숨털을 갓 벗은 햇복숭아와도 같은 아리잠직한 얼굴에서 수줍음을 담은 맑은 두눈이 유순하게 빛나고있었다.

《힘자라는것 도와드리지요. 무슨 일로 왔습니

까?》

처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차분히 쓸어넘기고 나서 얼굴에 홍조를 담고 찾아오게 된 사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더그매에서도 사과농사를 지어보려고 하나 해밭고가 높기때문에 나무들이 모두 겨울피해를 입는다는것, 자기는 과수에 대해 잘 모르다니니 애만 탄다는것, 지난해 봄에 평북지방의 식물생리를 연구하던 이곳 과수분원의 권박사가 자기네 마을에서 며칠 묵어갔는데 겨울피해방지에 대한 권선생의 조언을 듣고싶어 이렇게 찾아왔다는것이였다.

나는 처녀가 말하는동안 줄곧 그의 얼굴에서 놀란 눈길을 떼지 못했다. 아지랑이 저쪽에서 반짝이는 나의 동요시절을 한몸에 안고온듯이 느껴지는 이 호듯한 몸매의 처녀가 권박사가 말하던 바로 그 북관처녀란말인가.

내가 권박사의 조수로 갓 배치되어왔을 때 학자는 비오리령너머에서 새로운 내한성 사과품종을 연구하고있는 한 북관처녀에 대하여 말한적이 있었다. 그는 마치 떠보는듯하는 눈길로 《기특한 처녀야. 이런 젊은 세대를 만나고나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마음이 놓이거든. 우리 과학기술의 앞날을 두고말이야.》 하고 말했었다.

연방 코소리를 쿵쿵거리며 또 무엇이랴 중얼거리던 로인은 그때까지 앞에 서있는 나를 비로소 처음 발견한듯한 눈으로 쳐다보며

《가보시오, 가보시오. 아무 일도 아니요.》 하는 것이였다. 그리고는 우묵한 두눈에 갑자기 심한 피로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나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북관처녀 앞에 무시당하듯한 기분을 어쩔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처녀가 눈앞에 나타난게 아닌가. 그러나 나의 상상에 남아있는 북관처녀는 이 동무처럼 애리애리한 처녀가 아니라 북방의 사나운 자연속에서 몸도 마음도 굳세여지고 담대해진 그런 모습이었다. 이 처녀의 어디에 권박사가 말하던 그런것이 숨어있는지 알수 없었다.

처녀는 권박사를 만나는데 자기 운명이 달려있기라도 한듯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중앙연구소에 소환되어간 권박사소식을 알려주어 처녀에게 실망을 주게 되리라 생각하니 저으기 마음이 언짢아졌다.

《그때문에 이렇게 왔단말이지요-》

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헌데 선생은 지금...》

《아니, 전 여기서 아침까지 기다릴수 있어요.》

처녀는 급급히 말하고나서 내가 딱딱하고 공식적인 태도로만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라는듯 방긋 웃어보이였다.

나는 말을 에둘렀다. 더그매와 같은 고지대에서 사과나무를 재배할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연구

되지 않았다는것, 권박사도 이에 대해서는 속수 무책일것이니 꼭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고 처녀를 설복했다. 처녀는 가만히 한숨을 내그었다.

《여기 과일나무들은 아직 있도 지지 않았는데 우리 시험포전 나무들은 벌써 동면기에 들어갔어요… 아니, 권선생님은 꼭 좋은 조언을 주실거예요.》

나는 슬그머니 마음이 안달아났다. 그래서 권선생소식을 간단히 설명해주고나서 입을 다물었다.

《소환되다니요?!》

처녀는 그럴수 없다는듯이 내 얼굴을 뵈히 쳐다 보았다.

한동안 소연한 비소리만 들렸다. 그 비소리는 내 마음을 허비는것 같았다.

처녀의 간절한 눈빛이 아직도 쳐다보고있다는 생각은 나를 참지 못하게 했다.

《동문-참, 선생이 소환되어갔는지 않소. 겨울 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거야 새로운 내한성 사과나무를 연구한다는 동무자신이 찾아 내야 할게 아니요.》

나는 사무탁앞에서 일어섰다.

처녀는 귀뿌리까지 빨개져서 갑자기 소심해진 소녀처럼 절상에 주저앉았다.

《네, 잘 알았어요.》

무안을 탄 눈동자에 어린 실망은 흐려진 얼굴에서 울음이 맺힌 도도룩한 입술로 옮겨갔다.

당황하고 계면쩍어진 나는 처녀더러 잠깐 앉아 있으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사실 난 저 동물 노엽힐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는 차거운 비방울이 가로 뿌려치는 진창길로 함속죽을 향해 뛰어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나는 무엇때문에 짜증을 냈던지 후에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한마디로 찍어말할수 없었다. 권선생앞에서 내 얼굴을 뜨뜻하게 만든 양갓음이었는지? 처녀를 도울수 없다는 생각, 천리길을 실망만 안고 돌아가게 될 처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불안초조한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고향처녀와 통성하는것으로 화해하리라.)

그러나 내가 고향처녀를 위해 우비까지 갖춘 함속관리원아주머니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직일실은 텅 비어있었다. 다만 반나마 젖은 수첩장을 찢어 거기에 차돌처럼 또박또박 박아쓴 글쭉지가 사무탁우에 정히 놓여있을뿐이었다.

《밤중에 찾아온 저를 용서하세요. 시간이 급해서 량해도 못구하고 갑니다. 시각을 다투는 일들이 시험포전에서 저를 기다린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글쭉지를 들여다보고 또 보았다.

밖에서는 그냥 마가울 찬비가 출출 내리고있었다.…

이렇게 나는 가을비 내리던 그날밤에 송옥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는 나한테 처음으로 비바람이 세찬 들판에 나섰다가 발견한 한떨기의 생생한 들국화를 다시 잃어버리고만듯한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다. 그러나 자기 사업에 대한 그 어떤 단순한 열정이나 애착만이 아닌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사람만이 그날밤처럼 그렇게 할수 있다는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회상에서 깨어난 나는 비에 함초롬히 젖은 호릿한 몸매의 처녀가 빈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는것을 보았을 때에야 렬차가 한 중간역에 멎어선것을 알았다. 처녀는 얼굴모습은 달랐으나 어제날의 옥임을 생각해 했다.

(흘러간 세월이 되돌아올수만 있다면…) 나는 어리석은 생각에 잠긴 자신을 질책하며 주먹으로 미간을 째 늘렸다.

(그래, 우린 그 세월의 저쪽 끝에서 다시 만났었지.)

나는 렬차의 먼 기적소리를 귀결에 흘려보내며 다시 회상을 더듬었다.

이듬해 봄이였다. 나는 그 지방에 출장가게 된 기회에 우연히 더그매에 들렀었다.

평야지대에서는 씨불임이 한창이었으나 북관땅에서는 봄아씨가 발붙이기를 퍼그나 조심스러워했다. 비오리령을 넘어서자 내 마음조차 이 봄처럼 조심스러웠다.

나는 화살표가 붙은 길가의 표식말뚝곁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더그매쪽 상공에 마치 별에 녹아내리듯이 아련히 펼쳐진 북관하늘을 향해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를 깊이 들여마셨다. 아직 비오리령 골짜기마다 흰곰처럼 눈무지들이 무덕무덕 웅크리고있고 거무칙칙한 흑토우에서 눈석이물이 쿵쾅거렸으나 폐부를 가득채우는 공기는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다. 나의 태가 묻히고 동요시절의 꿈이 깃든 고향이래서만이 아니였다. 감감한 가을밤에 직일실 접수구를 조심조심 두드리던 소리가 금시 들려오는듯싶고 실망을 안고 되돌아간 북관처녀의 모습이 그렇듯 생생히 뇌리속에 인박혀있기때문인지…

마을어귀 물살빠른 강가에서 피나무껍질로 엮은 소옹구에 두엄을 퍼싣던 한 로인이 나의 행색이 시골에서는 보기 드물게 멀끔해보였던지 이마 위에 손바닥을 얹고 바라보았다. 그와 나란히 중학생복을 입은 처녀애가 서있었다. 마치 로목과 그 로목에 돋은 햇순과 같은 그들의 모습은 어찌나 마음을 다감하게 만들었는지 나는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으며 다가갔다.

로인은 검버섯이 돋은 커다란 귀박죽을 내 입부리 가까이에 바투 가져다 대고 몇번이고 되물더니 크게 고개를 주억거렸다.

《원-이런 고마울데라구야. 임잔 그럼 우리 옥

임기사를 돕자구 더그매에 나왔겠수다? 귀한 사람이 오자구 아침부터 까치동네가 들썩했나보군.》

나는 어이가 없었으나 말귀가 절벽인 로인인지라 결의 처녀애를 돌아보았다. 해맑은 얼굴에 볼우물을 판 처녀애는 할아버진 늘썩 그런걸요 뭐-하는듯한 눈웃음을 짓고있었다. 로인의 주글주글한 얼굴에도 호합진 웃음발이 그들먹이 실렸다.

《옥임기사는 방금 시험포전에 올라갔수다. 노상 웃음거리가 없어 몸살인 프락트르운전수녀석들이 이 옹구바리를 보고 허리가 부러져라 웃어대지만 내 늙은 힘이나마 그 애한테 보탬이 될가 해서 이렇게 째짤이 돕는거라우.》

가파로운 산자락길에 옹구바리소를 앞세우며 로인은 못내 만족스러운듯 껄껄 웃었다.

가면서 그는 내쳐 혼자 말했고 나는 들었다.

《지금은 우리 더그매아이들도 온 나라 아이들과 똑같이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과일을 간식으로 먹으면서 자라나지만 그 몸쓸놈의 왜놈세월엔 과일이란 말조차 몰랐수다. 그래서 아이때부터 벌써 더그매토질병이라고 하는 괴혈병에 걸려 피를 쏟구 이발까지 다 고삭아빠져 나이 사십도 되기전에 보기 흉한 늙은이로 패버렸다우. 오죽하면 <젊은 호몰때기>를 보려거든 더그매로 가라는 흉한 말까지 다 생겨났겠소. 버림받은 인생버러지루 살아야 했던 더그매사람들의 설움많은 지난날을 다 말해 뵈하겠소...》

우리 옥임기사는 그 몸쓸놈의 세상에서 당한 더그매사람들의 상처를 자기 몸에 난 상처처럼 아꼈다우. 어린 대학생체네가 혁명소조원으로 내려 온 날 이 늙은것부터 찾아 험한 손을 꼭 붙잡고 무슨 보배라구 자꾸 쓰다듬질 않겠나.

<할아버지, 절 손너루 치구 많이 가르쳐주세요.

더그매사과를 꼭 만들어 지난 세월의 아픈 상처 두 셋구 나라부담도 한가지 덜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자랑이 되게 더그매사과를 꼭 먹이자요.> 하고 곡진하게 말하지 않겠나.

나로 말하면 젊은 시절부터 이 사나운 풍토를 길들여 어떻게 하나 사과농사를 지어보자구 아글타글해왔수다. 우정배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오다. 조부되는 사람이 갑오년관리때 빠치구 정배살이 오더니 오늘은 그 손자가 사과나무를 더그매땅에 정배살일 시키려 한다구 모두 날 우정배, 우정배 했다우. 그래서 인제 늙은 몸에 우정배란 이름만 하나 더 붙는가 했는데 소조원체네 말을 듣고보니 머릴 들수 없었수다...

지난 세월의 상처를 씻자구, 애들에게 고향자랑이 되게 더그매사과를 먹이자구- 난 이 말만으로도 소조원체네를 업고 다니고싶었수다.》

로인의 눈굽이 척척히 젖어올랐다.

《더그매사람들은 지금도 옥임기사를 우리 소조원이라구 부른다우. 그 앤 당앞에 다진 3대혁명

소조원의 결의를 수행하기전에는 여기를 뜰수 없다면서 대학졸업장을 타안자 울봄에 고향도 아닌 이 북관땅에 다시 내려왔지요. 그 앤 농산기사라우. 관리위원회 생산지도원이라는 중한 사업을 맡아안고 바빠 지내면서 더그매사과까지 연구하느라니 그게 조련하겠수?... 더그매마을에 보배가 굴러들었지!》

(그런 동무였구나!)

권박사가 각별한 사랑을 담아 그저 북관처녀라고만 한 그가 3대혁명소조원이었던줄은 꿈에도 모르고있는 나였다.

이 새로운 리해는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 잇을수 없는 가을밤에 되돌아간 북관처녀의 가슴속에는 시대의 전위라는 높은 책임감이 간직되어있었던것이다.

성수가 난 로인은 나지막한 언덕우에 올라서자 입에 손오가리를 해대고 소리쳤다.

《옥임이야-》

멀리 하늘끝까지 뻗어간 비오리령 산줄기들이 길게 메아리쳤다.

《옥-임-이-야-아-아-》

우로인은 피나무등결에 얼추 소고삐를 휘감아 놓고 매저지나무의 앙상한 관목숲아래로 허둥지둥 달려내려갔다.

(설마 날 알아보기가 하겠는가.)

나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로인의 뒤로 따라 내려갔다.

진곤색 솜옷을 입은 처녀가 이쪽을 등지고 묘목밭에 서있었다. 첫눈에도 벌써 어린 나무들이 모두 겨울피해를 입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할아버지, 묘목들이 또 이 모양이 됐군요.》

등뒤로 다가선 로인은 손너를 타이르듯 입을 열었다.

《나도 보았다. 자, 인사나 하렴. 우리 일을 돕자구 기술자 한분이 오셨구나.》

그 순간 나는 맑은것이 한가득 피여오른 처녀의 반신반의하는 눈과 마주쳤다. 고원의 별과 바람에 그슬린 감스레한 얼굴에 놀라움과 그 다음엔 썸썸웃듯 솟구쳐오르는 기쁨이 확-피여올랐다.

《아-니?!》

옥임은 나를 알아본것이다.

나는 가슴이 세차게 설레었다.

《잘 있었소. 북관처녀동무.》

옥임은 어리둥절해진 로인도 잊은채 한달음에 언덕위로 뛰어올라왔다.

《아이, 우리 더그매에 내려오셨다구요?!... 야-정말!》

처녀는 수줍음도 잊고 내가 내민 손을 꼭 잡은채 소녀처럼 선자리에서 쿵쿵 뛰었다. 초롱불을 담은들 이보다 더 맑겠는가. 그의 두눈은 기쁨으로 빛나고있었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젖은 수첩장에 차돌같은 글

을 또박또박 쪼아박아놓고 사라져버린 그날밤의 고향처녀로 하여 뭉쳤던 감정이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이렇게 오실줄은... 정말 고마워요!》

그만에야 제 정신으로 돌아온 나는 구원이라도 청하듯 당황한 눈길로 로인을 찾았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오해를 가져온 장본인인 로인은 고볼통에 엽초를 쑤서넣고 뿔뿔 빨다가 자기는 귀가 어두워 잘 알아듣지는 못할망정 무엇이든지 다 알고있다는듯이 빙그레 웃음발이 퍼진 얼굴로 나의 시선을 맞았다.

나는 옥임에게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것을 설명할수가 없었다. 그만큼 처녀의 기쁨은 순진하고 열렬했으며 나의 심장을 세차게 뒤흔들어놓았다. 또다시 실망을 주어 그의 작은 가슴에 그날밤의 찬비와 같은것을 뿌려준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민경호라고 불러주.》 하고 나는 그에게 덜렁한 자기 이름을 소개하였다.

그렇다. 그날밤부터 나의 가슴은 이 북관처녀로 가득차있었던것이다. 옥임이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팔을 걷고 도와주고싶고 기쁨을 주고싶고 그가 바라는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고싶은 열렬한 충동을 나는 말로써 설명할수 없다.

(옥임동무와 함께 고향땅에 첫 과일숲을 이루어 놓자.)

그때엔 권선생도 우뚝한 두눈에 심한 피로감을 담고 나를 대하지 못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더그때로 내려갔다. 동무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 그때 나는 더그때가 설사 북극의 얼음바다우에 있었다래도 그렇게 했을것이다.

더그때는 나를 친혈육처럼 맞아주었다.

우정배로인은 나의 등을 다독여주며

《원 사람들, 진작 더그때내기라구 할것이지. 상냥한 너의사의 조꼬만 아들이가 더그때사람들이 저저마다 꺾어주는 들국화를 한아름 받아안고 저 비오리령에서 다시 오마고 쨍쨍 소리치며 넘더니-》 하고 자못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해했다. 순간 긴 살넝싹에서 흑진주처럼 반짝이던 옥임의 눈동자는 고향의 들국화꽃 모습으로 내 가슴에 깊이 자리잡았다.

우리는 비오리령의 해발고를 따라 무려 여라무 군데나 시험포전을 차려놓고 사과나무의 풍토순화부터 연구했다. 그것은 어려운 탐구의 나날이기도 했고 시와 같은 낭만적인 시절이기도 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서로의 눈빛 한점, 얼핏 스쳐지나는 한가닥 미소에서도 그 의미와 속생각까지도 알아 맞히게 되는 가까운 사이로 되었다. 언제 한번 터놓고 서로의 마음을 헤쳐보인적은 없었으나 둘의 심장은 말하지 않은 그 감정을 알고있었으며 가슴속 깊은곳에 소중히 숨겨둔것으로

하여 더욱 순결무구했다.

북관땅의 거친 바람에 살결이 가무스름해진 이 처녀보다 더 훌륭한 처녀를 나는 상상할수 없었다.

피나무꽃이 구름처럼 피어날무렵 꿀냄새에 머리가 뻥해진 우리가 서로 취하여 거닐던 숲속 오솔길이며 비오리강의 맑은 물가며 그리고 옥임이가 빨개진 자기 얼굴처럼 탐스럽게 익은 딸기바구니를 내 가슴에 안겨주던 고산지대의 야생딸기밭가에도 이슬은 내리고 그때처럼 새들도 우짖으리라.

그때 우리는 힘든줄을 모르고 일했다. 우정배로인을 비롯한 더그때사람들도 우리 일을 힘껏 도왔다.

우리앞에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던것은 아니었다. 《비오리-1》라고 이름지은 우리의 공동연구는 첫걸음부터 심술같은 자연의 도발에 부딪쳐 시련을 겪었다. 해토가 늦게 오고 서리가 일찍 내렸으며 겨울에는 비오리령도 몸을 떠나는 강추위와 수십길 끝짜기를 하루밤사이에 평평하게 만드는 폭설, 눈보라가 천지를 삼켜버리곤했다. 애써 구해다 심은 나무모들은 아무리 피복제를 두텁게 싸주어도 한해 겨울을 무사히 넘기지 못했다. 이렇게 한해두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고원의 비바람에 거칠어진 내 볼편에도 수염발이 꺼무스름해지고 굵어진 손매듭사이로는 썩살이 배겼다.

《비오리-1》 연구의 성공, 결혼... 그것은 생각만해도 행복으로 숨막히게 하는것이였다. 과연 그 날은 언제 올것인가.

나는 일손을 놓고 생각에 잠기는 때가 드문해졌다.

3년째 봄이 왔다. 령아래 시험포전에서 한대의 어린 사과나무가 겨울을 이겨냈다. 따스한 봄별을 향해 모진 겨울동안 시달려온 어린 가지를 가냘프게 흔드는 나무를 바라보며 우리는 새로 태어난 생명체라도 맞이한듯이 기뻐했다. 오랜만에 첫자식을 보게 된 부모의 심정도 이때의 우리 마음에는 닿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첫순간의 흥분이 가라앉자 나는 뜻밖의 발걸앞에서 당황해났다. 이 시험포전에서 더그때까지는 아직 수십의 해발고가 놓여있다. 그러나 아직 앞으로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할지 그것은 예측할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의기소침해졌다.

옥임은 벌써 성공을 눈앞에 두기라도 한듯이 기뻐했다. 3년생 어린 나무를 웃음결반 눈물결반 들여다보고 또 보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한옆에 물러서서 어린애처럼 웃고있는 처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피라는 탐구의 결과가 내가 것처럼 보고싶던 이 처녀의 기쁨을 마사 버리는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울적해났

다.

《아니, 왜 그러세요?》

내 얼굴을 쳐다본 옥임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이때의 그의 모습은 때아닌 봄벌에 놀라 활짝 피어난 꽃송이가 이슬에 씻기운듯 생생한 순결과 아름다움으로 내 가슴을 흔들어놓았다.

초록이 물들어가기 시작한 숲속에서는 산새들이 꿈속에서처럼 우짚었다.

나는 무엇을 말하려함인지 자신도 모르면서 한 발짝 다가섰다. 가슴이 못건디게 방망이질하고 숨결이 안타깝게 가빠오르기만 했다.

《옥임이-》

난생처음 불리보듯하는 목소리가 나한테도 얼마나 애처롭고 가련하게 들렸던지 가늘게 몸을 떨었다. 그러나 옥임은 생긋 웃이보이고나서 어디 날 잡아보란듯이 풀밭위로 날렵하게 달려갔다. 새처럼 날쎈 그의 머리꼭뒤에서 타는듯한 연분홍 나이론수건 끄트머리가 삼각기발처럼 나뭇기다가 한길씩 자란 진달래관목숲뒤로 사라졌다. 잡힐듯말듯 옷자락이 나무그루 사이로 얼른 거리고 가무스름한 종아리가 풀덤불속에서 반들거렸다.

령길에 나서자 처녀의 힘빠진 동실한 어깨가 나른해지며 나의 앞가슴에 안길듯이 부딪쳤다.

《아이, 말하지, 말하지 마세요. 전... 다 알고있어요.》

나를 쳐다보고있는 옥임의 행복에 찬 눈은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령길이었다. 머리에서는 한껏 파스해진 봄벌이 간지럼을 피웠다.

우리는 아이들처럼 단순해지고 명랑해져서 손을 잡고 걸어갔다. 길아래 계곡에서는 물소리가 청청했다. 맞은편 벼랑턱에서는 울긋불긋 진달래가 웃고있었다. 하늘도 땅도 우리의것이었고 우리를 축복하여 자연은 꽃피고 살랑대고 미소짓고 있는것이다.

《옥임동무, 난 아마 집에 다녀와야 할것 같소.》
《?》

《누굴 보러 오라는 어머니의 편지가 왔댔소. 나도 때가 됐다는거지요.》

《호- 난 또, 그럼 가보시죠 뭐-》

옥임은 재미있다는듯이 생글생글 웃었다.

《그렇게 웃을 일은 못될걸?》

옥임은 정찬 눈매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귀밀을 살짝 붉히며 소심해진 목소리로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전 아직 3대혁명소조원으로서 당앞에 다진 자기의 결의를 수행하지 못했어요. 소조기간이 지난지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도말이에요. 더그때에 사과꽃을 피워놓은담에, 그다음에 안되겠어요?》

나는 허거프게 웃었다.

《2백년, 3백년 후에말이요?》

《아이참》

옥임은 웃었다. 나는 오늘 시험포전에서 우리를 기쁘게 한 사과나무가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설명했다. 옥임은 눈길을 피했다.

(옥임이도 알고있었구나.)

그렇듯 명랑하게 자기의 기쁨의 세계에 나를 끌어들이는 처녀가 방금전의 옥임이 아니었던가.

순간 나는 무엇인가 나때문에 그가 불안해하고 있다는것을 어렴풋이 감촉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포착하려고 애썼다.

《난 요즈음 이따금 두려워지군하오.》

옥임은 정색한 나를 조심히 쳐다보며 걸음을 멈춰세웠다.

《어떤 의미에서말인가요?》

《생을 랑비하는것 같아서.》

옥임은 눈자리가 나도록 나를 쳐다보았다.

《롱담이시죠?》

나는 목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옥임은 눈길을 떨어뜨리고 입술을 감빨았다. 내 손안에서 그의 조그마한 손이 폼지락거리다가 힘없이 빠져나갔다.

한쌍의 노루가 서로 쫓고 쫓기우며 정적이 깃든 령길에 나타났다가 우리를 발견하고 도로 숲속에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제사 우리는 둘다 아직도 령길가운데 서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웬일인지 갑자기 게면쩍어졌다. 그래서 약속이나 한듯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뽕마루를 향해 발을 옮겨놓았다.

물론 그 이후로는 우리사이에 더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 그러니 그날 령길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가슴속에 그냥 남아있었으며 그때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어느 순간이나 계속하고있다는것을 느끼는것이였다. 이것은 우리 둘을 다 괴롭혔다.

그해 여름에 나는 이 지대의 기후풍토적 특성에 맞는 돌배, 산딸기, 매저지 등 야생산과일을 자연상태에서 재배할데 대한 주제의 논문을 썼다.

잡지에 자주 나타나군하는 친구들의 논문이 나를 초조케 했던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옥임에게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논문에서 하려고 했던것도 사실이였다.

잡지에 실린 논문을 보고난 옥임은 서먹한 표정으로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놓았다.

《축하해요.》

그의 입가에는 한가닥 가냘픈 미소가 그려졌다가 사라졌다. 논문에는 그만이 감촉할수 있는 《비오리-7》에 대한 나의 비판적인 견해가 반영되어 있었던것이다.

그해 겨울은 엄혹한 계절이였다. 강추위가 초봄까지도 계속되였다. 전해 겨울을 이겨냈던 그

한대의 사과나무마저 추위에 얼어죽고말았다.

만물은 이 무서운 시련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쳤다.

옥임은 어깨를 떨어뜨리고 죽은 사과나무앞에 앉아있었다. 지난해 봄처럼 산숲에서 메세들이 우짖고 산골진달래가 철없는 아이처럼 웃고있었으나 생명의 탄력을 잃어버린 어린 사과나무는 하늘을 향해 원망이라도 하듯 바람결에도 가지를 흔들지 못했다.

이제는 기력이 다진하고 눈까지 어두워 별로 바깥출입을 못하는 우정배로인이 손녀 귀옥의 부축을 받아가며 령밑으로 내려왔다. 그는 자기의 생김새 같은 고불통을 입에 물고 뽀뽀 빨았다.

《애, 옥임이야.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일이면야 내가 왜 이 더그매땅에서 늙어오도록 못만들었겠느냐.》

로인은 고불통을 돌바위에 대고 툭툭 털었다. 그래도 옥임은 반응이 없었다.

로인은 발고랑같은 주름살로 가득찬 얼굴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가 나한테서 무엇을 바라는지 나는 알고있다.

그러나 나는 옥임이한테 고무로 될 말을 한마디도 찾을수 없었다. 지난해 봄에 여기 령길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죽은 나무가 대신해서 해주고있지 않는가. 이 엄연한 현실앞에서 자신을 기만하면서까지 마음에 없는 말로 옥임을 위안하고싶지는 않았다. 옥임이도 이것을 알고있을것이다.

사실 우로인은 지금 우리사이에 어떤 대화가 말없는 가운데 오고가는지 모르고있다.

나는 로인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듯싶은 지긋은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넘기며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우정배로인은 노한 표정으로 하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거칠것 하나 없는 북관하늘을 향해 탄식하듯 입을 열었다.

《사람은 뿌리내리고 살지만 어쩌서 사과나무만은 이 땅에 뿌리박지 못한단말인가!》

그의 파뿌리같은 수염이 바람에 흩날리고 갈아빈친 흑토처럼 거무칙칙한 얼굴에 분노의 표정이 번져갔다.

《아무리 사나운 풍토라 할지라도 사람이 이기지 제가 이기겠냐? 애 옥임이야, 또 심자꾸나 또!》

로인은 손녀 귀옥이에게 하던 때처럼 옥임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눈물이 글썽해진 옥임은 고개를 들고 로인을 쳐다보았다. 로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였다. 그리고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옥임의 두볼에 패운 눈물자국을 훔쳐주었다.

《할아버지!》

옥임은 로인의 한생이 갖든듯싶은 그 북두갈구

리같은 험상한 두손을 모아잡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담듯이 와락 얼굴을 묻었다.

나는 찢어질듯한 의혹이 어린 귀옥의 시선을 등뒤에 느끼며 정신없이 매저지나무관목숲속을 헤쳐나갔다. 앙상한 나무가지가 얼굴을 핥귀고 옷자락을 걸잡아채며 한사코 잡아끌었으나 나는 얼마나 사람처럼 향방도 없이 걸어갔다. 우로인은 옥임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줄수 있는데 어쩌서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단말인가. 《비오리-기》연구가 허망한 꿈이란건 현실로 되었는데 어쩌서 나는 그 진실을 말해서는 안된단말인가.

나는 옥임이한테서, 우로인한테서, 어린 귀옥이와 이 북방의 사나운 향토한테서까지 버림받은듯한 쓰라린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번민은 밤새껏 나의 잠자리를 괴롭혔다. 며칠만이라도 조용한곳에서 머리로 쉬우고 복잡해진 생각도 정리하고싶었다.

나는 집에 다녀오려고 말미를 얻었다. 그러나 이 길도 나를 편안히 놓아주지 않았다.

꽤나무지랭이에 의지하여 새벽동구밖에 나선 우정배로인이 나를 멈춰세웠다.

《휴가야 받아야지. 그런데 옥임기사한테 술한 일감을 맡기고 가는게 마음에 걸리지 않나?》

《...》

못갈길을 떠난것은 아니건만 나는 갑자기 입이라도 열어볼듯 대답을 못했다.

로인은 집어삼킬듯이 노력보았다.

《말해보게. 옥임이 그 애가 운것이 그 사과나무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소조원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향도 아닌 이 북관땅에 내려와 당에서 바라내대로 일해보자고 아글타글 애쓰는 그 진정성이 눈물겹지 않나말일세. 그 마음을 그놈의 죽은 사과나무처럼 배반하고서야 나나 임자가 무슨 더그매대기구 량심바른 인간이라구 말할수 있겠나.》

나는 물기가 오른 얼굴을 들었다.

(버림받은거야 내가 아닌가.)

로인은 서리빛이 도는 눈길로 잠을 깬 새벽강물 소리가 청얼대는 비오리강쪽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온 북관땅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있듯이 시력이 어두워진 로인답지 않게 두눈은 산촌의 새벽노을을 담아 황황 타올랐다.

《난 옥임기사를 대할 때마다 이 백발을 훑어버리구 다시 일하는 본세를 배우구싶단말일세... 태를 묻어서만 고향이구 생각날 때 임자처럼 찾아온다고만 해서 고향이라구 생각지 말게.》

로인은 은발의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보이고 나서 꽤나무지랭이에 의지했던 몸을 곳곳이 가지려고 애쓰며 마을쪽으로 지척지척 걸어갔다.

(날 이해하여주는 사람은 없구나.)

나는 령을 어떻게 넘었는지 알수 없었다. 무었에 쫓기듯 협궤차에 뛰어올라 조용한곳으로, 조

용한곳으로 어서 나를 실어다주기만을 빌었다.

보름동안이나 나는 무엇을 묻는듯한 어머니의 시선을 피해 공원과 강언덕에 나가 바삐 흘러가는 구름장을 쳐다보며 지나온 나날에 대하여, 앞날에 대하여 생각했다. 벌써 애기의 아버지가 된 한 친구는 안해의 고밀고밀한 손자육이 엿보이는 정갈한 서재에서 학위론문을 준비하고있었다. 더그대로 돌아올 때 나는 심하게 들추는 협궤차 구석에서 그동안 몰렸던 피곤한 잠에 떨어졌다. 꿈에는 비오리령 등판에 말없이 서있는 옥임이가 보였다.

령을 넘어섰을 때에는 저녁무렵이었다. 지름길을 택하고 비오리강상류의 여울을 건넜다.

나는 대안에 잔조롬히 우거진 고리버들가지를 되는데로 후려놓고 주저앉았다. 발에 양말 짝을 꿰는데 갑자기 여울쪽에서 너자의 외마디비명소리가 한번 울리고 조용했다.

어스름이 깃든 강북판에서 한 너자가 센 물살에 휘말려들고있었다.

나는 등골이 선평하여 저도 모르게 벌떡 뛰쳐 일어났다. 그아래는 물굽이치는 깊은 소였던것이다.

《여-동무-덤비지 말고 한자리에 서있으란말이요. 한자리에!》

강물에 뛰여든 나는 죽을 힘을 다하여 물살을 가르며 나갔다. 그러나 그 너자는 벌써 어둠이 내려앉아 시꺼멓게 보이는 물굽을 향해 침병거리며 점점 더 위험구역으로 내리쏘리고있었다.

(젠장, 어디로 자꾸 가는거야.)

내가 물속에서 그 너자의 팔소매를 와락 잡아채어 끌어올렸을 때 또하나의 검은 물체가 눈앞에서 숨박꼭질하며 떠가고있었다.

그 너자는 내 손을 뿌리치며 몸부림쳤다.

《배낭을... 내 배낭을...》

《?!》

흩어져내린 것은 머리카락 밑에서 절망에 찬 옥임의 얼굴을 알아본 나는 아연했다.

물주머니가 된 배낭을 한쪽 어깨에 멘 내가 한 손으로 옥임을 부축하여 이끌고 강기슭에 나왔을 때 린딩어리 같은 달이 조용히 내려다보고있었다. 나는 다리가 휘청거려 금시 쓰러질것만 같았다. 몇번이고 입안에 쓸어든 물모래를 뱉어냈다. 오도카니 서서 나만 바라보고있던 옥임의 새파랗게 언 불편을 타고 야들야들한것이 달빛에 반짝이며 도르르 굴러내렸다.

《경호동무!》

나는 기슭에 벗어던졌던 양복저고리를 그의 어깨우에 씌워주었다. 그와 헤어졌던 이 며칠어간 이 몇달, 아니 몇년이나 되는듯이 느껴졌다.

《옥임인 정신이 나갔어. 이 배낭이 뭐라구 물굽에 덩벼드나말이요.》

나무라는 내 말에 만시름을 다 놓은듯 차분히 웃어주던 옥임의 모습은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우리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옥임은 웬일인지 한쪽발을 그을듯이 간신히 옮겨놓고있었다.

《사실은 토론하려고 하했는데-》 하고 옥임은 주저주저하며 말꼭지를 뗐다.

《암만 기다려두 경호동문 오지 았구, 파종시기는 닥쳐오구... 그래 혼자결심으로 이웃군에 나가 매지종자를 얻어오는길이에요.》

《매지종자요?!》

《우리 손으로 접그루를 생산하고 눈접해보자구요.》

《...》

이 매지종자때문에 소용돌이치는 물굽을 향해 제 정신없이 따라들어갔단말인가.나는 갑자기 전신의 맥이 쑥 빠지며 한쪽 어깨의 배낭이 천근무게로 내려누르는듯한감을 느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왕복 백여리 산골길에 발까지 상하고 애써 그것을 감추려 하는것이다.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피로와 무거운 발을 천천히 옮겨놓았다. 이 한걸음한걸음이 옥임을 깨우쳐줄수만 있다면 나는 백리라도 입을 다물고 걸었을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난 동무도 인젠 교훈을 찾았으리라 믿고싶었겠소. 한해 겨울을 이겨낸 나무모마저 못견디는데 그 연약한 접눈이 추위를 감당해낼것 같소?》

《...》

옥임은 호-한숨을 내쉬었다.

《우로인이야 몰라서 또 심자고 했겠지만 동무까지 이렇게... 섭섭하오.》

옥임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밀랍처럼 창백했다.

《할아버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니?!》

나는 철령하여 그자리에 멈춰섰다. 새벽빛을 밝으며 마을쪽으로 지척지척 걸어가던 보름전의 모습이 떠올랐다. 바위짐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처럼 이 더그대땅에서 늙어오면서 한생을 사나운 풍토를 길들여보려고 애써온 로인이었다. 이제 그한테서 남은것이란 무엇인가.

소연한 물소리는 일찌기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말해주듯 적막한 공간에 가득 차서 로인을 잃은 슬픔을 하소연하며 주절주절 흘렸다. 그런데 옥임이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단말인가.

옥임은 입을 열었다.

《그럼 우로인의 한생은? 그가 남겨놓은건 도대체 어디에 있소?》

《어쩔, 어쩔 할아버지의 깨끗한 넋을... 동문...》

옥임은 까딱 았고 서서 피가 지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금시 무엇인가 밀고나오려는것을 감쳐물

고 있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때 나를 지켜보던 그 눈매, 그 모습, 구슬같은 것이 뽀아니 피어오르던 눈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나는 우로인의 성실한 한생을 모욕하고 더그매 사람들을 모욕하고 옥임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만 술취한 사람처럼 발을 옮겨 놓을 뿐이다.

피나무꽃에서 풍기는 꿀냄새로 머리가 뻥하던 숲속 오솔길이며 거기에 남긴 우리의 발자국이며 서로 쫓고 쫓기우는 그날의 야생딸기밭가에 놓아 두고온 장미빛 딸기바구니며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게 뒤섞여 떠올랐다. 그저 이 처녀와 이어진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목을 잠기게 할 뿐이다.

옥임이가 고꾸라지듯 주저앉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갑자기 높아진 강물소리가 가슴 한복판을 서늘히 꿰지르고 지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멈춰섰다.

《옥임이!》

나는 소스라쳐 처녀한테로 다가섰다.

《돌에 채였어요!》

옥임은 치마자락으로 다친 무릎을 싸안고 거기에 얼굴을 묻은채 흐느꼈다.

나는 그자리에 말뚝처럼 굳어졌다. 한발 옆에서 오열을 삼키는 흐느낌소리에 놀란 산골종다리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날아올라서도 그놈은 자기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줄을 움을 터뜨렸다.

비오리강 물소리는 왜 저리도 높단말인가...

아아 그것은 나에 대한 옥임의 믿음이, 아니 온 더그매사람들의 믿음이 얼음장 녹듯 부서져나가던 밤이 아니었던가.

그 얼음장의 마지막 한조각마저 떠내려가버린 것은 그해 가을이었다.

나는 더는 나의 젊음과 지식, 그러루한 모든 것을 바위쥬의 쑥그루처럼 덧없는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날은 찬비가 뿌려치고있었다. 조출한 짐을 쟁겨든 내가 비오리령 등판에서 옥임을 찾아냈을 때 그는 우비도 없이 온몸에 흙매닥질을 해가며 산사태가 위험한 시험포전 옷턱에 돌담을 쌓고있었다.

(헤여지는 마당에서까지 옥임인 이렇게...)

나는 분한 마음으로 그를 밀어제끼고 곁에 굴러다놓은 돌부터 들어올렸다.

옥임은 금시 다치면 왁 울음이 터질듯한 눈매로 나의 거동을 지켜보았다. 마치 자기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두기라도 하려는듯이.

《인젠, 인젠... 됐어요. 그만하세요. 옷을 더럽히겠어요.》

옥임은 소스라쳐 앞을 막아나섰다. 지나온 애룩한 나날들이 이 한순간에 타오르는듯 우리는 서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나는 몸을 부르르 떨며 참아오던 것을 터쳤다.

《동문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요. 옷은 뻔뻔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난 상처는...》

나는 처녀의 애원에 찬 눈을 차마 더는 볼수가 없어 말꼬리를 사리었다.

그의 입가에 비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매달려 파들파들 떨었다.

하얗게 핀 들국화꽃들이 마가을 찬비에 몸부림치고있었다.

비오리령 등판이 끝나는곳까지 우리는 제정신 없이 걸어갔다.

옥임은 트렁크를 땅우에 내려놓고 애써 삼키는 눈물을 나한테 보이지 않을양으로 허리굽혀 들국화꽃을 꺾었다. 한송이 또 한송이...

《옥임이-》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애원어린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았다.

《동무만 허락한다면 내 꼭 데리러 오겠소.》

처녀의 손에서 놀란듯이 들국화꽃이파리들이 비뿌리는 땅우로 흩어져 날아갔다.

《저라고 왜 가고싶지 않았어요. 경호동무와 함께...》

옥임은 숫구치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고있었다.

《하지만 더그매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에서 절 밀고 3대혁명전위라는 크나큰 신임까지 안겨 보내준 마을이예요. 그런데 제가 자기 결의도 수행하지 못한채 가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배반이 어디에 있겠어요. 더그매사람들은 얼마나 섭섭해하겠어요... 당에서 바라는대로 여기에도 과일꽃을 피우면 얼마나 살기 좋을까-저는 이런 꿈을 버릴수 없어요. 더그매가 경호동무의 고향이라구 생각하면 마음은 더욱 든든해지구 그리구, 그리구...》

옥임은 한꺼번에 넘쳐나는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한채 강잉히 고개를 숙여보였다.

《저를 용서하세요. 잘 가세요.》

옥임은 돌아서서 들국화꽃이 만발한 언덕으로 걸어갔다.

나는 한자리에 얼어붙은채 그가 한번만이라도 뒤돌아보아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나 처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산모퉁이에 이르러 멈춰섰으나 끝내 한손으로 얼굴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젖은 치마자락을 눌러잡은채 달음질쳐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옥임의 모습이였다. 자기 신념을 마음의 상처와 바꾸려 하지 않은 것처럼 강의한 처녀의 모습이였고 이처럼 맑고 깨끗한 목소리였다.

과연 그는 무엇때문에 소조기간이 끝났어도 고향도 아닌 북관땅에 다시 내려와 것처럼 어려운 탐구의 길을 헤쳐왔는가.

무엇때문에?... 무엇때문에?...

귀가에 메아리치는 이 목소리의 부르짖음처럼 북행렬차는 목갈린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ㄷ 기술역을 가까이하고있었다. 아무리 후회의 아픈 눈으로 뒤돌아보아도 그곳으로 되돌아갈수 없다는것을 깨우쳐주려는듯 가벼운 속도제한 충격으로 나를 흔들어깨웠다.

《...옥임언니가 흘린 땀방울이 열매를 맺은것은 더그매사과뿐이 아니였어요. 오늘 우리 농장은 3대혁명붉은기칭호를 수여받는 영예를 지녔어요. 불편한 몸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앞장에서 서서 걸어온 언니의 노력을 더그매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을거예요... 연구사동지는 고향도 사랑도 다 버리고 과연 무엇을 얻었어요. 연구사동지처럼 저저마다 자기 일개인의 리익만 추구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찌 될가요. 그렇게 딴 명예가 과연 우리 사회와 어떤 인연이 있을는지요. 그래도 언니는 연구사동지가 언젠가는 꼭 돌아오리라 믿고 오늘도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고있는거예요...》

해맑은 얼굴에 수집은 미소를 담고 물살빠른 비오리강가에서 로목에 돋은 햇순처럼 할아버지 곁에 서있던 처녀애, 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인 귀옥이가 더그매의 마음을 담아 나를 사회의 심판대우에 올려놓은것이다. 가을비도 재빛 채찍처럼 나를 향해 살같이 날아들다가도 차창에 부딪쳐 분한듯이 아래로 주룩주룩 미끄러져내린다.

나는 목단추를 끄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승강대에 나와서자 숨막힐듯한 비바람이 혹 불어들었다.

(고향도, 사랑도 다 켜버린 이 속물을 옥임이가 어떻게 용서한단말인가.)

렬차는 내 마음과는 상관없다는듯 보는것마다 지난날의 아픈 추억만 불러오는 낯익은 모습들을 완강히 끌어당기며 역구내에 서서히 들어섰다. 바로 이 역에서 비오리령을 향해 협궤철길이 뻗어오른것이다.

사람들로 붐비는 하나의 러객홈 사이에 두고 출발을 기다리는 혼합렬차가 서있었다. 한발자국만 넘겨짚으면 들국화꽃이 한창인 더그매로 실어다줄 협궤차였다. 그전날 채색된 무지개와도 같은, 설익은 동경을 안은 애젊은 나를 령너머머로 날라갔고 거기서 다시 도망군같이 된 나를 실어내온 협궤차, 나는 저도 모르게 완강한 힘에 이끌려 홈에 내려섰다. 운명은 벌써 껍 이전에 저 협궤차안에 실려있지 않았던가.

(그렇다. 나는 더그매로 가야 한다. 옥임의 팔이 되고 발이 되고 조수가 되여 새 출발을 하는 것으로써 지리지리 못나게 살아온 지난날과 회계를 따져야 한다. 거기서 새로운 내한성접그루를 연구완성함으로써 옥임이 연구한 더그매사과가 온 북관 땅에 활짝 꽃피나도록 도와야 한다.)

나는 북행렬차안에 두고온 집을 생각할새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한 협궤차에 뛰어올랐다.

이때처럼 협궤차의 새된 기적소리를 흥분된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본적이 언제 있었던가.

내 사랑 고향아

정영호

걸을수록 유정해라
내 어린 날 꿈이 새겨진
민들레 피는 동구길이 있어
맑은 시내가
나서자란 정든 집이 있어

내 이랑이랑을 보듬어주며
탐스러이 영글린 금나락
때없이 안아보고 쓸어보고싶고
구수한 낱알의 향기에 취해
해종일 걷고만싶어라

아, 이 벌에 태어나
이 벌에 살면서도
고향아, 너는 무엇이기에
이러히도 가슴에 썸썸아오르는
첫사랑만 같은것인가

달빛이 무르녹는 그밤
동구밖 느티나무아래
처녀와 맺은 첫 언약은
세월의 먼 추억으로 남지만
고향아 너와 맺은 인연은
갈수록 뜨거워지는것이여라

땀으로 이랑을 기름지우고
정으로 이삭을 패우며
언제나 첫사랑처럼 새로이
언제나 첫사랑처럼 귀중히
이 가슴의 진정을 짊그리 부어주고싶은
너 영원한 나의 사랑, 고향아

잠시 그 어느고장에 갔다가도
어느덧 이 마음 고향길에 이어지고
눈을 감아도 삼삼해
고향아, 소리쳐 부르면 되받아 울려오는
삶의 메아리인양
가슴속에 언제나 가득차있는 고향

어머니 나의 조국도
여기 고향땅에서 알게 되었고
조국에 바치는 나의 사랑도
여기 고향땅에서 시작되여라

아, 조국과 고향이
하나로 이어져있듯이
나의 운명, 나의 미래도 이어져있고
내 삶의 참된 행복도
가꾸고 빛내이는 고향에 있어라

순천바람

리룡현

달리는 렬차도 더디어
마냥 서서 달려온곳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던
순천의 바람은 시원도 하구나

잊지 못할 한생의 련인파도 같이
그 뉘의 다정한 이름같이
내 마음에 정깊이 스며든 이름
여기가 아닌가
내 마음 항시 달려오던곳

집채같은 물체도 닝큼 울리는
기증기운전공처녀의 저 밝은 웃음으로
아슬한 철골우에서 하늘 향해 머리쳐든
용접공청년의 저 배심좋은 숨결로
순천바람아

너는 이 흰 머리오리를 열정으로 날려주누나

어디든 달려가
이 팔목이 시큰하도록 일하고싶구나
만년대계의 주추를 디디고
우리의 행복이 솟아오르는 여기서

탑우에 휘날리는 저 오색기발은
나의 눈빛에 젊음을 준다
꼬리물고 달리는 자동차의 긴 행렬은
나의 발걸음을 자꾸만 재촉한다

나날이 안겨지고 안겨지는
아름찬 사랑을
내 받아안기만 한다면
그무슨 이 땅에 인민된

도리가 있는가
잠시라도
땀을 흘리고싶다
한몸이라도
다 바치고싶다

크나큰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싶은 이내 진정에
순천바람아
80년대 창조의 불바람아
너는 이미 나에게서 지나갔다면
인간의 젊음도 창조해내는구나

나는 병사였다

변명열

내 때없이
머리에 흰서리 쓸어볼 때면
그날의 묵직한 철갑모
다시 써보는 마음이어라

한창 공부할 시절에
총메는 법을 배워야 했고
불타는 락동강 모래불에 전우를 묻으며
때일찍 조국과 삶이라는 물음앞에
생으로 대답해야 했던 시절아

땀에 젖은 어깨우에
조국을 떠메고
뜨거운 탄피를 밟으며
비발치는 탄우속을 달리던
나의 병사시절 병사시절

아! 이제 다시 듣고싶구나
명령속에 차렷구령소리
오늘도 마주오는 병사들과 어길 때면
손들어 거수경례도 나누고싶구나

그래서 다시보는
사진첩의 갈피마다
병사시절의 모습은 꽃처럼 피어 웃고
그 시절의 걸어온 자욱자욱이 가슴 흔들여

그날의 전호가에 서보는 이 마음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리
땀과 피를 뿌려보지 않고는 모르리
조국위해 바친 시절이 그렇게도
귀중하고
한생에 긍지높은줄을

리력서에만 남는것 아니여라
저 새집 창가에 흐르는 행복의 불빛에
줄지어가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병사의 꿈과 위훈이 비낀것 아니던가

조국에 바쳐
조국과 함께 빛나는
병사의 삶이여
그 시절에 피끓던 심장이
오늘도 이 가슴에 고동치거니

나는 병사였다
그 시절에 걸던 위업의 한길이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재촉해
나는 오늘도 병사다
마음의 군복을 벗지 않는 나의 삶에
제대란 영원히 없으리

가사

당원의 그 이름

최민기

철들면 그 누구나 지니고싶어
맘속에 간직하는 소중한 영예
지니여 내 지니여 다 알았던가
아, 당원의 값높은 영예

남먼저 험한 길을 헤쳐간다고
그 이름 소리높이 어이 부르랴

당과 운명 달리하면 부를수 없는
아, 당원의 값높은 그 이름

당을 위해 한생을 걷지 않고야
내 어이 부르랴 성스런 그 이름
지니여 내 지니여 영원히 빛낼
아, 당원의 값높은 그 이름

공화국의 재부

리영준

승용차를 타고 돌아오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일군 권오혁은 오늘처럼 앉은자리가 편안치 않고 거북스럽기는 처음이다. 아무리 몸을 궁싹거리도 앉은 자리는 여전히 편안칠 않다.

눈앞으로는 곧게 뻗은 도로나 가로수가 아니라 이슬에 화락하니 젖어있던 장군님의 옷자락이 자꾸만 어려왔다.

처음 오혁은 자기네가 선정한 종합대학터전이 전문가들의 지지까지 받고보자 아주 만족하여 건물명세서를 뜯 으시 그 사본을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였다. 허지만 장군님께서 몇몇 력사학자들을 부르시여 새로 앉을 종합대학터전이 옛날 토성자리가 아닌가를 알아보시고는 몸소 현지답사까지 나가실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잡기 어려웠다. 세월에 오솔길마저 없어진지 아득한 옛성터에 늦장마비까지 내린 뒤여서 걷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지만 장군님께서 무릅없이 축축한 풀숲을 헤치시며 맨 먼저 토성우에 오르시였다.

적병의 머리에 꿇는 물을 내리붓던 고무려 이름없는 녀인의 모습이 그대로 굳어진듯한 성벽, 두텁게 붙은 실이끼며 성돌들... 이제는 그 형적마저 가려볼수 없게 된 토성자리를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 학자들을 둘러보시며 종합대학 위치로는 여기가 더없이 좋은곳이지만 토성자리를 없애고 교사를 지을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잡초 우거지고 길 없는 룡남산마루에까지 친히 오르시여 종합대학의 넓은 터전을 다시 잡아주시였던것이다.

산에서 싸울 때부터 백가지중에 단 한가지만이라도 장군님께서 후련해하시도록 일해보았으면 하는게 오혁의 념원이기도 했다. 더우기 항일의 날 정치공작이나 경찰임무를 지니고 늘 장군님곁을 떠나 조국에 나와있기가 태반이였던 오혁의 경우엔 이 심정이 누구보다 더했다. 그렇지만 오늘과 같은 일을 당하기가 빈번해서 안타까운 마음 누를길 없는 오혁이였던것이다.

어느새 종로네거리를 지나친 차가 저녁노을에 잠겨드는 청사마당으로 들어와 서는것도 모르고 자책에 잠겨있던 오혁은 운전사가 《이젠 다왔습니다.》 하고 귀뜸을 해서야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미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법령으로 공포하도록 하신 《보물고적 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관한 세칙을 다시한번 따

져보고 민족문화유산에 관한 임의적 리용, 파괴, 손상, 국외반출행위 등 그의 보존에 미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다스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차에서 내리던 오혁은 느닷없이 들려오는 피리소리에 놀라 그자리에 멎어버리고말았다.

(어?! 웬 피리소리가?...)

상록수 우거진 정원의 돌의자에 앉아 누구인가가 방금 근무를 교대한 보안대원들에게 둘러싸여 피리를 불고있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촌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가만, 그런데 무척 귀에 익은 피리소리다. 허굴림이 독특하고 부드러워 물방울이 구으는듯한... 그러면서도 은은하기가 비강음같은 저 피리소리를 어디서?... 내가 어디서 들었던말인가? 순간 오혁의 머리속엔 잊지 못할 추억의 한토막이 번개같이 되살아났다...

권오혁이 국내공작임무를 받고 조국광복회 부산지구조직에 파견되었을 때 그곳 가대기군들속에는 《두루마기령감》으로 불리우던 최의범이란 사람이 있었다. 오십고개를 바라보는 그가 때일찍 령감으로 불리우는데는 그 두루마기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는 겨울이건 여름이건 언제나 물낱은 검정두루마기를 입고다녔다. 그가 두루마기를 벗는 때는 부두에서 짐을 메나르는 시간뿐이었다. 그럴때면 그의 검정두루마기가 부두결 함바집의 빈대피로 얼룩이 진 바람벽에 해종일 걸려있군하였다. 그러나 일이 끝나기만하면 최의범은 서둘러 두루마기를 벗겨 입고는 버젓이 거리를 지나 초라한 집으로 돌아가곤하였다. 그가 조선바지에 대님까지 꼭 묶고 초신발바닥으로 땅을 울리며 길 한복판으로 버젓이 걸어갈때의 도고함이란 보기에다 다 엄엄했다. 어디에 가건 그는 자기의 이 도고한 자세를 조금도 허물지 않았다. 허지만 최의범이 더한층 소문을 낸건 걸음새가 아니라 역시 그의 검정두루마기때문이었다. 한번은 함바집의 밥쟁이 아낙네가 너무도 중하게 여기는 그 두루마기가 어지러워진것 같이 깨끗이 빨아서는 풀까지 먹여놓은 일이 있었다. 그날저녁 동정깃에 인두질까지 해댄 두루마기를 받아든 최의범은 두눈을 습벽거리더니 코맹맹이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날로 무성번식해지는 각반친 메뚜기다리쟁이들이 우리 나라를 뒤덮었어도 냇만은 이렇게 살았소 그려... 고마우이 고마워.》

아낙네는 아궁앞에서 웃고름을 입에 물었고 인부들은 서글피 웃었다. 젊은 막패거리들은 고티가 나는 령감쟁이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 코구멍같은 함바집에서 《두루마기령감》은 늘 화제거리였다. 막걸리 한대포만 하면 천하에 무서운것이 없다는 외눈배기 부두감독도 골목길에서 최의범을 만나면 저도 모르는새 머리를 숙여 굽석 인사를 하는가하면 그에게 《불은 딱지》를 붙여놓고는 두고보자고 버르는 유도 3단의 금이박이 왜순사마저 머리를 외로 돌려 다른곳을 보는척 한다는... 어쨌든 이야기가 이쯤되면 최의범의 과거지사도 의례히 꺼놓아들곤하였다.

최의범은 원래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그곳 어느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조선인학생으로 뛰여났더랬는데 무슨 일때문인지 학교《박물관》의 유리진열장을 주먹으로 박살내고는 《감옥살이》를 했다는것이다. 일본땅에 침을 뱉고 고향에 돌아온 최의범은 밀양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력사와 지리를 가르쳤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편안치가 않았다.

《조선이 어데 있다고 조선의 력사와 지리를 가르치는가?》 일본인교장의 알뜰한 입술에서 거침없이 굴러나오는 그 말에 최의범은 《야마도족의 쟈내비력사와 지리는 천황폐하에게나 가르치라!》고 마주 소리치며 진짜 《사꾸라》꽃을 교장놈의 이마뺨에 새겨주었다는것이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번져지면 인부들은 주먹자리가 시퍼렇게 난 왜놈의 상판대기를 금시 보는것 같아 고소해하였다.

《에이, 시원하당기여.》

《재목은 재목이야.》

《지금도 글공부랑 하는거 보랑기여.》

최의범은 두루마기를 걸친 옆구리에 언제나 책을 끼고 다녔다. 인부들이 황적미나 납보리밥을 펼칠 그맘때면 최의범은 데구리선들이 몰려있는 한적한 선창가에 주저앉아 《임진록》이나 《삼국지》같은 책을 펼치곤했다. 목석처럼 앉아 책을 보다가는 장뿔으로 한뿔도 넘을 초지책에다 무엇인가 끄적거리며 적어놓기도 하였다. 소문엔 그가 우리 나라의 《력사》를 쓴다고들 하였다.

당시 부산항의 인부들속에 들어가 있던 권오혁은 최의범이 이 때문지 않은 의기와 품격이 마음에 들었다. 오혁은 조직을 통해 이끌어주도록 하는 한편 그와 친숙해지도록 애를 썼다. 나날이 흘러갈수록 오혁의 인간 됬됨을 똑똑히 알게 된

최의범은 무턱대고 사람사귀는 일이 《자기 도고성의 상실》로 경시하던 사람같지 않게 오혁과 마주앉아 밤늦도록 조선의 력사를 놓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소. 그런데 지금도 쟈내비꼬리를 떼지 못한 저 쪽발이들이 갈지 않게 <동조동근>이요, <창씨개명>이요 하면서 조선민족을 동화시키려 하고있단말이요. 흥, 이거야 흠을 몰로 만들어보자는 수작이지... 지금은 제간놈들이 이 땅에서 활개를 치는것같지만 우리 조선민족의 일이 다 죽은건 아니야. 자네도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얘기를 아나?... 안다구?... 하긴 조선사람치고 그분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제보라우. **김일성** 장군님을 모신 조선군사가 기치창검아래 압록, 두만강을 넘어 파죽지세로 쳐나올걸세. 흠, 그런데 저 미련한 족속들은 그것두 모르고 날뛰니 이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최의범은 두팔을 휘둘러대며 동서고금의 력사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다가도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들과 명승고적이 무지막지한 쪽발이들의 술놀이장으로 번져가고있는데 대하여 가슴을 치며 통탄했다. 한동안 그렇게 설분을 토하다가는 《애, 영선아, 한곡조 불러라...》하고 아들을 방으로 불러들였다. 일찌기 안해를 잃은 최의범은 열두살짜리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다. 벌써 그 나이에 냉이국이며 썩떡까지 다 할줄 아는 영선이, 혈불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부엌《안주인》의 역할을 하는 최의범의 행복이며 희망의 전부였다. 아버지가 방으로 불러들일 때마다 영선은 그런 일에 습관된듯 농작우에 올려두었던 통소를 서슴없이 입에 가져다댔다.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촌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피리소리가 점점 고조됨에 따라 최의범의 두눈에 물기가 그들먹해진다. 어찌보면 청아한 그 피리소리는 잠든 아들의 머리를 오래오래 만져주하던 어머니의 손길만 같아 권오혁의 가슴도 찢으르 해들곤하였다.

《허허... 녀석, 제법이거던.》

아들을 칭찬하는 최의범의 목소리는 저으기 떨리기까지 하였다.

아버지의 두볼로 소리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 영선은 피리불기를 그만두고 부엌으로 내려가서는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귀떨어진 개다리소반우엔 막걸리 두사발과 제법 칼치반찬까지 놓여있었다.

《어이구, 이게 어디서 난거냐?》

뜻밖의 《진수성찬》에 최의범은 끔찍 놀라기까지 하였다. 그러면 영선은 어리광부리듯 아버지의 팔목에 매달린다.

《아버지, 은으로 만든 수저를 팔았어요. 2원 50전 받구.》

《허허… 녀석 제법이군. 먹구살 궁냥을 다 하구.》

아버지는 그러도 아끼던 은수저를 판것도 기특해선지 영선의 영치를 두드려주며 껄껄 웃었다. 지금 같에선 집안의 기둥그루를 뽑아다 팔았대도 칭찬해줄것 같은 아버지였다.

그러던 어느날, 최의범의 집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일은 바로 영선이의 그 가사 판매 때문에 빚어졌다.

돈을 벌지 못하면 며칠이고 집에 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못해서 영선은 이날도 먹고살 궁냥을 하고있었다. 석자막대기를 휘둘러도 이제 더는 거칠것이 없는 방 안에서 아무것도 내다 팔것이 없어 이궁리저궁리하던 영선은 무릎을 탁 치며 패재를 불렀다. 아버지가 고무라꼭대기에다 건사해둔 피나무껍질이 생각났던것이다.

먼지봉난을 겪으며 고무라에 기여오른 영선은 아버지의 껍질을 열어보았다. 껍질속에는 색깔화려한 그림말이들과 이상한 빛을 내는 피상한 모양의 자기류, 갑옷과 함께 놓여있는 청동빛 투구가 있었다. 영선은 그만 맥이 탁 풀렸다.

(행, 밖에 널여놔야 개두 안몰어갈걸 가지구…)

아무리 생각해보두 이따위 골동품따위가 돈이 되기는커녕 아버지가 귀중히 여기는 《보물》이 될리 만무다.

한동안 생각을 굴리던 영선은 엄엄한 빛을 발산하는 투구에 바짝 염독이 들었다. 금시라도 장검을 든 장수가 그속에서 툭 튀어나올듯싶었다.

그 청동투구를 보며 저로서도 알수 없는 힘이 생겨난 영선은 별안간 시뻘해져서 투구를 싸들고 곧장 시내의 골동품가게를 찾아갔다.

황홀한 청동투구를 내려다보는 왜놈주인의 메기입은 단박에 헤벌쭉해졌다. 청동투구를 정신없이 만지작거리며 한동안이나 귀밀눈을 뱅글뱅글 굴리던 왜놈주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시퍼런 지폐 한장을 꺼내주었다. 영선은 별로 돈이 될것 같지도 않던 투구가 이렇게 종이돈이 된게 좋아서 인사까지 꾸뻑하고는 장마당으로 갔다.

영선은 아무것이나 닥치는대로 사고싶었으나 돈이 아까와 귀밀떡 두구레미를 사고말았다.

그날저녁. 집으로 돌아온 최의범은 기름내 향긋한 귀밀떡이 무독히 담겨진 밥상에 마주앉아 떡을 집다가 아무래도 이상한지 어떻게 생긴 떡

인가고 물었다. 영선은 신이 나서 투구 팔던 얘기를 하며 왜놈주인이 마음 후하더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순간 최의범의 목줄띠에 퍼런 심줄이 불쑥 솟구쳤다.

《망할녀석!》

어느새 아버지의 장알박힌 손바닥이 영선의 뺨에 《철썩!》하고 붙었다.

영선은 얼굴을 싸쥐며 그자리에 폴짝 주저앉았다.

최의범은 그러는 아들의 뒤덜미를 거머쥐고 일으켜세우더니 당장에 집을 나섰다. 때마침 달래김치를 가지고 찾아왔던 이웃집 꽃녀의 할머니가 최의범의 옷자락을 잡았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예미없는 자식을…》

《아주머니, 이리저 마시유. 이녀석은… 제 조상을 팔아먹은놈이유.》

《뭐?!…》

할머니의 여윈 볼에 얇게 붙은 살가죽이 파르르 떨렸다. 최의범은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는듯이 입을 이기죽거리더니 곁에 선 오리나무를 힘껏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한참이나 모지름을 쓰더니 무작정 영선의 손목을 잡아쥐고 내몰았다.

시내의 골동품가게를 찾아가던 최의범은 손이 아니라 발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얼떠름해서 지켜보는 급사아이를 시켜 당장에 주인을 불러내라고 호령했다.

마사무네에 추어탕으로 반주를 하고 이발짬을 쭈시며 문턱을 넘어서던 주인놈은 험악한 기상으로 서있는 최의범을 보자 흠칫 놀랐다.

《여보, 내 37만 9천평방짜리 땅을 하나 팔겠는데 안사겠소?》

《땅?!…》

일본놈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메기입만 납신거렸다.

《하하… 불구멍이 자주 터져 사람살기 고생스럽긴 해두 그대신 내 흑까이도까지 합한 일본땅을 <선사>하겠으니 돈을 내놔!》

그제서야 최의범의 말 뜻을 알아차린 주인놈은 이발을 뽏드득 갈았다.

《고또 미따이나야쯔! (강도같은놈)》

《흠, 너희 땅을 네가 가지라는데 강도라면 남의 나라 민족의 재부마저 제것으로 만드는 쪽발이새끼는 뭐가?》

최의범은 제일 좋고 번듯한 장소에 돌보이게 올려놓고 《사부라시즈끼의 유적 보관용》이라고 쓴 패쪽을 건 청동투구를 창으로 찌르듯 가리켰다.

《꾸니노나이 고지끼민쵸끄니 곤나자이호오가 아르노까? (나라 없는 거러지민족에게 이런 재부

가 있는가.))

《뛰라구?! 네놈이 감히...》

최의범은 입술을 깨물었다.

《네놈들이 그래 조선을 다 삼킨줄 아느냐. 이 건 우리 민족의 재부다. 조선의 하늘이 무섭지 않으나 이놈!》

최의범은 왜놈을 처넘기고 투구를 도로 찾아냈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안 오혁은 아차 하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권오혁은 그날밤으로 부산시내를 바람같이 빠져나와 교외에 있는 최의범의 집을 향하여 내달렸다.

그러나 오혁이 최의범의 집에 가닿았을 때는 이미 말을 탄 순사들이 들이닥쳐 최의범을 체포하고 집에 불을 지른 뒤였다.

오혁은 그날밤 뒤산에서 피나무퀘 짹을 들고 갈팡질팡하는 영선을 발견했다. 오혁은 주저없이 영선의 팔목을 잡아끌고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이튿날부터 대나무숲 설레이는 락동강류역의 이 작은 마을엔 최의범도, 영선이기도 더는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던지... 어느 달밝은 밤. 와스삭거리며 설레이는 대나무숲속에서 돌연 애절한 피리소리가 들려왔다. 그 청아한 피리소리는 향기로운 입김마냥 가난한 마을을 살뚫이 안고돌았다. 마치도 꺾이지 않는 조선의 넋인양...

그사이 오혁을 따라 가있던 영선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꽃너 할머니네 집에 알몸뚱이를 들여놓고 놀러있었던것이다. 그날부터 영선의 그 피리소리는 더 잦은 가락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촌
복숭아꽃 살구꽃 아진달래...

여울치는 락동강의 저녁물소리를 타고 파란 연기 구수히 떠도는 고향마을로 은은히 울려퍼지는 영선의 피리소리는 마을사람들에게 사무치도록 그리운 그 어떤 향수를 자아내게 하였다.

가난해도 인정미만은 넘쳐나는 고향마을이다. 그래서인지 영선의 피리소리를 두고 사람들은 제 나름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끝없이 지어내기도 하였다. 어머니를 부르는 아들의 호느낌이라든지 또는 직녀를 부르는 견우의 노래소리에 비기기도 했으며 불쌍한 아버지를 위로하는 아들의 하소연이기도 하다는... 이럴 때면 최의범이 금시라도 두루마기자락을 펄럭거리며 동구길로 휘적휘적 걸어오는듯만싶었다.

어느날엔지 동구길에 소소리높이 자란 오동나무아래서 영선의 소꿉놀이 동무들인 꽃너와 바우가 피리소리를 듣고있었다. 피리소리를 들으며 눈을 깜짝거리던 바우가 나무우로 hing하니 바라오르자 꽃너는 속이 한줌만해져서 품검불이 달라붙은 그의 쫘무니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아기손바닥같은 오동나무잎들이 미풍에 살랑거리며 반짝거린다. 그리고는 《소그사가. 소그사가》 끝없이 제나름으로 속살거린다. 바우가 일사귀 하나를 똑 따서 떨구니 뱅그르르 땀을 돌던 푸른 잎은 한들한들 춤을 추며 꽃너의 머리위로 사뿐히 내려앉는다.

《바우야, 나무가 컸니?》

《크지 않구.》

바우는 눈을 찌긔하며 한뼘을 잔뜩 벌렸다.

《하, 그것 봐라. 영선의 피리소리를 듣고 컸거든.》

《피, 말 잘하는 너네 할머니 닮았구나.》

《그럼 왜 컸니?》

《그건...》

꽃너는 보석같이 반짝거리는 눈으로 바우를 올려다본다. 허지만 바우는 대답이 잘 생각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가기때문이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였다...

오혁은 영선의 피리소리가 날로 더 아름다워지는게 기뻐다.

문득 《국보절도법》으로 기소하여 최의범에게 징역을 언도한 일제의 철면피성에 가소로운 생각이 들었다.

(영선아, 피리를 더 크게 불어라, 그 어떤놈도 우리 민족의 넋은 짓밟지 못한다!)

...드디어 오혁은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은것이다. 바야흐로 조국해방의 그날은 다가오고있었다.

영선은 여직껏 자기를 도와준 고마운 아저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영선아, 그 피나무퀘 짹을 잘 건사해라. 그건 우리 조선사람들의 슬기가 깃들어있는 재부란다. 그것만 있으면 아버지는 꼭 돌아온다.》

이것이 권오혁의 마지막 당부였다...

오혁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추억에서 깨어났다.

오혁은 옆에 와 기다리던 서기가 말을 건네서야 본래의 자기로 돌아왔다.

《피리소리를 듣고계십니까?》

《음... 그런데 우리한테도 저렇게 피리를 잘 부는 동무가 있었소?》

《웬걸요...》

서기는 피리소리가 울려오는 그쪽을 피끗 쳐다보고는 이내 정숙해졌다.

《오늘아침 38선을 넘어온 소년인데 내무국동무들이 데려왔습니다.》

《…》

《그런데 좀 이상한 소년입니다. 내무국동무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구두담이통 비슷한 나무꺾꽂 하나를 지고온 모양인데 그걸 누구도 열썬 다치지 못하게 한답니다.》

《못다치게 한다?》

《예, 거 무슨 <국보>가 들어있다고 고집을 한답니다. 내중엔, 허허…》

서기는 어이가 없는지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

오혁은 번개치는 예감이 불쑥 솟구치자 소년이 앉은 돌의자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보안대원들의 재청에 못이겨 또다시 피리를 입에 대던 소년은 항일모에 보위색승마바지를 입은 어깨넓은 사람이 자기앞으로 다가오자 엉거주춤 일어섰다. 순간 오혁을 겨누어보던 소년은 와락 그의 품으로 날아들었다.

《아저씨!》

《영선아!》

세상엔 우연한 일이 드문하다. 그 이상한 소년은 영선이었던것이다. 권오혁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가득 피어올랐다.

잠시후, 오혁은 영선이와 마주앉았다. 두사람의 눈물겨운 상봉을 열며름해서 쳐다보던 서기와 보안대원들, 담장너머에 조닥조닥 매달렸던 구경꾼 조무레기들은 어느새 한명도 남지 않았다.

《그래 너 혼자 왔단말이지?》

《예, 아버지…》

영선은 오혁을 만난것이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았던지 한동안이나 그의 달라진 옷차림이며 행동거지를 지켜보다가 이윽해서야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의범은 해방이 되자 수인들의 담가에 실리워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을에서 척추가 잘못되어 돌아온 의범이네 부자를 위해 수수대 외를 엮은 초가 한간을 마련해주었다. 그날부터 의범은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앓는 그의 머리맡에는 언제나 피나무꺾꽂이 놓여있었다. 몸을 운신조차 못하는 형편임에도 의범은 영선이가 애써 구해온 약이나 음식 꾸레미들을 절대로 피나무꺾꽂이에 올려놓지 못하게 했다. 영선이 시러워하는듯한 눈치를 보이기만 하면 의범은 목숨걸고 영선이를 도와준 그 젊은일 봐서라도 정히 간수해야 할게 아닌가, 해방이 되었으니 그 사람도 한번 오겠는데 만나서 떳떳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영선일 달래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오리라는 그 좋은 아저씨는 오지 않고 흥흥한 소문만 들려왔다.

그러던 이듬해 어느 봄날, 마을엔 누런 카키색 군복을 입은 미군 병정들이 훈련을 한답시고 들이닥쳤다. 예고없이 들이닥친 이 불량한 병정들은 닭이라고 생긴건 보기만 하면 목을 조리돌림해서 쫘무니에 차고 갔다.

고색 질은 절터 앞마당에 푸드덕거리는 닭무지를 쌓아놓은 미군병정들은 데리고온 경찰들을 시켜 야전가마를 걸게 했다.

닭을 잡아갈 때까지만 해도 묵묵히 노려 보기만 하던 최의범은 경찰들이 절터앞마당에 있는 열자높이의 석탑을 허물어내려 가마걸 받침돌로 쓰는걸 보고는 벌떡 일어섰다.

절터앞마당으로 지평이를 쥔고 들어선 최의범은 다짜고짜로 탑의 네모진 받침돌 하나를 굴러가는 경찰놈의 쫘무니를 밀창이 쑥 빠지도록 건어쳤다.

얼굴전체가 뻘죽하게 생긴 경찰놈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알만 울릉헤었다가 그만에야 정신을 차린듯 울렀다됐다.

《어랍쇼, 이건 어디서 뺏여져나온 자식이야.》

독이 오른 경찰놈은 총탁으로 의범의 어깨를 내리쳤다. 의범은 그자리에 꼬꾸라져 의식을 잃고말았다.

그날 마을에는 해종일 닭튀기하는 냄새가 풍겨돌았다…

겨우 바깥출입이나 하던 의범은 이리하여 또다시 자리에 눕고말았다. 고열이 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그는 자주 헛소리를 쳤다.

《이제 무슨 해방이냐? 무슨 해방?》

영선이 젖은 수건을 갈아대며 아버지를 정신없이 불러댄다. 그러면 겨우 정신을 차린 의범은 오열을 터뜨렸다.

《아! 이 나라의 역사를 누가 지켜내겠느냐? 누가?...》

오장을 비틀어짜는듯한 의범의 절규에 문풍지가 다 부르르 떨리는상싶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영선은 줄창 약재구입으로 나돌아다녔다. 그 정성에서였든지 아버지의 병세에 조금씩 차도가 있기 시작하던 어느날,

그날도 영선은 동약 몇첩을 지어가지고 병고에 시달릴 아버지의 눈물겨운 정상을 그려보며 타발타발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삿잡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영선은 깜짝 놀랐다. 아침까지만도 자리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두루마기를 입고 마당에 나와 서있는게 아닌가.

《이제 오느냐?》

의범은 아들의 뒤더수기를 만져주며 혼연한 열

굴로 물었다. 보매 몹시 흥분한 마음을 누르고 있는것만같았다. 영선은 괜히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다.

《해방전에 같이 일하던 가대기친구 하나가 한식경에 문병을 왔다 주고간건데… 봐라.》

의범은 말아쥐고있던 신문을 펼쳐들었다. 당시에 발행되던 북조선의 지방일보였다. 영선은 특호 활자로 된 《영명한 **김일성**장군 국보보호에 관한 시책 하달》, 《조선의 대통령》이라고 쓴 글자들을 보고나서 그말에 보물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에 관한 법령을 읽어나갔다. 영선은 이제서야 아버지가 흥분된 이유를 알았다.

《나라의 국보를 건질분은 오직 장군님 한분이시다. 그러구보면 그때 그 젊은이도 **김일성**장군님 휘하의 군사가 틀림없니라.》

(아! **김일성**장군님!!)

조국의 해방과 함께 더더욱 전설처럼 들려오던 우리 장군님의 존함, 그분의 존함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기만 해도 하늘과 땅이 통채로 자기의 한줌 손안에 금시 들어올것만 같은 크나한 힘이 생기던 영선이었다.

《…그날로 아버지는 이 피나무퀘짜를 걸머지고 부산역으로 나가 기차에 올랐습시다.》

《음…》

오혁은 그 아픈 몸을 끌고 기차에 올랐을망정 생의 희열에 넘쳐 평양으로 떠났을 과묵한 최의범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부산을 떠난 경부선열차는 벌써 하루반나절 동안이나 북을 향해 달리고있었다. 이제는 열차도 맥이 빠져버렸는지 아무 역전이고 멈추어서기만하면 좁체로 떠날줄 모르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는 승객들의 상스러운 욕지거리에 깜짝 놀라 파충류의 골격마디같은 차량들을 덜커덕 잡아채며 느릿느릿 움직이군했다. 그때마다 울리는 목메인 기적소리와 함께 왜병의 철갑모를 얹어놓은것 같은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총대처럼 뿜쳐오르며 모래알같은 탄가루와 검붉은 불똥들을 뽀시시하게 뿌려 놓군하였다.

이제는 거의나 본능적으로 시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내다보는데 습관되였던 영선은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말았다. 고통스러운 식사시간이 또 시작되었던것이다. 벌써 네끼나 굶으며 기차를 타고 오는 영선이다. 철없는 애녀석들의 밥투정소리마냥 사소한 고려나 주저도 없이 연신 조르륵거리며 울려나오는 배안의 하소연이 이제는 남이 들을가봐 부끄럽지도 않았다.

영선은 아예 실신한 사람모양 딱딱한 나무의자에 몸을 녹여붙이고말았다.

이때, 어느 덜통한 아낙네가 당반에 얹어놓은 새우젓통에서 젓물이 줄줄 새나와 의범이 안고 가는 그 피나무퀘짜우에 떨어져내렸다. 그바람에 불에 덴듯 놀라던 의범은 재빨리 뚜껑을 열고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바람에 앞에 앉아가던 장사치가 결눈으로 퀘짜안을 넘겨다볼수가 있었다.

퀘짜안을 들여다보던 장사군은 밥도 굶으며 여행을 하는 비렁뱅이와 같이 앉았다고 로골적으로 뽀뽀거리던 사람같지 않게 의범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이형, 로자돈이 떨어진것 같은데 그림 한점 팔지 않겠소?》

《…》

의범이보다 나이가 더 든것 같은 장사군은 형이라고 괴여올리기도 주저하지 않으며 금시 겨드랑 밑으로 기여드는듯한 소리로 선심을 썼다.

《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입을 가지구 굶을 필요야 있다. 받아두시오.》

장사군은 시퍼런 지폐몽치를 두개씩이나 탁자우에 메탈치듯 내놓았다.

영선은 하늘이 무너진대도 이렇게까지는 놀라지 않았을것이다. 그림 한장이 뭐가 돼서 저렇게 많은 돈을 낸단말인가. 영선은 최면술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장사군의 기름진 번들얼굴을 뺨해서 쳐다봤다.

그러나 아버지는 탁자우의 지폐몽치를 피끗 보더니 눈을 꼭 감았다.

《그게 다요?》

《어?!》

장사군은 입을 딱 벌렸다.

《너무 적소.》

장사군은 최의범의 이 말에 앓음새를 고치며 접잡게 힐난하였다.

《이거 너무 재세를 마시오. 장사군이라는거야 원래…》

《난 팔려는게 아니요.》

《아하 이런 불행이 있나.》

장사군은 당장 굶어죽을 형편에서마저 제살 궁냥을 못하는것이 제사 불행하다는듯 혀를 찼다. 그리고는 누가 들으면 동정이라도 받을만한 한숨을 푸우-하고 내쉬었다.

그러나 최의범은 피나무퀘짜이 아닌 세상만사는 다 상관할바가 아니라는듯 그것을 꼭 그러안은채 돌미륵처럼 굳어져있었다.

본의아니게 뜻밖의 돈이 생길것 같은 유혹에 바싹 긴장해졌던 영선은 인차 마음을 도슬려먹고 더는 밥생각을 하지 말자고 결심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루반나절을 굶고있는 영선에게

주위에서 음식보따리들을 풀어헤치는 바스락소리와 짹짹 거리는 입맛다짐이 그 무슨 총소리처럼 위협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더우기 고통스러운건 앞에 앉아가는 장사군 그 번들얼굴이 탁자 위에 아까부터 묵어오던 대추며 굴, 신바닥같은 찰떡과 참깨박이 옛덩이들이 수두룩한데도 무엇이 부족한지 하얀 이밥과 참대순볶음, 낙지튀기 같은걸 덧놓으며 괜히 저가락으로 두적거리는 꼬락서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수수떡같은 외등이 매달린 객실안엔 벌써 잠투정을 하는 애들의 정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건만 영선은 잠들수 없었다. 이제는 입안에 떠돌던 신물도 없어지고 혀바닥위에 쓰거운 강태만이 벼락찌처럼 알알하다. 입은 조갈이 든듯 팽배히 켜기고 눈을 감아도 앞에는 노랑고 파란 불뚱들이 끝없이 동동 떠다닌다. 그저 아무데건 누워서 한잠 자고만싶었다. 그러나 어떻게 잔단말인가...

별안간 탁자위의 음식꾸레미들을 마뜩지 않게 쳐다보며 게트림을 하던 번들얼굴이 그것들을와락 그러모아 발밑의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순간 눈을 감고서도 그것을 흘린듯이 바라보던 영선의 텅빈 배속에서는 돌각담 허물어지는듯한 소리가 들려오는듯만싶었다. 영선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이지러뜨리며 눈을 번쩍 뜨고말았다.

그러자 번들얼굴의 벌건 입술이 찌글썩 열리며 누런 이가 히죽이 드러났다.

《이형, 거 퀘짜안의 그림이나 자기 몇점만 넘겨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러질 않나.》

《...》

《보아하니 굉장한 사상객같은데 <혜계모니>나 <이데올로길>하재두 먹구야 허는게 아니겠나. <혜계모니> 뭐 죽은 송장과나 친한다는건가. 난 그래두...》

《가만...》

최의범은 두눈을 번쩍 떴다. 번들얼굴을 쏘아보는 두눈에선 퍼런 린광이 칼날처럼 번뜩거렸다.

《...》

그러나 최의범은 무슨 말을 더 할듯싶던 사람 같지 않게 장사군의 얼굴을 노려보기만 했다. 최의범의 성난 기상앞에 잠시 주접이 들었던 장사군은 불시에 괜한 객기를 부리며 용수철마냥 튕겨쳐 일어섰다.

《그래 날 쏘아보면 어쩔테냐? 이 비렁뱅이같은...》

그러나 장사군은 더 말을 할수가 없었다. 최의범이 탁자를 내리치며 마주 일어섰던것이다.

뜻밖의 상서롭지 못한 소동에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 두사람을 긴장하게 지켜보았다. 영선은 너무나 뜻밖의 일에 어찌먼 좋을지 몰라 피리만 단단히 거머쥔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주섰던 최의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더니 주춤거리며 그자리에 풀썩 주지않았다. 얼굴이 창백해진 최의범은 숨소리마저 가늘어진채 기척이 없었다. 득의 만면해진 번들얼굴은 금시에 코바람을 뿜뿜 내뿜었다.

《흥 굶어사는 주제에 큰소리 칠때간 졸도까지 한다는걸 알았지있나. 미친놈.》

번들얼굴은 한참이나 씩씩거리며 서있더니 승강대쪽으로 허둥지둥 나갔다.

《아버지!...》

영선은 아버지를 흔들며 애타게 불렀다. 분했다. 저 돈벌레같은놈을 파리잡듯 죽이지 못하는게 억울하고 분했다. 아! 조금만 더 컸더라면...조금만!...

아들의 손길을 느꼈던지 최의범은 초점없는 눈을 멍하니 뜨고 한참이나 영선을 올려다보더니 뭐라고 중얼거렸다. 영선은 《조선사람의 녀》, 《재부》라는 말마디밖에 가려들을수 없었다. 아버지가 다시 눈을 감자 주위승객들이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번들얼굴에게 된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어떻게 할지 몰라 아버지의 조갈든 입술만 지켜보며 속을 빠질빠질 태우던 영선은 불시에 물을 떠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출입문을 열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다. 어데 물이 없겠는가 하여 승강대쪽을 둘러다보던 영선은 흠칫 놀랐다. 수수떡같이 벌건 전등불빛에 드러난 번들얼굴과 검은 제복의 경찰놈...

영선은 숲속에서 뱀을 본것처럼 오싹 소름이 끼쳤다.

《파손경, 저놈의 퀘짜만 좀 어떻게 해주게. 이 건 사례금이야.》

몽치돈을 받아들며 투정질하는듯한 경찰놈의 목소리...

《제길 저따위게 무슨 돈이 돼?》

《아하 모르는 소리유. 지금 서울에 들이닥친 미국량반들한테 저걸 팔면 돈이 얼마지 알아, 부르는게 값이야.》

《오호. 그렇다?》

또다시 쭈군덕거리는 소리... 놈들은 음모를 꾸미고있었다. 이어 《사상객을 체포한다는 비상동원》이라는 지껄임을 일추 들으며 영선은 몸서리를 쳤다. 분명 아버지의 퀘짜엔 시시한 그림말이나 골동품이 아니라 자기로서는 아직 상상도 할수 없는 나라의 국보가 들어있음이 틀림없었다. 영선은 이 순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명백해지는듯 했다.

발길을 되돌려 객실에 들어선 영선은 승객들의 도움으로 다시 피어난 아버지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아버지 빨리!》

그와 때를 같이 하여 곁에 앉았던 청년이 최의범에게 소리쳤다.

《빨리 뛰이소. 검둥개돌이 온당기여.》

한순간에 사연을 알아차린 의범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피나무궤짝을 옆구리에 낀채 영선의 손목을 잡더니 반대쪽 승강대로 달려나갔다.

승강대로 나선 최의범은 달리는 열차의 문을 열더니 영선을 돌아봤다.

《영선아, 아버지처럼 해라!》

피나무궤짝을 꼭 그러안은 의범은 비호같이 몸을 날렸다. 철썩뿔으로 무명실토리마냥 굴러내리는 아버지를 피곳 띄여본 영선은 앞뒤를 가릴새 없이 승강대를 건너차며 허공을 날았다. 하늘과 땅이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며 영선의 귀전엔 회파람소리가 들려왔다. 언제까지고 그렇게만 끝없이 날아갈것 같은 영선은 심한 동통을 느끼며 땅에 구겨 박힌채 정신을 잃고말았다...

기차는 아무 일도 없는듯 여전히 목메인 기적소리를 울리며 먼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북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고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푸른 하늘이 눈앞으로 자꾸만 지나가는 환각에 사로잡혀 눈을 번쩍 뜬 영선은 자기가 지금 누운채로 아버지에게 끌려 수수발이랑을 타고넘어간다는걸 알았다.

《아버지!...》

영선은 퍼그나 무거운 입술을 떼며 겨우 아버지를 붙렸다. 그 부름에 놀랐던지 갑자기 흘러가던 푸른 하늘이 멎었다.

피가 흐르는 팔굽을 발처럼 저거디디며 영선을 끌고 가던 최의범은 아들쪽을 바라보다가 그자리에 쓰러졌다. 그리고는 입술을 우무적거리는데 말소리를 가려들을수 없었다.

영선은 이 순간에야 피땀 아버지가 운신조차 할수 없었던 몸으로 떠나던 일이 머리속에 꼰꼰이쳤다. 영선은 정신을 차리느라 애를 쓰며 아버지의 입에 꿇는 가래를 씻어내기 시작했다.

겨우 입안이 열리자 아버지의 가슴에선 이상한 풀무질소리가 울려나왔다. 의범은 피나무궤짝을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다가 제대로 되지 않자 이번엔 그것을 어루어듬기 시작했다.

《영선아... 이걸... 큰게 아니다. 허지만 나라의 재부가 아니냐...내 나라것이라면 돌맹이 하나라도 아끼고싶었던게 이 애비마음의 전부였다...

이걸... 이 국보를... 꼭... 평양에...》

점점 크게 벌어지던 최의범의 두 눈동자에 아득한 푸른 하늘의 한점이 그대로 못박혔다. 그의 눈귀에 보리알만하게 맺혀있던 눈물방울이 차갑게 굴러내려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돌덩이같은 최의범의 주먹안엔 떠나던 그날 영선이에게 보여주었던 신문 한장이 억척같이 쥐여져있었다.

《아버지! 아버지-이!》

수수발이랑에 모재비로 굳어졌던 최의범의 시신이 고랑으로 텅텅 굴러내렸다... 드넓은 대지가 그를 받들었다...

오혁은 낮이 익은 피나무궤짝을 천천히 열어제꼈다. 천만근의 무게와 엄엄함이 가슴 그들먹히 안겨진다.

궤짝안엔 한 인간이 자기의 목숨과도 바꾸길 주저하지 않았던 그림말이들과 자기류, 옛날 투구가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불시에 오혁의 눈확은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이 유물들이 국보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그자신도 이 순간엔 잘 알수가 없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척도에 의하여 나라의 재부가 될수도 있고 혹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권오혁은 그 재부보다도 그 재부를 지켜 온 뜨거운 마음이 바로 높이 사야 할 우리 나라의 재부임을 력력히 깨달았다.

그 마음의 샘터는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이였다.

오혁은 어찌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수행하여 고구려의 옛성터를 돌아본 오늘 오래전에 만났던 최의범의 모습이 새로운 각광속에 떠올랐는지 똑똑히 알수 있었다.

얼마나 크나큰 행운인가. 참으로 조선은 대통운이 났다. 수수천년을 내려오던 이 나라의 력사가 바야흐로 가장 빛나는 력사로 태동하는 이 분기점에 자기가 지금 서있다는것이 꿈만같아진 권오혁은 금시라도 심장이 가슴밖으로 툭 튀어나올듯만 싶게 쿵쿵 뛰었다.

이삭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림길명

풍요한 가을, 아득히 펼쳐진 농장벌에 황금의 파도가 끝없이 설레인다. 콩꼬투리가 오롱조롱 매달린 논두렁가에 퍼더버리고앉아 온 들판을 안고 흐뭇해하는 한 로인의 귀가에서 어리광치는 저 이삭들은 무엇을 저리도 정답게 속삭이는것일까?

그림에서 눈을 떴을 나는 화판을 펼친채 어끼벌의 가을풍경에 넋을 잃고있는 화가와 마주앉았다.

《저... 그런데 그림의 주인공이 어딘가 낯익은데요?》

《네- 그럴겁니다. 이 농장에서 리성필아바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니!- <구두쇠아바이>가?...)

나는 놀랐다. 작년봄에 여기 농장에 취재왔다가 그다지 좋은 인상을 못가졌던 한 로인이 생각났던것이다.

그때 나는 새로 개간한 논에 많은 거름을 내어 소문이 난 청년작업반장을 취재하고나서 논갈이가 한창인 어끼벌을 돌아보려고 들로 나갔었다. 감상에 잠겨 두렁길을 걷던 나는 갑자기 바지가랭이에 감탕물이 들켜여지는바람에 우뚝 멈춰섰다. 순간 나는 썩레질을 말끔히 한 논가운데 감탕이 툭툭 떨어지는 생나무아지들을 걷어안고 엉거주춤하니 서있는 늙수그레한 로인과 눈길이 마주치었다. 그 로인이 그만 사람이 지나가는줄 모르고 생나무아지들을 골라 두렁밖으로 내던지었던것이다.

《손님!... 이거 참 안됐수다.》

《아바이두... 일없습니다. 흙물이 좀 튄걸 가지구... 그래 거기서 무얼 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이렇게 화재를 돌렸다.

《논에 이런것들이 있길래...》

《네- 모내기를 할 때 혹시 밭에 찢릴수도 있으니까...》

이때 청년작업반장이 헐떡거리며 뛰어와 우리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반장은 로인을 보자 안타깝게 말했다.

《아바이 정 그러시겠어요?... 왜 아침에 퇴비를 실으러 간 트랙터를 쫓아보냈는가말이에요?》

《우리 퇴비는 못내네.》

《아니... 그 많은 퇴비를 똥다가 뭘하겠나요? 비료는 곧 쌀이라구 하는데 퇴비를 많이 내야 수확고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집 퇴비는 못낸단지 않아.》

로인은 두말없이 가버리었다.

《허 참, <구두쇠아바이> 같으니라구!...》

청년반장이 억이 막혀 두덜거렸다.

알고보니 그 로인이 금년에 퇴비를 90톤이나 모았는데 단 한톤도 내놓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아니 무엇때문인가요?》

《글쎄말입니다.... 100톤이라는 수자를 마저 채워가지구 무슨 평가라도 받으려는지...》

(그 많은 퇴비를 모아놓고 내지 않다니...)

나는 정말 청년반장의 말마따나 《구두쇠아바이》구나 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그 아바이가 아름다운 화폭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형상되고있다니?...

나의 이야기를 듣고난 화가는 한참동안이나 소리내어 웃었다.

이윽고 그는 웃음을 그치더니 생각깊은 본래의 얼굴로 되돌아가는것이였다.

《사람의 진가는 세월이 흘러서야 나타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나서 그는 다시 화첩에 몸을 수그렸다.

그때 리성필아바이가 여름내 베어들인 90톤의 풀거름은 다 썩지 못한 《반거름》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로인은 청년반장이 그렇게도 안타까이 뛰어다니며 지청구를 했지만 끝내 거름을 내놓지 않았다. 그 거름이 푹 썩은 다음해에야 비로소 내놓았던것이다. 그런데 그 퇴비를 낸 논에서 정보당 8톤의 수확을 거두게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화가의 흥분에 넘친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 그래서 그 로인이 논판에 섞인 채 썩지 않은 생나무아지들을 그렇게 극성스레 걷어내었구나!)

《바로 그 마음때문이였겠지요. ...정보당 8톤의 수확을 거두게 되자 그 청년반장이 로인앞에 엎디어 빌었다더군요.... 허허... 로인이 말했지요. <이 사람, 무슨 일이나 진정을 부어야 수확을 거두는거라네. 평생 농사를 지어온 나두 이 땅에 진정을 다 붓지 못하는것이 제일 안타깝네.>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땅에 첫 보습을 박던 그때부터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낱알을 여물려온 우리 오랜 농민의 참심정이란 바로 이렇게 아닐까요.》

나는 뜨거움에 젖은 눈길로 오래도록 화판을 들여다보았다.

장창 해벌에 타서 검실검실한 얼굴에 호함진

웃음발이 물결치는 주름살들, 이 세상 어떤 보물
과도 바꿀수 없는 마디 굵은 손...

나는 화판에 옮겨진 리성필아바이의 모습이 어
찌면 저리도 신통할가 하고 감탄했다. 그러나 그
것은 단지 화가의 솜씨에 대한 감탄만이 아니었

다.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었다.

나는 그림속의 로인과 함께 풍요한 가을의 한
복판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이었다. 그리고 들
었다. 이삭의 다정한 속삭임을...

단상

하나의 물음앞에서

정문향

시를 무엇때문에 썼는가?

이것은 시인의 분격을 자아내게 하는 도전적인
물음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처럼 자존심을 상
하게 하는 그야말로 문학수업에서도 초보적인 문
제를 지금에 와서 제기한다는것은 나자신조차도
불유쾌한 일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시들을
읽는 과정에는 때때로 이런 물음을 던지고싶은
작품들도 간혹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갖추어야 할 시적 체모도 갖추고있고 주제사상
적 의도도 명확하고 시인의 탐구적 노력의 흔적
도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읽고나면 읽는 부담밖에
더 주지 못하는 작품으로 되는것은 무엇때문인
가?

또 하나의 경우는 시인은 무진 애를 써서 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산문형식이 요구하는것과 비
슷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것이다.

물론 작품세계는 다양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서도 각이할수 있다. 더우기 하나의 기준
을 놓고 모든 작품에 대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할
수없는 창작의 세계에서 이 문제는 언제나 복
잡한것이다. 보는 사람의 눈과 준비정도에 따
르는 수준차이에서 올수도 있고 자기의 취미에 따
라 작품을 대하는데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작품을 작품으로
되게 하는 그 바탕과 기준점을 무시하거나 내버
리고 뜯소리로 작품을 대할수는 없는것이다.

아무리 《론리정연한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 어떤 작품을 설득시키려 하여도 작품이 가져
야 할 이 생리적 구조를 못가졌다면 《무엇때문에
쓴 시인가?》라는 의문에서 벗어날수 없는것이
다.

언제나 자기 존재를 가장 예민하고 예리하게,
그것도 순간적으로 드러내보이는것이 시의 특성

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시의 세계에서 써도
좋고 안써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별로 아
쉬움없을 그런 작품이 존재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생각하기조차 어려운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을 그러내지 않고서는 못배길 정도로 생
활에 대한 체험이 쌓이고 열정이 끓어번질 때 창
작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즐겁고 보람찬 일로
된다.》**

나는 이 명제를 놓고 이러한 시들에 대하여 언
제나 생각하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명제는 무엇때문에
시를 썼는지 알수 없는 시들에 대한 근본원인을
가장 명확히 밝혀주는 강령적 지침이다. 모든 문
제의 귀결은 바로 이 바탕을 못가지고 태어난데
있다. 개념과 추상에 매달려 정서를 느낄수 없는
시행으로 그 어떤 《매혹성》을 드러내려는 시를
볼 때마다 나는 이 명제의 진수를 가슴에 더욱
깊이 새기게 된다.

공허한 말재간과 진실치 못한 감정의 토막토막
을 마치 놀이감집짓기모양으로 조립한듯한 시들,
사람들의 신경이나 어루만지는것으로써 씌여진
시들은 하나의 물거품과도 같은것이다. 이러한
시들은 현란한 모양으로 한때의 흐름우에 잠깐
떠갈수는 있지만 역시 물거품처럼 순간에 사라지
고마는것이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시인의 자세와 시의
세계를 다시금 돌이켜본다. 써놓은것이 다 시로
남지 않는것처럼 남은것이 다 시의 생명을 가지
는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무엇때문에 시를
쓰는가?》 하는 물음앞에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
며 시창작을 한다.

그리움에 사무쳐

림유길

내 아직
집 떠나본 일 있다면
어머니 꾸려준 작은 배낭 지고
야영의 등산길 걷던 일뿐

내 아직
고향집 그리워 생각한적 있었다면
방학의 나날에 수도 먼 외가에서
문득 꿈결에 떠오르던 생각뿐

허나 내 오늘
수평선에서 해가 뜨고 지는 련 몇달째
인도양의 거친 파도 헤가르며
조국을 떠나보니
레사롭게 생각되던것마저
사무치게 이 가슴에 그리웁구나

늘쌍 정답던 거리의 웃음소리
창가마다 끊던 꽃송이들
시름없이 걷고걸던 유보도의 시원한 바람결
아, 못견디게 못견디게 그리웁구나

마음은 새로와만지는구나
내 어머니, 정다운 벗들

사랑하는 처녀에겐 노엽힌 일 없던지
있다면 몇번이고 사죄하는 마음이었어서

생각은 뜨거워만지노라
안겨 자란 나날에 나를 위해
조국은 그 얼마나 큰 마음 기울여
오늘처럼 땀땀이 키워주었는지
마음속엔 보답해야 할 진정만이 샘솟아

아, 내가 자란
세월의 기쁨도 즐거움도 다 있는곳
바람 눈비 가려주며 나를 키운
사랑의 태양이 누리에 빛나는곳
대양만리 이역의 부두가에서도
내 땀땀이 그대의 아들임을 자부하는
금지와 영예가 시작되는곳

조국을 떠나보니
내 알겠구나
그리움이 이토록 사무치도록
나의 났이 다 있는곳
떨어져 살수 없는 나의 조국은
운명속에 깃든 그 모든 생활임을

정다운 두 집

홍광혁

담장을 사이에 두고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다정한 이웃처럼
정문을 마주하고 선 두집

앞집은 처녀들
다색단 고운 무늬 천짜는 공장
비단필 꽃무지개 피우는 자랑
직기에 담아 노래로 울려나는 집

뒤집은 총각들
천무지개 피우는 처녀들 그 기쁨
어서 필필이 꽃피우라고
천짜는 기계 만드는 공장

다정도 하여라
저저마다 혁신의 자랑 펼친
두 정문의 전투속보판
서로 마주 향해 반기며

두 공장의 창문들도 마주 웃네

불같은 마음들 주고받는듯
기계공장 총각들 역센 기상인양
불반소리 함마소리 높아지면
기쁨에 노래 넘친 숨결마냥
방직공처녀들 직기소리 높여가네

쇠를 깎아도 비단짜는 그 마음
비단을 짜도 당의 뜻 받드는
오직 한마음
행복한 우리의 거리거리에
꽃물결 수놓는 하나의 마음뿐

그 나날에 맺은 정
뜨겁게 오가는 처녀총각들
출근의 아침길엔 새 혁신 약속하고
퇴근의 저녁에는 창조의 위훈 세운
웃음넘친 자랑에 마주선 두집

담장을 사이에 두고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집
15억미터 천무지개에 실는
그 마음 뜨거이 오고가는 집

아, 그 마음만 안고 살아
비단짜는 처녀들의 집
직기 만드는 총각들의 집
혁신의 기쁨속에 사랑도 꽃피우는
누구나의 마음속엔 언제나 한집

아, 순천

리수용

우람찬 기계들의 동음을
창조의 우뢰로 터치며
푸른 용접광은
억만 불보라로 번개를 일으키는곳

내달으며
치솟으며
뜨거운 숨결로 들끓는
오, 비날론기지 건설장이여

하늘가에 치솟은 기둥은
건설자들의 신념인양 억척같고
눈부신 은빛지붕은
비약의 나래인양 하늘가득 펼쳤구나

정녕 무심히 바라볼수 없구나
기둥마다
그대들의 뜨거운 숨결이 어려있고
들보마다
그대들의 불타는 열정이 깃들어있어

물어보자
그 어느 기둥밑에 새겨졌느냐
피더운 가슴으로 언 땅을 녹이고
어깨걸고 비를 막으며
콩크리트타임을 멈추지 않았다는
병사들의 뜨거운 그 마음

그 어느 들보우에 얹혀있느냐
건설의 수리개 젊은 연공들이
건설장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

육중한 강철보를 하늘가에 들어올린
가슴치는 그 이야기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아도
길지 않은 대답속에 다 말하누나
해놓은 큰일보다
해야 할 일을 두고
그저 바빠지는 마음뿐이라고

아, 우리 수령님
바람 찬 이른봄에
터전을 잡아주시고
마가울 찬비속에 다시 오시여
베푸신 그 사랑, 그 믿음 안고 살기에

오늘에 세우는
위훈에 대해서
그대들은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오늘에 바치는
청춘에 대해서
그대들은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 순천
믿음에 보답할줄 알고
조국을 위해 살줄 알기에
크나큰 위훈도 레사롭게
바치는 청춘도 값높이 안고 사는
우리의 건설자들이 있는곳
들끓는 조국의 한 전구여

야전밥통

박춘길

입대의 날
총과 함께
배낭과 함께
내가 받아안은 야전밥통

먼 행군길에 지고 다니며
내 처음
연기에 눈물짜며 선밥 뜰 때
고향집 밥상도 그려봤건만

혼련속에 자고깨는 복무의 나날
그 진맛 알았네
싸리불에 건 야전밥통
내 병사생활도 함께 익히던 나날이여

밀창엔 무엇이 깔렸는지
끓이는것마다 세상 별맛
또 얼마나 깊은지
한개 분대가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오, 관등급 차이는 있어도
꼭같은 크기의 야전밥통
언젠가 내 국맛 보아준
장령동지에게도 있다네
백두산 우등불에 그슬은 야전밥통

어머니 손때 묻은 가마걸을 떠나

눈비바람 몰아치는 위훈의 산야에
이 하나 야전밥통 걸어놓고
내 어엿한 조국의 병사로 자라거니

아, 총잡은 나날
나와 땀수 없이 정든
병사의 야전밥통
언젠가는 있으리
밥통의 그 불그슬음
영원히 닦아내는 그날이

그때까지 그때까지
조국 위해 내 기꺼이
바치는 열정도 식지 않게
위훈의 산정에서 함께 끓자
너도
나도

교원의 마음

김문학

이제는 마주선 키도
내 키를 넘는구나
금별 단 넓은 가슴이
이 한가슴엔 아름차구나

선생님앞에
동창들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
마음 다잡는 나날에 살았다는
소박하게 하는 그 말이 고맙구나

광복거리 건설장에서
북방의 철길공사장에서
자랑 담아 보내오는 그네들의 편지가
이 마음에 얼마나 소중한지
진정 아는지

이른아침 신문을 펼쳐들면
문득 제자들의 이름 볼것만 같아
가슴은 설레이고
오늘처럼 세계의 하늘높이 조국의 영예 펼치고
체육영웅으로 찾아온 그대앞에서
진정 눈에 고이는 눈물 감추지 못하는것은

철없던 시절
한자두자 글 익혀주던
그 나날이 있기때문만이 아니여라
그네들의 성미까지 헤아려
밤새워 교수안을 짜던 그 수고에 대해
위안받자 함도 아니여라

그네들이 진정
조국의 고마움을 알고
당의 은혜로움을 알고
그 고마움, 그 은혜로움 앞에
보답하는 아들로 서야 함을
바라고바라는 교원의 이 마음

내 머리에 얹혀진
흰서리를 걱정하지 말아다오
제자여, 이런 순간에
나의 젊음은 되찾아오나니

아, 주렁진 열매를 안아보는
원예사의 기쁨에 어이 비기랴
교원, 나의 하루하루속에
가장 귀중한 조국의 래일이 숨쉬노라

내 한생 오르는 층계

리영란

어제날 단발머리
이제는 길게 자라고
푸른 꿈 어린 교복도

이제는 벗었던단
수업종이 날가봐

서두르던 때처럼
출근길에 오르는 이 아침도
못잊어 떠오르는 모교의 층계를
오르는 마음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은
나날이 커가건만
보답해야 할 층계는
아득히 높고높아

학창시절에 익힌
과학의 리치만으로
그 높은 층계위에 오를수 있을것인가
나날이 배우고 수양함이 없이
내 어이 그 사랑 다 갚을수 있을것인가

책가방속에 늘 두툼하던
그 책들속의 글줄을 다 익혔다고
내 걸어야 할 인생의 먼먼 길에
어찌 헛디딤이 없으랴

그때문에
내 때로 책을 덮고 주저앉은 그밤에도

스승의 엄한 눈길이
나를 지켜보는것만 같아
다시금 일어서는 마음이어라

그때문에
창가에 밤별이 내려도
그 시절에 못다한 숙제가
마음속에 있는듯
이미 본 책이건만
다시금 펼치노라

얼마나 좋으랴
이런 밤이 이어지고이어져
나의 한생을 배움의 층계에서
내리지 않게 된다면
그로 하여 먼 후날에
조국앞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하고
한생을 총화한다면

나서지 않으리라
영원히 그날의 교문을
오르고오르리라
영원히 배움의 층계를!

속담풀이

△ 겨울이 다 되여야 솔이 푸른줄 안다

사람은 어려운 때를 당해보아야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진짜 속내를 알수 있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 넘어도 안가본 고개에 대고 한숨부터 쉰다

해보지 않고 겁부터 먹는 나약한 태도를 나무
람하여 이르는 말.

△ 동정 못다는 며느리 땡물 발라 머리빗는다

일숨씨는 하나도 없는 주제에 걸치레만 꾸미려
함을 비웃어 이르는 말.

△ 락수물은 떨어진데 또 떨어진다

한번 버릇이 들어버리면 고치기 힘들다는것을
이르는 말.

△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겉으로 언뜻 보아서는 알기
어려우며 함께 지내보아야 알수 있다는것을 이
르는 말.

△ 바늘구멍으로 하늘보기

작은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듯이 전체
를 보지 못하는 매우 좁은 견해나 관찰을 비웃어
이르는 말.

△ 사람이 되고라야 글이 소용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람다운 사람에게 만이
그 지식이 쓸모있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장 단 집에는 가도 말 단 집에는 가지 말라

달콤한 소리로 빈말을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는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찬물 먹고 땡돌방에서 땀낸다

당치않은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리석
고 미련한 행동을 비웃어 이르는 말.

△ 큰 산이 떠나갈듯하더니 쥐 한마리라

굉장히 소문을 내어 시작한 일이 결과는 아주
보잘것없는 경우에 이르는 말.

《동유기》에 대하여

기행문 《동유기(관동기행)》는 고려시기 작가 리곡(1298~1351)이 금강산과 관동의 절경들을 돌아본 기록으로서 삼천리금수강산을 궁지높이 자랑한 고려기행문학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작자는 송도를 떠나 철령을 넘어 금강산과 관동의 여러 절경들을 거쳐 경상도 평해에 이르는 40일에 걸친 2,000여리길을 걸지 않은 글에 감회 깊게 담고있다.

기행문은 금강산의 황홀경과 관동8경을 비롯하

여 삼일포, 학포, 총석정, 원수대, 사선봉, 사선정 등 관동의 명승고적들을 그림처럼 펼쳐보이면서 특히 국도, 천도, 성류굴 등 《지하관동》의 신비경을 갖가지 력사전설과 결부하여 아름다운 필치로 생동하게 그려보이고있어 관동의 절경을 한눈에 보는것만 같다.

기행문은 조국강산에 대한 격조높은 찬미로 하여 오늘날도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기행문

동유기

리곡

기축년(1349) 가을 8월, 금강산유람차로 14일 송도(개성)를 떠났다.

21일, 천마산(강원도 회양에 있는 큰산)을 넘어 산밑 장양현에서 묵으니 여서 금강산까지가 30여리이다.

이튿날 자리조반을 먹고 산에 오르는데 안개구름이 잔뜩 끼여 앞이 자욱하였다. 마을사람의 말이 풍악유람객들이 이 안개구름때문에 구경을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드문하다고 하여 모두 걱정들을 하는중에 제발 말시사고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산아래 5리쯤갔을때 다행히 구름이 차츰 엷어지면서 드디어 해빛이 새어나왔다. 절고개에 올랐을 때는 하늘이 활짝 개이고 날이 산뜻 맑아 산이 칼로 깎아세운듯 또렷하여 그야말로 1만2천봉을 날날이 세일만했다. 무릇 이 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고개에 오르면 산이 보이고 산을 보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하여 이 고개를 절고개라 하였다. 이 고개엔 본래 집은 없이 그저 돌로 대를 쌓아 쉬일곳을 마련했었다. 하던것을 정해년(1347)에 지금 자정원사(고려의 관직명)로 있는 강공 금강이 하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와서 큰종을 주조하고 고개우에다는 종각을 짓고 종을 매여단 다음 절에다 종이 거처할 집을 짓고 중에게 종치는 일을 맡겼다 한다. 우뚝 솟은 종각의 금빛 광채가 설산(절고개앞 산봉우리이름, 여름에야 눈이 녹는다고 설산이라 함)을 쏘니 이 또한 불만한 산경치의 하나이다. 낮전에 표훈사(금강산 만폭동어구에 있는 절)에 이르러 잠간 쉬었다. 한 사미(중)가 길을 인도하여 산을 오르며 하는 말이 동쪽에 보덕관음굴(만폭동절벽에 있는 천연동굴, 관음보살

의 자취가 있다고)이 있으니 구경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을 찾는다고, 그러나 길이 험하고 깊다고 했다. 서북에는 정양암이 있는데 고려태조가 세운 절로 범기보살(금강산에 위해 놓고 늘 설법을 베푸는 보살)의 화상을 모신곳이요, 산이 좀 높기는 하나 꽤 가까워 올라감직할뿐더러 그 암자에 올라서면 풍악의 여러 산봉을 한눈에 다 볼수 있다 한다.

내가 말하기를 《관음보살이야 어디엔들 없으랴, 내가 여기 온것은 산경치를 보려함이니 그 암자로 먼저 감이 어떠하냐?》하고 산을 뚫아 주다듬어 올라가니 파시 풍경이 그 사람의 말대로라 마음이 저으기 흡족했다.

보덕암(보덕굴곁에 있는 암자)을 가려 하니 날이 이미 저물어가고 또 산속에서 묵을수도 없는 노릇이라 신흥암, 삼불암 여러 암자를 둘러 시내를 따라 내려오고말았다. 날이 저물어 장안사(표훈사아래에 있는 큰절)에 이르러 묵었다.

이튿날, 일찍 산을 나왔다. 철원으로부터 산까지가 30리니 서울까지는 실로 500여리이다. 그러나 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산이 첩첩하여 깊고 험하니 이 산을 돌아간다는것도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언젠가 듣건대 이산의 이름이 불경에 나타나있고 천하에 널리 알려져서 건축(인도지역의 옛이름)과 같은 아주 먼 나라 사람들도 더러 와서 구경하는이가 있다고 한다. 무릇 듣는것이 보는것만 못한 법이다. 우리 나라 사람중에 서촉의 아미산(중국 사천성에 있는 명산)이나 남월의 보타산(인도의 남쪽지역에 있는 산)을 유람한 사람들이 있어 모두들 하는 말이 듣던바만 못하다고들 한다. 나는 비록 아미산이나 보타산은 가보지 못했지만 내가 본 이 산은 참으로 듣던바보다

더 훌륭하다. 화공의 채주와 시인의 기교가 아무리 능하다 해도 이 풍경을 다 그려내지는 못할것이다. 23일, 장안사로부터 천마산의 서쪽령을 넘어 통구에 이르러 묵었다. 무릇 금강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마산의 두 령을 넘는데 령에 오르면 이내 산이 바라보이므로 령을 넘어 산으로 들어가는자가 처음엔 령이 험한줄 모르고 넘어보고서는 길이 험한줄을 알게 된다. 서쪽령은 좀 낮으니 오르고내리고 30리요 몹시 험하다고 해서 단발령이라 한다.

24일, 회양부에 이르러 하루 묵고 26일 철령관(회양-안변지경에 있는 령)을 넘어 북령현(회양의 고을이름)에서 묵었다. 철령은 우리 나라의 동쪽 요새이니 이른바 한사람이 문을 지켜 만사람이 열지 못한다는곳이다. 그래서 령동쪽의 강릉과 여러 고을들을 관동이라 이른다.

27일, 등주에 이르러 이틀을 묵었다. 지금은 이곳을 화주라 한다. 30일, 일찍 화주를 떠나 학포(안변읍 동쪽바다가에 있는 큰 늪)어구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국도(경남 남해 충무반도 남쪽섬)를 구경했다. 국도는 바다가에서 10리쯤에 있으니 서남쪽 모퉁이로 길을 잡아들어갔다. 물가엔 백사장이 흰비단을 깐듯하고 그우에 평지가 대여섯배기가량 펼쳐졌는데 모양이 둥근 옥고리 반쪽을 놓은것 같고 가운데에 집터가 있으니 사람들의 말이 중이 살던곳이라 한다. 그 웃쪽으로 산이 옥가락지 모양으로 둘러워있는데 산세가 그리 높지 않은데다가 풀렁쿨이 덮이고 나무가 있으니 그저 언덕에 지나지 않는다.

배를 타고 조금 서쪽으로 가니 석벽과 언덕이 차츰 달라진다. 그 석벽의 돌들은 네모기둥으로 나란히 우뚝 서있고 그 언덕의 돌들은 둥글하고 평평하게 쭉 놓여있는데 한면에 한사람이 앉을만했다. 한데 돌이 가즈런하진 않았다.

수백결음을 더 가니 석벽의 높이가 수백척쯤 되는데 그 돌이 흰빛이요 네모기둥들이 장단이 똑같고 한줄기마다 꼭대기에 저마끔 작은 돌을 이고 있어 마치 화표주(망두석)의 머리같은데 머리를 들어 쳐다보면 아슬아슬하다.

자그마한 굴이 있기에 배를 샅대질하여 들어가니 점점 좁아져서 배를 댈수 없다. 굴을 들여다보니 깊이를 알수 없는데 그 좌우에 뭉쳐선 돌은 바깥것과 같으니 다만 그보다 더 가즈런하고 그 우에 돌가닥지들이 늘어진것이 다 반듯하여 바둑판을 엮어놓은듯 마치 한툼으로 가꾼지 잘라놓은 양 싶다. 이로써 불진대 바깥만이 아니라 섬안팎이 온통 하나의 네모진 돌기둥뭉침으로 되어있다.

그 굴이 깊고 험하여 낮이 펴려 오래 머무를수가 없다.

배를 돌려 북쪽으로 가니 또 한면이 병풍을 두른것 같은것이 나왔다. 배를 버리고 내려가 소일삼아 그 병풍을 만져보니 대개 돌이 굴안의것과

다름이 없는데 석벽이 그리 높지 않고 그밑이 좀 평평하면서 둥근 돌이 넓게 널려있어 천사람이 앉을만했다. 구경꾼들이 오면 꼭 여기 앉아 쉬곤 하는데 어떤 사람이 놀러앉아 한잔 하는자가 있어 풍량이 일가봐 넘려서러웠다. 하긴 이곳은 화식하는자가 머물곳이 아니었다. 석벽을 따라 동남으로 또 수백결음을 가니 석벽의 돌이 차츰 달라졌다. 돌기둥이 가로세로 잔금이 가서 마치 네모기둥의 철망안에 둥글둥글한 곱돌이 담겨있는 형상인데 돌기둥들의 높이는 60척씩으로 줄기마다 꼭같았다. 온 벽면이 다 이러하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철망석이라 한것이다.

이것이 국도의 경치의 대략이다. 그 절묘하고 기이한 모양은 도저히 붓이나 혀로 그려낼수 없으니 참으로 조화가 이다지 신비한줄은 몰랐다.

포구로 돌아와 술을 들며 서로 축하하니 하나는 절경을 잘 보았음이요 하나는 풍량이 일지 않았음을 기뻐해서였다. 포구로부터 배를 저어 학포에 들어가 원수대(학포의 물가운데 있는 루대)에 오르니 백이랑쯤 되는 맑은 호수에 한점 외로운 섬이 있는데 이 또한 기이한 풍경이었다. 날이 저물어 머물지 못하고 고을 객사에 돌아와 묵었다.

9월 초하루, 흡곡현 동쪽령을 넘어 천도(강원도 흡곡앞바다에 있는 섬)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형상이 어떠한가 물으니 섬에 굴길이 있어 남북으로 통하는데 바람과 물결이 들며나며 서로 드나들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천도로부터 바다를 질러 남으로 가면 총석정(통청앞바다에 있는 돌기둥뭉침모양의 돌섬)에 갈수 있으니 그사이가 8~9리요 총석정으로부터 바다를 질러 남으로 가면 금란굴(통천 옛성 북쪽에 있는 천연석굴)에 갈수 있으니 그 사이가 또 10리, 배우의 절경을 이루 말할수 없다고 한다.

이날 꽤 바람이 불어 배를 타지 못했다. 그래서 섬에 들어가지 않고 해변을 따라 총석정에 이르니 애주(경산의 옛이름)고을원 심군이 정자에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사선봉(총석정의 판이름, 신라때 네 신선이 이곳에 놀았다고.)이란 돌뭉침이 서있는것으로서 그 돌기둥이 네모진것은 국도와 같다. 다만 그 빛이 붉고 석벽의 돌이 울퉁불퉁 가즈런치 않을뿐이다. 그 우에서 내려다보니 네 봉우리가 따로따로 우뚝우뚝 솟아 있고 절벽이 깎아지른듯 동해만리를 바라보고 서쪽령 천봉을 대하였으니 실로 관동의 장관이다. 예전엔 석벽우에 비둘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유적이 보이지 않는다. 또 동쪽봉우리에는 옛 비둘이 있는데 비문이 떨어지고 닳아서 한 글자도 알아볼수 없으니 어느때에 세운것인지 알길 없다. 사람들의 말이 신라때 영랑, 술랑, 남랑, 안상 등 네 선동이 3천명의 무리와 함께 바다우에 놀았다 하니 그 무리가 세운것인지 또한 알수 없다. 사선봉을

이웃하여 작은 정자가 있어 거기서 술자리를 베풀고 늦어서야 통주(통천의 옛이름)에 와서 묵었다. 통주는 옛날의 금란현이다. 옛성 북쪽에 석굴이 있으니 사람들이 금란굴이라고, 관음보살이 머무르는곳이라 한다.

다음날 배를 타고 굴로 들어가는데 바라보니 어렵듯이 보살모양을 한것이 굴안에 서있는것 같고 그 굴이 깊고 좁아서 들어갈수 없었다. 사공이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사는지 오랜데 중국사신과 본국의 고관들과 방백수령들로부터 유람객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꼭 이곳을 보겠다고 빈번이 나더러 배를 저어 안내하라 하지요. 언젠가는 작은 구용배(통나무를 파서 만든 배)를 타고 혼자 굴안에 들어가 끝까지 가보고왔는데 별로 보이는것도 없고 손으로 더듬어보니 전면에 다 이끼돋은 돌뿐입니다. 한데 나와서 안을 돌아보니 꼭 무슨 형상이 나타나보이는것 같습니다. 참. 내가 정성이 부족한탓인지 혹은 마음속에 늘 생각한 까닭인지 꼭 무엇이 보이는것만 같았습니다.》라고 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였다. 굴 동쪽에 돌מות이 있는데 관음보살의 목욕터라 하고 또 바위돌이 뽀족뽀족하게 깔린것이 있는데 통죽암이라 한다. 관음보살이 그 돌을 밟을 때 발이 아팠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 한다. 금란으로부터 림도현(금란현의 이웃고을)에 이르러 묵었다.

초3일, 고성군에 이르렀다. 통주로부터 고성까지 150여리는 풍악의 등판으로서 산이 높고 험준하여 사람들이 외산이라 이르니 내산과 기묘한 경치를 다룬다. 그 동남쪽에 유점사(금강산동쪽의 큰절)가 있으니 그 절에는 큰 종과 53불(불교전설에 나오는 53부처)의 동상이 있다. 사람들의 말이 신라때 53불이 종을 타고 천축국에서 바다로 고성해안에 떠왔다가 다시 유점산에 와서 머물렀다고 한다.

고성남쪽에 계방촌이 있으니 거기가 산기슭이요 60리를 올라가면 유점사에 이른다. 내가 처음 금강유람을 떠날때 일행과 함께 꼭 유점사에 가서 그 종과 불상을 보자고 약속했으나 길이 멀고 험한데다가 말이 다 등창이 나고 발굽이 상해서 뒤지는 사람이 있어 다시 산에 오르지 않았다.

초4일, 일찍 일어나 삼일포(고성북쪽에 있는 호수)에 이르렀다. 성북쪽 5리쯤에 있다. 배를 타고 서남쪽 작은 섬에 이르러보니 그것은 덩실한 큰 바위다. 그 꼭대기에 불상그릇이 있고 그안에 돌부처가 있으니 항간에서 말하는 미륵당이 이것이다. 그 석벽 동북면에 6글자의 붉은 글이 있기에 가보니 《술량의 무리 남석이 지나가다》라고 써여있는데 《술량》 《남석》의 4글자는 분명하나 그 아래 두글자는 희미하여 잘 알아볼수 없다. 옛날에 고을사람이 유람객의 치닥거리가 괴로워 비둘을 쪼아버릴 때 5촌 깊이로 쪼았지만 글자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지금 두 글자가 분명치 않은것이 그때문인가 한다.

이윽고 배를 돌려 사선정(삼일포 물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오르니 이것도 호수안의 한 섬이다. 란간에 의지하여 둘러보니 36봉이라 하는 산봉의 그림자가 물속에 거꾸로 잠겼는데 백이랑쫓되는 호수는 맑고 깊은 물이 넘실넘실... 참으로 관동의 승지로 규모에 다음 갈만하다. 그때 마침 군수가 없어 고을 아전이 간단한 술자리를 차렸는데 혼자 마실 맛이 없어 배놀이나 하려고 배를 내대라고 하였다.

사람들의 말이 이 호수의 섬이 네 신선이 놀고 간 36봉이란단. 산봉에 비둘이 있던것을 호종단(후당사람으로서 우리 나라에 귀화해와서 벼슬을 한자)이 모조리 가져다 물속에 처넣어 지금은 그대돌만 남아있다 한다. 호종단이란자는 리후당(리존옥이 락양에 도읍하고 세운 나라)사람으로 우리 나라에 와서 벼슬하면서 5도를 순시할 때 이르는 곳마다에서 비둘이란 비둘은 보는족족 글자를 끊어버리거나 부서버리거나 물속에 처넣었고 이름난 종이나 경쇠도 쇠를 녹여 틀어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를테면 한송정(강릉에 있는 루정), 총석정, 삼일포의 비석과 계림부(경주의 판 이름)의 봉덕사(경주의 큰절)의 종이 그것들이다.

사선정은 박군 숙정이 존무사(어떤 지역에 민심을 무마하기 위하여 왕이 파견하는 립시관리)로 있을 때 지은것이요. 좌수(스승) 익재(리제현의 호)선생이 기문을 지었다.

삼일포로부터 성남하(강릉성남쪽에 흐르는 강)를 건너 안창현(고성의 고을)의 정자를 지나 명파역에서 묵었다.

초5일, 주인이 선유담(간성에 있는 늪, 신선이 놀았다고 함)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청간역을 지나 만경대(간성 청간역 동쪽 물가절벽에 있는 루대)에 올라 술자리를 즐기고 인각촌에서 묵었다.

초8일, 영랑호(간성남쪽의 큰 호수)에 배를 띄웠다. 날이 저물어 끝까지 가보지 못하고 락산사(양양 락산의 절, 관동 8경의 하나)에 이르러 백의대사를 뵈었다. 사람들의 말이 관음보살이 머무는곳이라고, 산밑 석벽에 굴구멍이 있으니 그것이 관음이 들어가는곳이라 한다. 늦게 양주에 이르러 묵었다.

이튿날은 중구일, (9월 9일) 비가 오기에 루정우에서 주화술을 나누었다.

10일, 동산현(양양의 고을)에서 묵었다. 여기에 관란정(양양읍남쪽 죽도뒤에 있는 루정)이 있었다.

11일, 련곡현(강릉의 고을)에서 묵었다.

12일, 강릉존무사 성산 리군이 경포에서 기다려 배를 타고 중류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놀다가

해가 기울기전에 경포대(강릉바다가의 루대, 관동 8경의 하나)에 올랐다. 대에는 전에 집이 없던것을 요새 어떤 일거리 좋아하는 사람이 정자를 지어놓았다. 여기에 옛날 신선의 돌가마가 있으니 차를 달이는 그릇이다. 삼일포와 더불어 경치가 어스비슷한데 명랑하고 현출하기는 그보다 나았다.

비가 와서 하루 묵고 강성(강릉의 판이름)을 나와 문수당(강릉읍동쪽에 있는 불당)을 구경했다. 사람들의 말이 여기 있는 문수와 보현의 두 석상은 땅에서 솟아난것이라 한다. 동쪽에 사선비(네 신선의 비석)가 있었으나 이것도 역시 호종단이 물속에 처넣어서 거북모양의 대돌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한송정에서 전송술을 마시니 이 정자 또한 네 신선이 노닌곳으로 유람객이 끊는것이 귀찮아 고을사람이 집을 헐어버리고 소나무는 들불에 타고 다만 돌가마, 돌못, 돌우물들이 그결에 남아있을뿐인데 역시 네 신선이 차를 끓이던 도구라는것이다. 정자를 지나 남쪽으로 가노라면 안인역이 있으니 날이 저물어 고개를 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묵었다.

이튿날 일찍 떠나 역을 지나며보니 동쪽령봉이 매우 험하다. 등명사(강릉읍동쪽의 절)에 이르러 일출대(월출대와 함께 금강산의 큰 산봉. 해돋이를 보는곳이라고)를 구경하고 바다를 따라 동쪽으로 가서 강변마을에서 쉬고 고개를 넘어 우계현(강릉의 고을)에서 묵었다.

12일, 삼척현에서 묵었다.

이튿날 서루(죽서루, 관동8경의 하나)에 올라 이른바 50천8영(50천은 강이름, 8영은 관동8경)이라 하는것을 쪽 보고 교가역에 이르니 역에서 고을까지 30리요, 15리되는곳에 바다를 낀 절벽우에 원수대(삼척바다가 절벽우에 있는 루대)가 있으니 또한 절경이다. 구우에서 간단히 술자리를 치르고 역사에서 묵었다.

18일, 옥원역에서 묵었다.

19일, 울진에 닿아 하루를 묵었다.

21일, 일찍 떠났다. 고을남쪽 10리에 성류사(울진 백련산의 절)가 있다. 절이 석벽밑 굽이져 흐르는 시내우에 있는데 절벽은 깎아지른듯 아득히 천척이요, 석벽에 작은 구멍이 있으니 성류굴이라 한다.

굴은 깊이를 알수 없고 어두워서 초불 없이는 들어갈수 없다. 절간 중을 시켜 횃불을 잡히고 길에 익은 고을사람을 길잡이를 세워 들어가보았다. 구멍은 좁으나 네뿔걸음 들어가니 조금 넓어지고 일어나 또 몇걸음 걸으니 바닥이 끊은듯이 툭 떨어져 세길쯤 절벽을 이루었는데 사다리로 내려가보니 바닥이 점점 평탄해지면서 굴이 넓어

졌다.

몇걸음 가니 평지가 몇뼘기가량 펼쳐졌는데 좌우의 돌모양이 기괴묘묘하고 또 열걸음쯤 걸으니 구멍이 있는데 굴어귀보다 더 좁다. 엎디어 들어가보니 그아래는 진흙인데 좌우의 돌이 더욱 교묘하여 기발도 같고 부도와도 같았다. 또 열걸음쯤 들어가니 돌모양이 더욱 신기스러워 이루 형용할수가 없고 그 모양이 더욱 길고 넓고 높고 크다.

네뿔걸음 더 들어가니 불상같은것도 있고 고명한 중모양을 한것도 있고 또 못물이 있는데 어찌나 맑은지 그 가운데 돌이 돌 있어 하나는 수레 떠갈고 하나는 맑은 약병갈고 그 결에 있는 일산같은 5색이 찬란하다. 처음 보기엔 돌고드름이 엉킨것인가 그리 굳지 않을상싶어 지팡이로 두들겨보니 쟁쟁 소리가 울리는데 길이에 따라 맑고 흐리고 음색이 달라 마치 편경악기와도 같았다.

사람들의 말이 못을 따라 들어가면 풍경이 더욱 기괴하다 하나 나는 세속사람이 함부로 구경할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 어서 나가자고 했다. 량옆에 구멍이 많은데 사람이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 그 사람더러 굴이 얼마나 깊은가 물으니 아무도 끝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혹은 평해군(경북 평해)의 바다가에 닿으리라 하니 대개 20여리나 된다.

처음 들어갈 때는 옷이 뒹글가봐 종아이의 옷과 두건을 빌어 입고 쓰고 들어갔더니 나와서 옷을 바꾸어입고 세수하고 양치하고나니 마치 꿈에 화서국(꿈에 보았다는 태평세상)에 놀다가 문득 깬 기분이다.

조물의 신묘함이야 말로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하리니 내가 이번에 국도와 이 성류굴을 보고 그것을 더욱 깨달았다.

과연 그것이 자연으로 된것이나, 아니면 일부러 꾸며놓은것이나? 자연이라 한다면 그 조화가 어찌 이다지 무궁하며 일부러 꾸민것이라면 아무리 귀신의 재주로 천만세를 만들었기로서니 어찌 이다지 신묘할수 있으랴.

이날 평해군에 이르렀다. 고을에 닿기전 5리되는곳에 술이 반그루 있고 그가운데 정자가 있으니 월송정(평해에 있는 루정)이라 한다. 네 신선이 노닐다가 우연히 이곳을 지났다고 해서 이름을 지었다 한다.

평해군이란곳은 강릉도(강원도)의 남쪽경계이니 북쪽 칠령으로부터 남쪽 평해까지 무릇 1,400여리이다. 평해이남은 경상도의 경계로서 내가 일찌기 다녀온곳이라 여기 기록지 않는다.

(동문선 71권)

(리학남 역)

고향에 대한 생각

리용일

나는 레사로운 생활속에서 자주 올리는 고향이란 말을 두고 종종 생각에 잠기곤한다.

고향, 그것은 누구에게나 숭고하고 그윽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선조들의 슬기와 용맹을 자랑하며 도시한복판에 우뚝 서있는 남대문, 세월의 이끼 두터운 송악산의 푸른 잔디며 행복의 노래부르며 오르던 추녀높은 개성학생소년궁전의 대리석층계...

고향은 천리마의 우렁찬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태어난 나와 같은 세대들에게 더더욱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불러내는곳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감회에 젖어들게 하는것만은 아니다. 고향에 대하여 말할때 나는 가끔 아버지의 고향을 그려본다. 그러면 자연히 고향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곤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구한 역사를 두고 하나의 반도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우리 시대에 와서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입니다.》

고향이란 말을 두고 나는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와 결부시켜 늘 생각한다. 나는 한번도 가보지 못한 아버지 고향을 언제나 잊을수 없다.

얼마전 아버지가 로환으로 세상을 떠나던 그날, 외지에서 급보를 받은 나는 필요 없을줄 뻔히 알면서도 평시에 아버지가 좋아하던 감 몇알을 구해들고 집에 들어섰다. 이미 집에는 많은 조객들이 와있었다. 나의 아버지와 형님 동생하고 지내던 엄아바이의 얼굴도 보였다.

그날 엄아바이가 술잔에 눈물을 툭툭 떨구며 하던 말을 나는 잊을수 없다. 영원히 잊을수 없다.

《야, 락주야! 통일되면 남먼저 고향에 가자구 여기다 함께 제대배낭을 벗어놓던게 눈에 선한데 이렇게 먼저 간단말이나. 고향, 고향, 외우더니 고향은 빛도 못보구 간단말이나.》

순간 나는 그 어떤 충격에 가슴이 저려들었다.

사람들은 눈감은후에도 한줄의 흠이 되어서라

도 고향에 가기를 원커늘 지척에 두고도 수십년 세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이나 쓰리고 아팠으랴...

내 손에서 떨어진 감알들이 방바닥으로 굴었다.

언제인가 통일거리 건설장의 다층주택을 쌓아 올리다가 남녘하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길, 분계연선도시의 건설자도 신문에 소개되었던 아버지의 그 모습, 건설자대회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만나뵈은 사실을 두고두고 이야기하며 일을 더 잘해야겠다고 하던 아버지의 그 목소리, 정녕 암흑속에 신음하는 남녘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뜻을 받들며 고향으로 가는 걸음을 다그치던 아버지의 한생이었다.

허나 생전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고향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인지 구태여 알고고도 하지 않았다.

내가 나서자란곳이 아버지의 고향인줄로만 알았다. 자라면서 아버지의 고향을 알았고 지도에서 익혔다. 아버지가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살던 고향, 그곳은 과연 어떤곳인가.

아버지의 고향은 경기도 시흥, 누렇게 여문 나락이 어깨와 어깨를 마주비비며 실레이는 논벌, 메뚜기 한가로이 날아다니고 고향집 바둑이가 감겨들며 따라나서던 동쪽길, 산굽이 큰길까지 따라나서던 다정한 마을사람들...

그것은 의용군으로 떠나던 나의 아버지를 바래워주던 고향, 마지막이 될줄은 차마 모르고 돌아본 고향의 모습이라.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대한 말을 자식들에게 하지 못하고 갔다. 땀뿜게 고향땅을 밟으려던 평생소원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간 사람들이 어찌 나의 아버지뿐이라.

아들의 손바닥에 《조국통일》이란 네글자를 간신히 써넣고 세상을 떠난 이웃집어머니, 눈감고서라도 통일된 고향땅을 보겠다고 남쪽으로 물어달라던 박동무의 아버지, 30여년세월 고이 간직했던 경상도 고향집열쇠를 자식에게 넘겨주고간

최동무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들은 나와 같은 세대들에게 얼마나 책임적이고 무거운 임무를 맡기고 간 것인가.

우리 부모들이 다음대에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념원, 그때문에 눈도 편히 감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간 부모들의 그 부락을 우리 어찌 잊으랴.

우리 부모들에게 슬픔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 아픔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인 생리별의 비극을 빚어낸 철천지원쭉 미제에 대한 증오가 나의 가슴속에 끓어번진다.

지척에 있는 혈육들에게 아버지의 사망전보 몇 자도 날릴 수 없게 강토를 갈라놓은 원쭉 미제의 죄행을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우리 부모들의 어린 시절 발자취 찍힌 그 버들

방천에도 저주로운 핵기지의 철조망을 늘인 원쭉 미제, 아침이면 들려오던 고향마을의 닭울음소리, 소방울소리마저도 전쟁연습의 총포성으로 밀어던진 침략자 미제, 우리의 가슴속에는 천추만대를 두고 놈들을 복수하고야말 굳은 결의가 그대로 불길이 되어 솟구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싸워나감으로써 군사분계선의 검은 표말을 뽑아 미제침략자들을 호되게 답새겨 태평양너머로 지구밖으로 쫓아낼 것이다.

하여 부모들의 고향의 그 언덕에도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의 금나락이 설레이게 하리라. 기쁨의 파도가 물결치게 하리라. 조국통일의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답시

(소련)안드레이 제멘찌예브

오랜 세월에 어머니는 늙었더라
그래도 아들 소식은 가뭇 없어라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기다리네
아들을 믿는 탓에, 어머니인 탓에
어머니는 이제 무엇을 바라나?
전쟁이 끝난지도 여러해
모두들 돌아온지도 여러해
땅속에 묻힌 이들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떠나면 고장에서 돌아왔는가
애송이들만 돌아오지 못했거니...

한번은 봄날에 이 마을에
전쟁기록영화가 왔어라
모두 영화보러 모여왔네
늙은이도
어린이도
전쟁을 겪은이도
못 겪은이도

사람들의 쓰라린 추억속에
증오는 강물처럼 출렁거렸네
이것은 그야말로 회상하기 괴로운 일,

뜻밖에 영사막에 아들이 비치었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았네
하여 어머니의 웨침소리 울려 퍼졌네
《알렉세이! 알로셴까! 내 아들아!》
마치도 아들이 그 목소리 들을 수 있거나 한 듯

아들이 전호에서 전투장으로 돌입했네
어머니는 그를 엄호하려고 벌떡 일어섰네
모두들 근심했네, 아꼈사
아들은 땅우에 쓰러졌네
하지만 세세년엔 아들은 앞으로만 달려왔다네
《알렉세이!》하고 고향사람들 웨쳤네
《알렉세이! 뛰라구》 애타하였네
화면은 바뀌었네, 아들은 살아남았네
아들을 다시 비쳐달라고 어머니가 부탁했거니
아들은 또다시 돌격해갔네
몸성히 부상도 없이, 죽지도 않고

어머니에겐 집이 온통 영화런 듯
계속 기다렸네
하여 이제 당장 불안한 고요속에 잠긴 창문을
전선에서 돌아온 아들이 두드리리

(구경서 역)

우리는 한자리에 앉게 될것이다.

안선옥

하나의 직업, 하나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 사람 인데도 그 처지가 판이해지는 경우가 있다.

작가라면 동서고금의 인간형상을 통하여 인생의 진리를 노래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이 숭고한 의무로, 성스러운 권리로 인정되어왔다. 이것은 작가에게만 특유한 행복이며 자랑이기도 하다.

한편의 글로 사람들의 작은 가슴을 뒤흔든 작가들의 이름은 그 작품과 함께 인류력사발전의 전로정을 따라 레우와 같은 평행선을 그려왔다.

작가-인민을 위해 글을 짓는 사람!

이 얼마나 긍지높은 부름인가! 그러나 이 긍지는 어느 작가에게나 공정한것이 아니다.

나라의 분렬은 조선의 작가들도 갈라놓았다. 웅당 하나의 처지여야 할 작가들이 두 처지로 나뉘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비극적사태와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재난은 곧 전체 조선민족의 불행이며 이것은 다름아닌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이 가져온 가슴아픈 결과입니다.》

오늘 남반부작가들은 남녘땅에 태어났다는 그 죄아닌 죄로 미제와 피괴도당의 탄압속에서 비참한 운명의 노예로 쫓기우며 작가라는 본연의 의미를 억울하게 빼앗기고있다.

금년 여름 창작휴가로 나는 바다가에 자리잡은 한 휴양소에 간 일이 있었다.

거기서 우연히 나는 남반부에서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해온 한 청년을 알게 되었다. 오랜 세월 그려오던 동포애의 뜨거운 감정은 우리 두사람을 쉽사리 친구로 만들었다. 리지적인 눈과 흥안의 특징적인 모습을 가진 청년은 거의 어머니벌이 되는 나를 친 누이처럼 따랐다. 그처럼 따르는속에 뜻밖에도 기막힌 사연이 깃들어있는줄 나는 그때 미처 알수 없었다. 우리는 해당화 아름다운 바다가에 앉아 짜깁고 시원한 바다물에 흰 발을 잠그고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끝간데 없이 펼쳐진 맑고 깨끗한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고 휴양소지붕을 넘나드는 갈매기들을 세여보며 그 수가 서로 어긋나서 허리를 쥐고 웃기도 했다. 그때마다 청년은 결코 젊다고 할수 없는 내가 천진스레 웃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곤했다. 그럴때면 그의 서늘한 눈가에 아지

못할 의혹의 빛이 깃들곤했다.

정들자 리별이라고 얼마후 나는 아쉽게도 그와 헤어지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깊은 배려로 진행되는 작가강습에 참가하고자 평양으로 떠나게 되었던것이다.

내가 차시간을 기다리며 주섬주섬 가방을 꾸리고있을 때였다. 조심스런 손거척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 그 의거자청년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의 이상스레 어두워진 얼굴에 비낀 무엇인가 말 못할 괴로움을 읽었기때문이다.

나는 방금전에 그와 작별인사를 한터이라 별로 좀 새삼스런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반기며 그를 향해 다가갔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향해 내미는 나의 손을 못본듯이 불부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꼭 가시렵니까?》

《네, 가야 합니다. 강습이 끝나면 곧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나의 맞은편 쏘파우에 털석 주저앉더니 옆에서도 알리게 푸 하고 한숨을 내그었다.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는 곧 다시 만나게 되겠는데 뭘 그러냐는듯 입가에 미소를 머운채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그 한숨소리는 나에게 혹시 그의 생활에서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생겼는가 하는 의문을 자아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진심으로 물었다. 어찌보면 아들같고 동생같기도 한 그인지라 이따금 영석같은 푸념도 그저 사랑스럽게만 보아온 나였다.

혹 또 무슨 먹고싶은 음식이 있는지, 방안의 랭풍이 너무 세지나 않는지...

나의 근심은 괜한것이였다. 그의 입에서는 전혀 판소리가 울려나왔다.

《선생님, 이북의 작가들은 참 행복합니다.》

나는 가방속에 책을 넣다 말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의 눈길은 굳어졌다. 그의 크지 않은 눈확속에서 물기가 고여울랐던것이다.

그는 처음 글을 배우는 사람이 자모를 외우듯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다.

《행복에 묻혀사는 사람들은 그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는 모를것입니다. 그것을 공기처럼 웅당한 혜택으로 알고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행복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행복하기만 한 작가인 선생님을 보니 남에 두고온 누이생각에... 용서하십시오. 우리 누이도 작가입니다.》

《예?》

나는 등골로 전류같은것이 흘러내리는 이상한 예감을 느끼며 그의 옆 쓰파에 앉았다.

《작가라니요? 그런데 왜 피로와합니까?》

직업적 습관이랄가, 동업자다운 호기심이랄가. 나는 성급히 맞받아 물었다.

《전 선생님을 만난 첫 순간부터 우리 누이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여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그 검은 눈이랑 얼굴모습이랑... 그래서 선생님을 친누이처럼 따랐습니다. 아, 잊자고 해도 잊을수 없는 누이... 전 피로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행복에 웃으며 작가강습에 가는데 우리 누이는 지금...》

그는 목이 꺾 메여 다음말을 잊지 못했다. 이 하루의 마감을 알리는 불그스레한 저녁노을이 오열에 떠는 청년의 어깨를 조용히 어루만졌다. 그의 가슴에 영킨 어떤 피맺힌 사연의 산 증거인듯 맑은 눈물방울이 불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슴속에 어떤 안타까운 덩치가 들어배겼을 때 그것을 조금이나마 남에게 해쳐보여도 물에 소금풀리듯 녹아져내릴 때가 있다.

지금 그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해당화 붉은 남해바다가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그의 누이는 다감하고 열정적이고 지칠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독서와 글짓기를 남달리 좋아했던 그는 간고하고도 피나는 노력끝에 바라던대로 작가가 되었다. 그는 신음하는 민중을 사랑했다. 처지의 공통성때문인지 그는 곧 민중의 사랑받는 작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두어깨에는 오랜 세월 고역이 마련해준 병마로 몸져누운 어머니와 다섯동생이 매달려있었다. 그는 연약한 어깨우에 힘겹게 그들을 갈라메고 먹여살리기 위해 글을 써야만 했다. 그는 작가라는 본래의 신성한 의미를 저버리고 생존과 돈을 위해, 자기뒤에 렬을 지어 매달린 그 불쌍한 《도레카》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작가라는 허울좋은 운전대를 잡고 결승선에 나선 《직업선수》가 되었다.

그는 《지치다》라는 말이 세상에 있다는것을 알지 못하는듯 밤에도 쓰고 낮에도 썼다. 그러나 색안경을 겹으로 코잔등에 걸친 놈들의 《검열》에서 원고들은 번번히 휴지쪽이 되곤했다.

생활은 그로 하여금 운명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다. 생활이 스스로 그로 하여금 압제에 반항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점차 그는 맹목적인 굴종이나 타협이 아니라 그 붓끝을 누구를 향해 겨누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는 결코 상업작가가 될수 없었다.

일찌기 생활전선에 나선 그는 녀성으로서 자식을 낳을 기회와 조건을 마련 못했다. 그러나 폭발전 화산의 뒤끓는 용암같은 그의 글발들은 그대로 피를 주고 뼈를 갈라주고 살점을 에여준 아들이었고 사랑이었다. 해당화의 향기와 파도소리 대신 최루탄 연기와 아비규환의 절정속에서 처녀는 심장으로 《아들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의 세찬 고고성과 함께 항쟁의 파도가 물밀듯 원쑤놈들을 맞받아나가는것을 가슴후련하게 바라보곤했다. 투쟁의 기발이 되고 구호가 되고 선동문이 된 그 시편들은 당국의 주목을 끌었다. 검거의 선봉이 태풍처럼 몰아쳤다. 다른 많은 작가들과 함께 누이의 작은 몸에도 엄청난 현상금이 붙었다. 누이는 숨어야 했다. 어느 곳은비 내리는 을씨년스런 가을밤 눈물젖은 얼굴로 어머니와 동생들과 헤어진 누이는 그후 생사를 알길 없었다.

강철도 물로 된다는 그 지긋지긋한 지하 고문실에 갇혔는지, 아니면 수난당한 방랑객이 되었는지...

청년의 이야기는 나의 가슴을 저미는듯했다. 어느새 마지막 저녁노을도 창문멀리 사라지고 호실에 전등불이 켜졌다. 그 백광에 눈물로 범벅이 된 청년의 얼굴이 처참하게 번들거렸다.

《아, 해당화처럼 곱고고운 우리 누이. 것처럼 작가가 되려던 우리 누이는 지금 어디로 갔단말입니까? 선생님. 말씀해주십시오. 왜 한나라안에서 태어난 작가들이건만 이남의 작가들은 이렇게 가슴아픈 처지를 당해야 합니까? 네? 왜 한나라에 이렇게 판이한 두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청년은 어깨를 떨었다. 그는 어린애처럼 나의 손을 꼭 잡으며 소리내여 울었다. 나의 눈에서도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나의 두 모습! 작가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열백개가 횡종대를 이루어도 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무자비한 두 모습이였다.

안아주고 품어주는 품이 서로 다른때문이었다.

서로 다른 두 체도가 응당 하나여야 할 우리의 모습을 그 환경의 산물로 서로 다른 두 모습으로 진화시켰던것이다.

나의 눈앞에는 행복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단발머리 철부지때 도대체 창작이란 무엇인지 알기나 하였으랴. 그러나 글을 쓰고싶다는 단순

한 꿈을 무슨 큰 보배처럼 애지중지 여겨주고 키워주고 안아준 품, 자그마한 글 한권이 책귀에 실려도 그렇듯 기뻐하며 기량을 높이라고 강습도 조직해주고 창작적 눈을 넓히라고 현지체험에도 불러주던 품, 잠깐 게을러져 쓰기를 잊을 때면 다정히 배워주고 호되게 채찍질도 해주며 떨어질 세라 빛나갈세라 손잡아 이끌어주던 품... 그 모든것이 얼마나 크고 값비싼 행복이였는가를 행복에 익숙되버린 나는 미처 알지 못했었다.

한쪽은 작가가기때문에 혜택을 받고 기량이 나아질세라 퇴색된 벽화를 채색하듯 힘과 지식과 용기를 받는데 다른 한쪽은 똑같이 받아야 할 그 모든것들을 철쇄와 주검으로 바꾸어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어찌 그의 누이뿐이라.

통일과 민주를 지향한 수많은 남조선 작가들이 감옥의 차디찬 돌바닥에 쓰러져 글대신 피를 흘리고있다.

얼마전 어느한 남조선 신문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어둡기만 하던 그 세월 노래 《반달》을 작사작곡하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그루와 토끼 한마리가 돛대도 삿대도 없이 잘도 가는것처럼 멀리서 반짝이는 빛을 찾아가라고 암담하던 가슴들에 희망을 안겨주던 창작가에 대한 눈물겨운 인생말년 이야기를 실었다.

살을 에이는 엄동설한에 서울 서대문근처에서 여든네살의 고령을 모지라진 지평이에 떠실고 생활에서 허덕이는 그가 한때 우리 인민들 모두가 것처럼 사랑하던 노래를 지은 작가이며 작곡가였다. 그 노래는 수십년세월을 넘어 아직까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귀중한 보물처럼 진하게 남아 사랑받으며 불리워지고있는데 그 열혈창작가는 인생의 마지막 문턱우에 떠박질리워 무참히 숨져가고있다...

《선생님, 우리 누이도 언제면 선생님처럼 마음껏 글을 써볼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대답해주시시오. 불쌍한 누이...우리 누이... 누이의 소원이 풀릴 날은 과연 언제입니까?...》

청년은 또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의 지극한 위안도 그를 진정시킬수 없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의 소원이라.

이것은 곧 그의 누이를 비롯한 수많은 남녘땅 작가들의 소원이 아니겠는가.

정녕 참기 어려운 가슴아픈 비극이었다.

나는 죄스러웠다. 어둠속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나의 이 행복을 다문 얼마라도 덜어줄수 없는것이 뼈저리도록 안타까웠다.

행복을 받아안는데만 습관되어온 나는 주체사상의 조국의 작가로 살며 일하는 영광을 이때처럼 가슴뜨겁게 느껴본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이 아니었다면 그의 누이치지로밖에 달리 될수 없었던 자신을 두고 생각이 깊어졌다.

그 은정깊은 품속에서 나는 세상에 부럼없는 작가로 되었는데 그의 누이는 미제와 피뢰도당의 학정밑에서 작가라는 이름이 곧 글을 쓸수 없는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로 되었다.

행복과 궁지-불행과 슬픔.

영광과 자유-주검과 철쇄.

원한의 분계선은 나누기부호처럼 같은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하나의 겨레, 하나의 민족, 우리 나라를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행복과 불행은 반드시 하나의 더 큰 행복으로 되어야 한다. 그날을 위해 혁명의 필봉을 원쑤칠 무장으로 거머쥐고 미제와 피뢰도당을 맞받아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나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이 행복을 지키며 것처럼 바라시는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기 위하여 좋은 글을 더 많이 쓰리라 굳게 마음다졌다.

순간 나의 가슴속으로는 아지 못할 힘이 솟았다. 나는 불처럼 뜨거워지는 가슴을 달래이며 그대로 친누이가 되어 피로움에 모대기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넘려 마십시오. 그날은 꼭 올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민중의 사랑받는 그 녀류작가도 그날을 위해 어디엔가 살아있으며 살아서 싸울것이다.

동생을 닮았더라면 필경 동그스름한 얼굴이 몹시 예뻐서 그 작가를 눈앞에 그려보았다. 우리 함께 어깨나란히 현지체험도 떠나고 한의자에 가지런히 앉아 작가강습도 참가하고 문학작품 합평회에서 열변도 토하고... 눈물겨운 환상에 나는 몸을 떨었다.

아니 이것은 환상이 아니다.

그날은 꼭 올것이다.

우리는 기어이 한자리에 앉을것이다.

1987년 9월 4일

분계선 시초

동기춘

분계선

조선사람은 누구도
이 선을
원치 않는다.

하나의 조선이
무시되고
한피줄을 둘로 가른
너, 원한의 분계선

철조망을 두겹세겹 늘이고
고압전류를 끌어넣고
심연같은 도랑을 짚고

그것이 관문점에 와서는
탁상우의 전화줄이 되어 건너간
이 어리석은것에 치워
민족이 수난당하는
억울한 력사가 빚어지고있구나

고통에 앞서 분노가 일고
분노에 앞서 저주로 떨리는곳

황막한 땅
왜선지 보임직한 날새도 없고
어데선가 총구가 겨누는듯한
섬찍한 공기만이 얼어붙은곳

저기 철조망너머 석양하늘에
침울한 구름은
남녘겨레의 한숨은 아닌가
불깃한 노을은
그네들이 흘린 피빛은 아닌가

말로만 들어오던 분계선에
처음으로 서보니
엄숙한 조국의 물음앞에

천길지심에도
보복의 용암이 끓는 땅아

가르지 못할것이 갈라진우에
세월은 피를 내며 흘러가고
분렬에 혈육이 끊어지는
이리도 아픈 비극을 겪는 땅이
물어보자 세계여, 지구의 그 어디에 또 있는가

반만년 흘러온 련면한 강토와
순결한 민족의 가슴에
치욕을 남기는 이 상처를 안고
2천년대를 눈앞에 뒹야 하는가

미제와 역적에겐 명줄이고
인민에겐 재난인
너 분계선 분계선
민족의 뱃에는 네가 없거니
우리의 하늘에 태양이 하나인 한
조선은 둘로 될수 없노라

애국에 대한 문제

죄스러운 마음

돌이켜보면 적은 성과에 취해
흥겹게 걸은 저녁길도 있었고
박수속에 받은 훈장이며
행복한 생활의 설렘도 있었건만

피롭구나 자족한 그 순간들에
몇번이나 이 분계선을 생각했던가
어찌하여 이 가시쇠줄앞에서
뿔뿔한 말 한마디 할수 없는것이나

무엇을 했던가 너 나 없이
이 분계선을 이제도록 두었으니

분투의 길 천만리를 뛰었대도
민족지상의 념원은
아직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옛조상들이 말을 달리던 단일 3천리에
갈라진 동족을 력사에 남기면서도
저 하나의 안락에 편안히 눈감는

그런 속물이 되지 말자, 가슴치는 맹세

내 여기 분계선앞에 서서
가차없는 조국의 평정을 듣노라
아, 애국의 큰 문제는
지나온 날의 해놓은 일에 있지 않고
들어내칠 이 분계선에 있구나

세월이 흐른 뒤

언제든 통일이 되고
그우에 또 세월이 흐른 뒤
아득히 먼 그날에도
분계선의 저것만은 남으리

남으리라, 민족의 가슴에
치욕스런 콘크리트장벽은
《두개조선》을 찌하며
이 강토에 어떤 추물들이 살아서
한때 민족을 괴롭혔던가를
저 장벽은 남아서 그 죄를 고발하리

여기 스산한 철조망도 없어지고
깊이 파제깁 반땅크흙도
세월의 비바람에 묻히고

장벽은 없어질지라도
남으리라 그것은 력사의 갈피에

남아서 말하리
시달린 민족의 오늘을
그리고 말하리라
민족의 만대에
한놈의 역적도 두어선 안됨을

저 콘크리트장벽을 쌓을 때
놈들은 몰랐으리라
세월이 흐른뒤
그것이 저들의 죄악의 묘비로 남아
대를 두고 뱉는 침에 얼룩질줄은

《양키 고 홈!》

《양 키 고 홈!》
심장이 약하다고
늘 조심하며
흥분과는 결별했노라던
외국벗의 웨침이다

《양키 고 홈!》
그는 지금 눈에 피발서도록
만신의 저주를 담아
심장이 구워낸 불돌같은 말을

양키병정의 낫쪽에 배알고있다

《양키 고 홈!》
분계선, 이 분격의 땅에선
그가 량심가진 인간이라면
세계의 그 누구도
아껴두는 심장이 따로 없어라

(※ 《양키 고 홈!》은
《미제는 물러가라!》는 뜻임)

조국의 의미

분계선에 앉아
사람들이여, 나는 지금
조국에 대해 생각하고있다

나의 앞에는
개미와 나비와 그러루한것들뿐
사람이 밟으면 죽어야 하는
지뢰원 황무한 폐허가
넓은 폭으로 음울하게 누웠다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돌보고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곡식이 자라야 할곳에
너 바람에 설렁이는 서글픈 나무여
너 한떨기 쓸쓸한 꽃이여

아프구나
몹시도
몹시도

저것이 왜 이리 아픈가

말 못하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그것이
나와 운명을 함께하는
조국의것이기예
이리도 눈물나게 아픈것이다.

조국강토는 몇몇 위정자의 룡락물이 아니다
겨레여,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되찾자, 하나의 내 나라를

아, 조국
분계선앞에 서서
몸부림치며 생각하는 나의 조국은
허리가 끊어져선 못사는
나자신이기도 한것이다

독자편지

혁명적수령관에 대한 생활의 교과서

나는 조선문학 1987년 4호에 실린 단편소설
《영원》을 깊은 감동속에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수령과 전사의 사랑과 충성에 대한
참으로 감명깊은 화폭입니다.

한 전사를 위하여 사나운 날씨에 백두산으로
다시 오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마음속으로 우러르며 나는 뜨거운 눈물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코트자락을 기폭처럼 날
리시면서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시고 백두산정으
로 오르시였습니다. 쥐면 잡힐듯이 진한 검회색
비구름이 모였다가는 흩어지고 흩어졌다가는 모
이는 산정... 남들은 이런 날의 등산에 진미를 모
를수 있으나 동무와 나에게는 이런 날이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 그순간 20
대의 젊음을 되찾는 전사의 회열...

타고난 싸움꾼이며 백전로장으로 알려진 소설
의 주인공이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기까지 위
대한 수령님앞에서만은 순진한 동심으로 돌아가
티없는 진정을 바치는것을 어찌 우연타하겠습니
까!

바로 이점이 진한 형상으로 나의 가슴에 파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은 열화같은 충성심

을 낳았습니다.

소설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자세로 위
대한 수령님을 따르고 높이 모셔야 하며 수령의
전사의 영원한 삶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힘있
는 필치로 보여줍니다.

소설의 주인공-수령의 전사는 언제나 우리들결
에서 숨쉬고 살아가는것만 같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하나로 융합되어 나의 한걸음한걸음을 이끌
어주고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티없는 눈동
자로 우러르며 따를 때 나의 삶도 영원할것이라
는 신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참으로 단편소설 《영원》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데서 하나의 커다
란 교과서로, 독자들의 길동무로 된다고 생각합
니다.

이것은 소설을 읽은 우리 인민병원의 여러 동
무들의 한결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좋은 단편소설들을 더 많이 편집하여주십
시오.

함경남도 흥원군 인민병원 박경숙

조명탄

신병강

명절날-
그 어느 광장에 터져오르는
그런 축포가 아니다
여기 분계선 상공에 터지는
저 붉은 화광!

이 밤도 황황히 타오른다
조명탄! 조명탄!
분계선 상공에 적들이 쏘아올린
조명탄! 조명탄!

조선의 밤이 그리도 무섭더냐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며
새벽까지 쏘아대는
조명탄! 조명탄!

낮에는 확대경으로

밤에는 조명탄으로
네놈들 《남침위협》을 떠들며
제아무리 피진 눈깔을 뒤집어도

보라 평화를 사랑하는
이 땅의 선량한 량심들
이 밤도 신흥리 별관에선
논갈이하는 처녀뜨락뜨로운전수가 천
두줄기 전조등 불빛, 불빛...

남쪽에선 조명탄 화광
북쪽에선 전조등 불빛
누가 평화이고
누가 전쟁이나
이것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엄격한 력사의 증견이다

《통일거리》

권영호

여기선 불밝은 창문들도
남녘을 생각하는 혈육의 눈빛처럼 비껴흐르고
여기선 텃어선 렬차의 긴 기적소리도
겨레를 부르는 웨침인듯 간절해라

지난 세월
앉힌 밥 끓기전에 찬거리 사가던
건너마을의 그 녀인들
굴욕에 희여진 백발을 날리며
이 저녁 끼니나 제대로 끓이는지...
그 모습 삼삼히 안겨와
때식마다 수저가 무겁고

안타까움에 가슴저리어
창가에 다가가 문발을 젓히면
자남산마루에 서계시는 수령님동상
이밤도 찬이슬 맞으시며
남녘을 바라보고계시여
숙연한 생각속에 잠들수 없는 거리

아, 언제면 그 언제면
수령님 한품속에
남녘형제 다 안기여살가
정녕 언제면 그 언제면
가로수 설레이는 화려한 이 거리로
기쁨에 겨워 웃고 떠들며 함께 걸어볼가

낮이나 밤이나 그 녀원 끓고 끓어
밥상을 거두기 바쁘게 이 거리 녀인들은
《통일단》비단필을 짜러 떠나고
세대주는 서둘러 《통일호》기대앞에 다가서고

아,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건만
천리 아닌 지척에서
순간도 못잊어 겨레들을 부르는
《통일상점》
《통일체신소》
《통일광장》...

가슴아픈 분단의 침단에 솟아
이제 더는 분열된 세월을 보낼수 없기에
원췌 미제에 대한 규탄을 안고
서두르며 재촉하며
생활의 큰 걸음 옮겨가는 《통일거리》여

너는 분계선도시의 작은 거리여도
민족의 마음이 쌓이고 쌓인
숙원의 령마루에 솟아있는 거리
해빛밝은 추녀를 하늘높이 들고
남녘겨레를 간절히 부르는구나

산 너는 백만

리상림

죽은 너는

하나

산 너는

백만

한렬아

너의 령구앞에

백만이 서있다

숨막히는 천지를 앞에 두고는

차마 눈을 감을수 없어

뜨고 간 너의 눈이

백만의 눈이 되어

놀리워 살아서는 사는것이 죽음이어서

싸우다 싸우다 쓰러진 너

불굴한 너의 넋이

백만의 넋이 되어

자주와 민주를 부르짖던

피타는 너의 목소리

무서운 퇴성벽력으로

백만대오에 메아리치나니

죽은 너는

하나

산 너는

백만

아니

삶을 향해 나아가는

수천만이다

독자편지

따분하지 않고 재미있는 기사

군사통신원이라는 의무감이 가져다준 습관인지
는 몰라도 잡지 《조선문학》에서 실화문학, 기행,
수필, 같은 종류의 예술산문들에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
다.

이런 형식의 작품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운
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군인들에게 주체조
국의 수호자라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안겨주는
인식교양적가치를 그 어느 형식의 작품들보다 강
하게 안겨주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많이 편집되고 있는 기
행은 특별히 우리 독자들의 관심속에 읽히우고있
습니다. 특히 평양지하철도에 대한 기행은 형상
에서 새롭고 실감이 있습니다.

이 글은 《어느 신문에서, 어느 덕성기사에서
많이 보았는데 또 나왔구나》하면서 이런 형식의
글들을 보지 않던 우리 독자들의 기성관념을 깨
버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련속기행 《해빛넘치는 지하평양》(박창민)은 신
문기사처럼 따분하지 않고 형상적으로 재미있게,
짧게 쓰면서도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위
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
랑과 은덕을 깊이 느끼게 하고있으며 탁월한 령
도의 현명성을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앞으로 이런 형식의 좋은 작품들을 많이 편집
해주기를 바랍니다.

조선인민경비대 우편함 제 02012 호(L-C)

하사 김철건

박연폭포의 노래

박연의 물이
거슬러흐른다 해도
아름다운 경치에 내 넋이 끌려
두루 사방 살펴보노라

너럭바위에 고인 맑은 물
급한 여울되어 쏟아져
천길 흰 무지개마냥
가로 걸려있도다

밑에는 깊은 룡소
바닥은 어데인가
땅속을 가로 꿰어
지축을 적시는가

룡이 여의주를 물고
본시 여기에 잠겼으리
유리같은 물결은 아롱거리고
우뢰같은 소리는 쿵 쿵 석벽을 치네

치어다보니 하늘중천에
은하수 걸려있는듯
알겠구나,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가 여기로다

물러서서 생각하니
애달파라
입을 따라 찾아왔던 옛 자취
그 어디서 찾을소나

소나무가지마다 바람따라 울고
해빛은 소에 비졌구나

내물 흐르는 골짜기 향기롭고
상서로운 안개 감도누나

속연한 학의 소리
때때로 들리나니
저 학 타고 이 산굽이 찾은 이
그 얼마였으랴

장가며 단가를
짓고 또 새겨
다투며 네 모습 그리자고
기이한 말 다 썼더라

기쁘구나, 내 산 좋고 물 맑은
이 나라에 태어나
이렇듯 좋은 산, 좋은 강을
마음껏 보았거니

좋구나!
너 박연폭포여

신기하여라
뛰어난 네 모습
세상에 그 어디
또 있으랴

바라노라, 늙기전
봄바람 부는 때에
시를 싣고 술을 싣고
너를 찾아 즐기리라

(권택무 역)